현대불교신문·아름다운동행 공동 캠페인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후원계좌 농협 301-0316-6816-7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25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2월 10일) 2023년 3월 1일 수요일

남원 선원사 시왕도서 '항일운동 태극기' 발견

운문 스님 기자회견서 공개…지난해 11월 기도 중 발견





남원 선원사 지장시왕도 일부. 윗 사진은 변성대왕과 아래 사진은 변성대왕의 관모에 그려진 태극기. 시왕도는 1917년 그려진 것으로 3.1운동 2년 전 활용되던 태극기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사진제공=선원사**

시왕도 조사해보니 1917년에 조성
호남불교 대표한 진응 스님 증명해
최초 태극기 '이응로 태극기' 유사
"백초월 태극기보다 2년 빨리 조성"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독립 의지를 담은 태극기의 원형이 사찰 불화에 그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 선원사 주지 운문 스님은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내 명부전에 봉안된 지장시왕도에 그려진 태극기 그림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운문 스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명부전에서 지장기도를 하던 중 신비한 기운을 느껴 불화를 올려보았고, 그곳에서 태극기 관모를 쓴 시왕을 확인했다.

태극기는 지옥을 관장하는 10대왕 가운데 제6대왕인 변성대왕 관모에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가로 8.5×세로 3cm)로 그려져 있으며 태극의 지름은 2.2cm이다. 태극의 양은 홍색, 음은 뇌녹색(옅은 녹색)으로 채색됐으며, 양 태극을 백색이 둘러싸고, 위쪽에 건괘와 리괘, 아래쪽에 곤괘와 감괘를 배치했다.

지장시왕도 하단 화기에 따르면 불화는 당시 주지인 기선 스님이 대강백이자 화엄사 주지였던 진응 스님의 증명을 받아 수화승 만총 스님의 지휘로 1917년 11월 5일에 조성을 시작해 11월 17일 완성돼 대법당에 봉안됐다.

운문 스님은 "진응 스님은 당시 호남지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으로서 만해 스님이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섭외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교통 사정 등으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진응 스님이 직접 증명한 불화에 태극기가 그려졌다는 것은 일제 치하 불교계의 독립 의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왕 중 변성대왕이 주관하는 독사지옥은 살인, 역적, 고문, 도둑질 등을 행한 사람을 벌하는 곳"이라며 "그런 변성대왕의 관모에 태극기를 그려넣은 것은 나라를 팔아넘긴 역적과 나라를 도둑질한 일제에게 그 죄 값을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극기 전문 연구가인 송명호 前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 전문위원은 선원사 지장시왕도 태극기가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봤다. 송 前전문위원은 "불화 중 태극기가 그려진 것은 처음"이라며 " '항일지장시왕도' 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시왕도를 조사한 김창균 조계종 성보위원(前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책임교수)은 태극기의 배치와 모양이 우리나라 최초의 태극기로 알려진 1882년 제작 '이응준 태극기' 와 같은 구조라고 소개했다.

운문 스님은 "이응로 태극기의 모양을 계승하고 있다는 데 선원사 시왕도 태극기는 사료적 가치가 높다"면서 "백초월 스님이 일장기에 그려넣은 태극기가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에 조성됐으니, 선원사 지장시왕도 태극기는 그보다 2년 빠르게 조성됐다. 백초월 스님 태극기의 전신이 선원사 태극기"라고 강조했다.

남원 선원사는 명부전에 봉안된 지장시왕도 태극기를 국가 지정 근대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2024년 남원시와 함께 선원사 괘불(보물)과 지장시왕도 태극기를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송 前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가 대한제국 초기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이번 발견을 계기로 태극기의 정형화 과정을 살필 수 있게 됐다"면서 "아울러 진응 스님과 만해 스님, 주지 기산 스님 등의 독립운동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연구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2월 22일 부처님 정각지인 부다가야 마하보디 대탑에서 세계 평화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회주 자승 스님이 봉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

정각성지 울린 서원…"한국불교 변화를"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2월 22일 부다가야서 세계평화기원법회

자승 스님 "포교만이 살 길" 강조
관광지 된 韓 · 印 성지 안타까움
"민중에게 찾아가는 불교로 변화"
발원문 봉독하며 사부대중 눈물

"한국불교의 부족한 부분을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순례공덕이 있다면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룬 자리에서 순례단이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 저절로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순례단 회주 자승 스님도, 순례단 개개인도, 멀리 한국에서 응원 온 불자들도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원을 세웠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은 2월 22일 부다가야 마하보디대탑 앞에서 개최한 세계평화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순례단은 불제자의 각오를 담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날 법회는 개회 후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회주 자승 스님의 봉행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인사말, 〈화엄경〉 '세간정안품' 의 성도찬탄, 참선과 108배, 사부대중의 발원문, 사홍서원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법회에 앞서 순례단은 삭발과 목욕재개로 몸과 마음을 정돈했다. 무명초를 제한 스님들의 모습에서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이런 순례단에 회주 자승 스님의 봉행사는 가행정진을 위한 장군죽비와 같이 내려졌다. 자승 스님의 발언은 당초 준비된 봉행사와 다른 스님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기에 청중들은 스님의 말에 바짝 귀를 기울였다.

"우리가 안일하고 방일할 때 한국불교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늘 포교만이 한국불교의 살 길이며, 포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이 걷고 있는 마음 속의 느낌이 진실하고 간절하면, 한국불교 중흥은 이루어 질 것이고, 하나의 관광유적지로만 보고 그런 느낌으로 간다면 한국불교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이어 자승 스님은 수많은 꽃과 공양물로 장엄돼 있는 보드가야 마하보디사원의 모습을 역으로 '참담한 현실' 이라고 표현했다. 스님의 말 속에는 한국과 인도의 마을과 마을을 다니며 느꼈던 민중 속의 불심과 달리 관광지화 되고 있는 성지를 지켜본 수행자로서의 마음이 드러났다. 신행의 터전이 아닌 문화재로서의 가치로 명맥을 유지할 것이라는 한국불교 미래 위기의식도 그 말에 섞여 있었다.

스님은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발심하기를 기원한다"고 대중을 당부하며 말을 끝맺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이런 마음을 이어 받아 순례단의 행보는 구도행임을 강조하며 전법포교에 더욱더 힘쓸 것임을 대중 앞에서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자승 스님의 마음을 이어받았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 나라이기에 마음의 고향으로 여겨왔지만 막상 낯선 환경인 이곳에서 순례단은 온갖 난관을 넘어 원력으로 부처님 성도지까지 이르렀다. 이는 전대미문의 구도행"이라며 순례단을 먼저 치하했다.

이어 스님은 "산천이 푸르고 우뚝 선 대탑의 기운처럼 더 높은 깨달음의 길을 널리 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직접 걸으셨던 흙길을 따라 43일간 도보 순례를 진행하는 상월결사 인도 성지순례단의 공덕"이라고 말했다.

순례단을 비롯한 법회 참석 대중은 감동 속에서 진오 스님의 대표 발원문 낭독으로 함께 발원했다. 진오 스님이 작성한 보드가야 발원문은 처절한 참회와 함께 숭고한 결사 정신의 각오를 담은 것이었다. 이 발원문은 13일간 순례단이 걸으며 만난 인도 주민들과 부처님이 걸은 길을 따르는 감회, 불교 중흥에 대한 서원을 담았다.

'초발심자경문' 이 떠오르는 발원문 속에서 순례단은 순례에 임하는 초심을 되찾았다. 특히 "저희가 걸어온 길에서 만난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축복이며, 은혜로운 법문이었습니다"는 외침에서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발원문을 낭독하는 진오 스님 등 많은 대중이 눌러왔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다.

순례단은 "순례 공덕이 있다면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발원한다"고 마음을 모으며 이날 법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기획실장 성화 스님, 호법부장 현민 스님, 중앙종회 사무총장 우봉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무관, 진각, 우석, 도심, 대진, 연규, 현법, 선조, 혜공, 정현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IBC 사무총장 담마께야 스님, 분황사 주지 붓다팔라 스님,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화엄사 · 조계사 · 화계사 · 수국사 · 선본사 등에서 500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마음을 모았다.

인도 부다가야=노덕현 기자 〈관련특집 4 · 5면〉

대한불교 조계종 직영

아미타 불교요양병원 개원

삼천사 회주 성운스님의 큰 원력이 깃든 '안성 파라밀 요양병원'을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종단이 직영하는 요양병원인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제37대 총무원장 스님의 핵심 종책 가운데 하나인 승려 요양병원 운영을 첫 번째로 실현시켰으며, 앞으로도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종단 스님들이 노후에도 승가의 위의를 지키면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아미타 불교요양병원 (의료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
주소|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녹배길 139 (장능리)
전화| 031) 677-2613, 02) 2011-1982
후원(의료법인 계좌) : 국민은행 601501-01-45632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울릉도 금강원 성역화 3년 내 완성”

진각종 2월 20일 신년기자간담회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진각종 종조 회당대종사(손규상: 1902~1963) 탄생지인 울릉도에 제 3차 성역화 조성사업인 금강원 성역화 불사를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완성하겠다. 핵심 사업으로는 △회당기념관 △회당생가 복원 △명상수련원 조성 등으로 울릉도 사동 일원 1만3600여 평(45,237㎡)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2월 20일 오후 4시 서울 월곡동 진각문화전승원 4층 회의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으로 “울릉도 금강원 성지 조성사업인 회당명상체험관 건립과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각종은 지난 1월 통리원장 직속 기구인 ‘성지조성위원회(위원장 경일 정사)’와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사업회(사업회장 도진 통리원장)를 발족하며 3월부터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금강원 성지 조성사업은 1993년 회당대종사 열반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이미 1·2차 성역화 불사를 마친 상태이다. 이에 현 금강원에는 진각성존 회당대종사의 위덕을 기리기 위해 종조전 및 종조비와 탑이 건립돼 있다. 또한 올해부터 3년 간 추진하는 제 3차 성역화 불사는 올해 추진 1단계로 금강원 일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설물 설계·토목 및 도로공사 등을 진행한다. 2단계로 추진되는 내년에는 전통한옥 구조의 회당기념관을 신축해 의례와 수행공간을 마련하고, 수행과 힐링 체험이 가능한 ‘명상수련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추진 3단계인 2025년에는 울릉도 전통 너와집 구조로 ‘회당대종사 생가’를 복원하고, 방문객 편의를 돕기 위한 시설인 ‘다도원’ 및 식물치료 등 생태체험 공간인 울릉도 자생식물원 등의 조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회당기념관·생가복원·명상수련원
2025년까지 3차 성역화 사업 완료

회당대종사 열반60주년 기념사업
‘참회’ ‘화합’ ‘혁신’ 등 주제로 결정
기념 사업회 발족, 3월 중순 추진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이와 관련해 도진 정사는 “지금까지 종단·국비·도비·군비 등을 합해 총 70억 원의 사업비 예산을 확보했고, 현재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사업부지는 종단소유 45,237㎡(13,684평)으로 개별공시가는 약 63.5억원이며, 축구장 면적의 약 6.5배가 되는 크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진 정사는 “이 불사가 완공되면 종단의 대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매년 개최되는 회당문화제와 연계해 울릉도의 랜드마크로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일자리 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불교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대 기조인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 사업은 ‘다시 종조정신’으로 돌아가 종단의 활력과 교화 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제는 종단의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능동적 대응을 통한 교화 및 포교의 혁신적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참회’ ‘화합’ ‘혁신’ 등을 잡았다. 도진 정사는 “이중 특히 참회는 종조님의 창종정신이 깃든 사상이며, 혁신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불교운동을 펼친 종조님의 개혁 정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진각종은 1월초 도진 정사를 회장으로 하는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사업회’를 발족했으며, 3월 중순 이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진각의범과 진각교전 재편집 △실행론 증보판 준비 △회당 교성곡 공연(11월 예정) △종단 홍보 동영상 및 책자 제작 △전통 장엄등 도록 발간 △밀교신문 창간 50주년 기념행사(4월중) △신교도 신행체험담 발표회 △진각문학회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호〉 발간 △추모공원묘지 조성 등 16개 신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또한 지방교구는 서울 교구를 포함해 8개 각 교구별로 △혜정종사님 화엄경 교리법회 △4성지 순례(4월~10월) △교구별 파크골프대회 △원로스승, 원로 신교도 회고 법회 및 신행체험담 발표회 △초전법륜지 포항 이송정 문두루법 시연법회 등 총 58개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도진 정사는 “회당대종사의 창종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성공적인 기념사업을 통해 진각 100년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제64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회향식

조계종 교육원, 2월 18일 직지사 만덕전서

조계종 예비 승려인 행자들이 출가수행자로 거듭나기 위한 사미·사미니 수계교육이 원만회향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직무대행 지우)은 2월 18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 만덕전에서 ‘제64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2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 간 진행된 이번 수계교육에는 남행자 28명, 여행자 12명 등 총 40명의 행자들이 입교했고, 중도 퇴방자 1명을 제외한 총 39명이 수계교육을 거쳐 5급 승가고시에 전원 합격,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직무대행 지우 스님은 회향사를 통해 “출가자의 삶은 지혜와 자비행이라는 양 수레바퀴를 굴리는 삶”임을 분명히 하며 “조견오온(照見五蘊)의 지혜를 갖추고 모든 존재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수행과 전법의 열정을 꺾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자생활과 수계교육의 정진의 시간이 이제 막 지나고 본격적인 문사수(聞思修)와 보살행(菩薩行)의 길이 시작됐다”면서 “스스로 선택한 불교와 종단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수행자의 위의를 늘 살피며 인천의 사표로서 최선의 삶을 지향해달라”고 당부했다.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은 치사에서 “여러분이 수지하신 부처님의 계율이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튼튼한 갑옷이 될 것”이라며 “이제 여러분도 저와 같이 머리를 깎고 가사를 수하고,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승가의 일원이다. 불법의 바다에서 새롭게 태어나 열반의 세계로 함께 가는 좋은 도반”이라고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향식에서는 수계교육 기간 중 성실하고 여법하게 교육에 임해 다른 행자들의 모범이 된 모범행자 표창에 도연 사미와 법기 사미니, 5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 표창에 경오 사미와 지오 사미니를 시상했다.

신성민 기자

“대행 선사 가르침, 꿈나무들 밑거름 되길”

한마음선원, 2월 19일 제18회 대행장학회 장학금 전달

교육대생 등 38명에 지급
담당 스님 추천받아 선정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2월 19일 제18회 대행장학회 장학금 및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대행장학회는 대행 선사가 남긴 ‘이 세상에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라’는 유지에 따라 운영되는 장학회다. 한마음선원 본원과 지원에 소속된 신도로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대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담당 스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며, 경인교육대학교 재학생 중 불심이 돈독한 우수 학생에게도 수여된다.

이날 장학금은 대행장학생 12명, 한마음장학생 18명, 경인교육대생 8명 등 총 38명의 학생에게 전달됐다.



전달식에서 장학회 측은 장학생들에게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큰 스님의 뜻을 담은 마음의 선물이자 양식”이라면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검증된 우수한 학생인 만큼 자긍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큰 스님과 여러 후원자들의 뜻을 마음 깊이 받아 지녀 학문뿐 아니라 정신세계에도 우수한 참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후원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학회 측은 “여러 후원자들이 보내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더 많은 꿈나무들에게 밑거름이 되도록 따뜻한 관심과 후원 바란다”고 부탁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세상 변화시킬 미래 인재로 성장하길”

동국대,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초 대면 입학식
2월 21일 장충체육관서 개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초로 전면 대면 입학식이 동국대에서 열렸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2월 2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23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초로 전면 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입학식에는 2023학년도 신입생 3137명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을 비롯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교수 및 직원, 학부모 등이 함께 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입생이 된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꿈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계획을 실천해야 한다”며 “신의와 의리를 통해서 서로 배려하는 동국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입생 선서 중인 2023학년도 동국대학교 신입생들

이어 3월부터 새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새 시대의 핵심가치는 소통과 융합, 개방과 협력이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이제 플랫폼 대학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서울의 중심에서 117년의 유구한 역사를 쌓아 올리며 역사의 수많은 주역들을 배출한 동국대학교에서 각자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고 꿈을 펼치길 기대한다”며 “혼란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번 새로운 행사로 이목을 끌었던 동국대는 이날 입학식에서 ‘유퀴즈 온 더 동국’ 축하공연을 이어갔다. 얼마 전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했던 정각원장 진명 스님이 동국대의 건학이념인 불교 정신에 대해 알기 쉬운 설명과 퀴즈로 신입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입학식 사회를 맡은 이정민 KBS 아나운서(광고홍보 99)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동국대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환영한다.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며 동기들 또 선후배들과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고 후배들을 위한 진심어린 조언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동국대는 입학식 후 각 단과대별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수강신청 방법부터 학사제도, 장학, 국제교류 등 다양한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신성민 기자

검은토끼의 해 계묘년(윤년) 익산삼사순례 - 미륵사지·심곡사·숭림사

삼사순례는 부처님과의 인연을 두텁게하는 기도이자 수행입니다.

2023 익산 방문의 해

익산시가 불자님들의 삼사순례를 앞두고 초청장을 드립니다. 익산시는 고도 백제의 왕도로서 불교관련 유적과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세계유산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익산은 선인들의 신앙과 예술의 향기를 접할 수 있고, 힐링과 기도를 만날 수 있고, 둘러보면서 행복과 환희를 품을 수 있는 불자들의 순례지입니다. 2023년은 때마침 익산방문의 해입니다. 이에 불자님들의 삼사순례와 방생 행사를 반겨 맞이하고자 합니다. 미리 방문을 알려주시면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등 편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안 내 처 |
익산시청 문화관광산업과
1577-0072
익산시청 홈페이지
www.iksan.go.kr

백제역사유적 탐방 미륵사지
동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절터에 지금은 동탑과 서탑도 복원돼 관광객들과 불자들을 맞이합니다. 백제 무왕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국립익산박물관에서는 국보로 지정된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를 볼 수 있습니다.



백제역사유적 탐방 심곡사
깊은 골짜기라는 이름의 천년고찰, 7층석탑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떡목을 지닌 정정렬 명창의 득음을 기념하기 위한 떡목공연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백제역사유적 탐방 왕궁리유적
아름다운 오층석탑과 왕궁터가 남아서 백제부활을 꿈꾸던 무왕의 웅지를 보여줍니다. 백제왕궁박물관은 당시의 시대상을 알려줍니다.



힐링생태여행 숭림사
보물로 지정돼 있는 보광전과 그안에 모셔진 목조석가여래좌상 그리고 보광전에 진채로 그려진 아름다운 벽화, 딱 인생샷 배경으로 그만입니다.



데크, 연꽃, 하늘, 구름 용안생태습지공원
금강 상류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용안생태습지공원이 있습니다. 이곳도 역시 휴식과 방생의 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 조명 학술대회 열린다

대행선연구원 6월 17일 제7회 학술대회

대행·인홍·봉려관 스님 등 조명
근현대 비구니 사상, 활동 살펴
묘공학술상 등 진흥사업도 추진
3월 18일 올해 첫 계절발표회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근현대 불교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비구니 선지식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재)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대행선 사상 연구와 불교학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와 학술상, 장학금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올해 사업계획 전반을 밝혔다.

대행선연구원이 밝힌 사업계획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6월 17일 동국대(예정)에서 열리는 제7회 학술대회다. '근현대 비구니의 삶과 사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들의 사상과 활동 전반을 조명한다.

윤종갑 동아대 교수가 묘공당 대행 선사에 대해 살피며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은 제주불교 재건의 주역 봉려관 스님을 조명한다. 경완 스님(동국대)은 일엽 스님의 선사상과 문화활동을, 여현 스님(동국대)은 유활문도회의 수장으로 수행에 매진한 담연당 선경 스님의 선사상을 살필 예정이다.

또한 일중 스님(동국대)은 가지산 인홍 스님의 삶과 선사상을 살피며, 전영숙 한국비구니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세계 유일 비구니 종단 보문종을 창종한 은영 스님의 생애를 조명한다.

이와 함께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의 선사상과 한국불교학 진흥을 위한 대행선연구원의 학술공모사업도 추진된다.

대행 선사의 법호인 '묘공'을 인용해 제정된 '묘공학술상' 공모는 올해에도 이어진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묘공학술상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분야는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와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다. 응모는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여야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10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7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불교학 연구자를 위한 '묘공학술장학생' 공모도 이뤄진다. 응모자격은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학위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 중인 대학원 재학(수료)자이다. 공모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또한 대행선연구원은 자체 학술지인 〈한마음연구〉를 연2회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한마음연구〉는 연중 논문을 접수받고 있으며, 투고분야는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다. 이와함께 대행선연구원은 오는 3월 18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올해 첫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는 대면과 유튜브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논〉(論軌, Vādavidhi)은 외도의 궤변인가? -디그나가의 바수반두의 저작 불인정을 중심으로(동광 스님, 동국대)'와 '바다를 메우는 한 방울의 눈물- 대행 선사 게송, 선시의 문학적 탐색(김종진, 동국대)'이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권서용(부산대), 강형철(동국대 WISE캠퍼스), 백원기(동방문화대학원대학), 하정수(동국대)가 참여한다.

또한,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도 이뤄진다. 이날에는 진주지원장 혜근 스님이 '혜근이 받든 대행 선사의 가르침'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전문연구자들을 초청해 연구발표를 듣는 계절발표회는 3·6·9·12월에 개최되며, 대행선과 불교학 관련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印초기불교미술' 면면 살필 전시회 열린다

국립중앙博, 올 주요사업 발표
12월 美메트로폴리탄박물관과
'인도 초기불교미술'展 예정돼

올 하반기 인도 초기불교미술 면면을 살필 대형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2월 22일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12월 22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과 공동으로 대형 기획전시인 '나무와 뱀, 인도 초기불교미술(가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인도 뉴델리국립박물관, 아마라바티 고고학박물관 등 4개국 20개 기관이 112점의 초기불교미술 문화재를 출품한다. 특히 '인도 초기불교미술'을 주제로 국내에서 전시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은 "불상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과 최초의 불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전시"라며 "인도 초기의 자연신 신앙, 사리 숭배와 석가모니의 삶에 대한 관심, 불교 교단의 후원자 등 초기 불교미술의 형성 과정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6월 한·영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 영국 내셔널갤러리 명화' 전을 개최한다. 영국 내셔널갤러리 소장품을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전시로, 보티첼리·라파엘·카라바조·렘브란트·마네·모네·반 고흐의 작품 등 르네상스부터 인상주의까지의 명화 52점이 출품된다.

이와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취약계층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국립박물관 새로운 연구과제 선정, 본격 연구 추진 △고구려 역사·문화 콘텐츠 강화 △ICT와 문화유산 융합 지능형 서비스 기술 개발 및 활용 △국립박물관 전시용어 개선사업 성과 활용 확대 등을 올해 주요 과제로 삼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주요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들 모두가 다양한 문화와 예술 체험을 통해 삶이 여유로울 수 있도록 '쉼 이 있는 박물관', 누구나 '차별 없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두의 박물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천태종, 튀르키예 위해 1억 원 전달

2월 21일, 주한 대사관에
7000만 원상당 구호품도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천태종(총무원장 무원)이 참사로 아픔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을 돕기 위해 긴급구호금과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천태종은 2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해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구호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천태종을 대표해 사회부장 개문 스님, 사회국장 자운 스님, 사회과장 문법 스님, 나누며하나되기 진창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특히 이번 구호금은 천태종도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십시일반 모연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전달식에서 사회부장 개문 스님은 "갑작스러운 지진 피해로 꽃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하루아침에 잃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을 위해 기도드린다"면서 "종단 차원에서 튀르키예 국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테니 용기를 잃지 말고 난국을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에 주한 튀르키예 무랏 타메르(Murat Tamer) 대사는 "튀르키예는 6.25 한국전쟁 당시 많은 병력이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현재 대한민국도 실리를 계산하지 않고 형제국가로서 돕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시민 한 명 한명이 한 마음으로 튀르키예의 아픔을 함께 나눠주고 있다. 특히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강하게 일어선 것처럼 튀르키예도 보내주신 응원과 도움으로 아픔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천태종은 같은 날 오후 1시 서울 관문사에서 긴급 구호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천태종 산하 나누며하나되기와 신도들이 마련한 구호물품은 마스크 20만장·손 소독제 5000개·의류 1500점·수건 900점 등으로 금액으로는 약 7000만 원에 상당이다. 2.5톤 트럭 2대에 실린 구호물품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지정한 인천의 물류창고로 전달돼 터키항공을 통해 현지로 운송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영양 가득 점심으로 건강한 새봄 맞길"

보인 스님, 종교복지협회장 취임
탑골공원서 무료 점심배식 봉사

"영양 가득 점심드시고 건강한 새봄 맞이하세요."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회장 보인)은 2월 22일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배식봉사를 하며 어르신들과 정을 나눴다.

이날 배식봉사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의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제26대 신임회장 취임을 기념하며 진행됐다.

보인 스님은 3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음식을 담아 전하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라"며 일일이 인사를 건넸다. 이날 점심공양 메뉴는 불고기 정식. 김치에 시금치 무침까지 함께 담아 한 끼 식사로 든든할 뿐 아니라 영양소까지 골고루 갖췄다. 보인 스님은 "어르신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면서 "오늘 준비한 불고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새봄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세종전통문화체험관 산림경영인협 MOU

2월 21일, 협력 및 교류강화 약속

세종 전통문화체험관(관장 동환)이 2월 21일에 관내 문화체험실에서 한국산림경영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전·세종·충남지회와 사업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기관 간 상호 협력 및 교류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위한 활동 △산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산림교육전문가 교육을 위한 교육장 △실습장 등 사용시설지원 △전문성 갖춘 산림교육전문가 활용 및 교류 △직원 연수 지원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은 프로그램 운영 장소를 제공하고 한국산림경영인협회에서는 '유아숲지도사 과정'을 진행한다.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관장 동환 스님은 "산림 산업은 한국 전통불교문화와 예로부터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협약을 시작으로 상호간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아숲지도자 과정 운영으로 세종시의 어린이들이 전월산의 자연을 만끽하고 전통문화체험관이 어른이 되어서도 찾아오는 추억이 담긴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는 돈이 되는 산림, 일자리가 있는 산림, 경제를 살리는 산림을 미션으로 임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다.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서 시민의 문화여가 생활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2년 8월 세종시 세종동에 문을 연 문화체험관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세종전통문화체험관과 한국산림경영인협회는 MOU를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法寶宗刹 海印寺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계종 인재 산실의 명문**

불기2567(2023)년도 **해인사승가대학** 입학 모집 안내

해인사승가대학







모집대상
편입생·재입학생 : 3명 신입생 : 10명

전형방법
●신입생 입방대기 시작일 : 불기2567(2023)년 3월 10일(금)
●서 류 접 수 : 불기2567(2023)년 3월 17일(금) 오후 2시
●입방갈마 일시 : 불기2567(2023)년 3월 18일(토) 오전 8시
●합 격 자 발 표 : 불기2567(2023)년 3월 18일(토) 오후 4시
●입 학 식 : 불기2567(2023)년 3월 19일(일)

특전
1. 신입생 전원에게 노트북 지급
2. 전 학년 해외성지순례 (인도, 바티칸, 태국, 일본)를 통하여 신심과 원력을 고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탁실라프로젝트]를 통해 학인 개인이 추구하는 교육, 언어, 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
4. [펀잡아츠(문화예술활동)]을 통해 1년에 4차례 문화예술 체험 및 활동을 전액 지원
5. [AI부디즘 프로제트]를 통해 디지털 및 메타교육의 전액 지원 및 해외 유학을 지원
6.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선택과 필수로 나누어 매주 2회 시행
7. 하나조노대학(일본), 법고산대학(대만), 칭화대학(중국)은 학술 교류 협정을 통해 졸업자 (고졸 동등 학력자 포함)에게 대학원 진학의 기회 우선 제공

해인사승가대학 프로그램
1. 해인사승가대학 토론대회 개최
2. 탁실라 프로젝트(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후원)
3. 각 학년 성지순례(바티칸, 인도, 대만, 일본 등)
4. 펀잡아츠(1년 4차례 문화예술활동)
5. AI부디즘 프로젝트(디지털, 메타교육 및 해외유학 지원)
6. 호스피스 자원봉사활동 지원

구비서류 (해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 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1부
2. 자기소개서(자필-6하원칙) 1부
3.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명서(총무원 발급)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본적 확인용) 각 1부
5. 건강진단서(행자교육원 당해연도 수료자 제외) 1부
6. 은사스님 추천서 1부
7. 은사스님 인적사항 1부
법명, 본명(한글·한자), 당호, 주민등록번호, 승적번호
8. 승가대학 학력 이수증명서(전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준비물
1. 사진(3×4, 만의가사 복장) 3매, 여권사진 2매(여권발급용)
2. 대가사(사미는 만의가사), 장삼, 발우, 도장(법명)
3. 입방 후 주민등록 주소 이전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승가대학(필수사항)

문의 50200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승가대학 승가대학 관음전 T (055)934-3081, 3100



인도인들이 식용기름 재료로 사용하는 유채꽃밭 위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행선을 하고 있다. 인도의 드넓은 자연풍경은 순례 중 피로를 가시게 했다.

부처님 걸었던 길, 아파도 힘들어도 함께 나아간다



노덕현 기자의

'상월결사, 붓다의 길을 걷다'

② 인도 체나리서 부다가야까지(순례 2주차)

인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루나여, 그들이 너를 죽이면 어찌하겠느냐."

"저는 그들을 어질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수행자는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는데, 저들이 그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수난파란타국으로 전법을 떠나는 설법제일 부루나 존자와 부처님의 대화다. 부루나 존자는 부처님의 격려를 받고 수난파란타국으로 건너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전법에 매진했다. 전법포교에 있어 크고 작은 난관, 특히 어떤 경우는 목숨까지도 걸어야 함을 보여주는 일화다.

순례 2주차를 맞은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험난했다. 새벽 움푹움푹 파인 인도의 제방을 걷고, 수많은 트럭들이 달리는 고속도로 위를 지나기도 했다.

순례단이 2주차 동안 행선한 거리는 297km로 전체 1167km의 1/4 지점에 불과하지만 일정 중 가장 어려운 구간에 속한다. 그만큼 순례단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순례단은 원력과 신심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었다.

비포장 · 고속도로 아슬아슬 순례길

2월 16일 행선은 체나리에서부터 벨키, 로흐따스를 지나 아침공양 후 단부르와를 거쳐 사사람에 도착하는 30km 구간에서 펼쳐졌다. 특히 이날 행선길은 갠지스강 남쪽강인 손강의 지류를 따라 만들어진 제방길 위에서 진행됐다.

인도의 제방길은 우리의 제방길과는 상황이 달랐다. 마치 비포장도로처럼 1m 간격으로 움푹움푹 파인 곳들이 존재했다. 흔히 있는 한국의 가로등 불빛이나 시골마을이어도 있는 등조차 없는 칠흑같은 어둠이 펼쳐졌다. 이른 새벽부터 행선에 나선 순례단이 서로의 랜턴 불빛에 의지해 행선을 이어갔지만 위태로운 순간이 펼쳐졌다.

아침공양 전 마지막 휴게장소인 필키 마을에서는 순례단이 행선하고 있던 제방길 쪽으로 무전이 급히 호출됐다. 한 스님이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딘 것이다. 다행이 이마가 조금 다친 정도에서 끝이 났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아침공양 장소까지는 14km. 중간 중간 휴식을 취하며 약 4시간을 이렇게 걸어 아침공양 장소인 한 경찰서에 도착하자, 여명이 움트고 있었다.

해가 뜨자 순례단을 반긴 것은 인도사람들의 식용기름 재료로 키워지는 유채꽃과 넓게 펼쳐진 밀밭이었다. 새벽의 어려움을 뒤로 인도의 드넓은 자연풍경은 순례 중의 피로를 가시게 했다.

이어 손강 지류를 따라 25km 행선한 순례단은 '그랜드 트렁크 로드'로 불리는 인도 북동부 간선도로에 올랐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등으로 이어지는 이 간선도로에는 수많은 트럭들이 지나갔다. 그동안 순례단을 엄호하고, 교통 정리를 했던 인도경찰들이 다시 나섰다. 경찰들의 개입으로 이 간선도로는 순례단이 건너는 동안 잠시 흐름이 멈췄다.

이후 동쪽으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순례단은 5km 가량 행선을 이어갔다. 인도경찰들이 통제했지만 십수톤은 되어 보이는 트럭들이 씽씽 옆으로 달리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위험해 보였다. 하지만 순례단은 부루나 존자와 같이 초연했다.

봉암사 수좌 스님으로 이번 순례에 동참한 5조 시관 스님은 "조건이 좋으면 더 좋을수록 불평불만이 쌓이는게 사람의 마음"이라며 "한국의 선방에서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다. 수행하는 많은 스님들이 이 곳에서 하루만이라도 같이 행선한다면 수행 중에 나오는 불만 같은 마음티끌이 싹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웃었다.

2월 17일에도 순례단은 여전히 그랜드 트렁크 로드에 있었다. 순례단이 이날 걸은 거리는 24km에 불과했지만 행선 전체 구간이 고속도로로 이뤄져 있어 위험천만했다. 순례단이 고속도로를 걸은 이유는 이 도로가 예전 부처님이 걸은 길 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랜드 트렁크 로드에 포함된 인도 국도는 N1번, N4번, N405번, N507번, N6번, NH12번 NH19번, NH44번 등으로 이날 순례단이 걸은 구간은 그랜드 트렁크 로드에 포함된 NH19번 도로였다. 이 도로는 수차례 개보수를 하였지만 오래된 만큼 굴곡이 크고, 중간 중간 공사구간이 많았다.

하지만 순례단은 차분히 인도경찰 통제의 도움 하에 행선을 이어갔다. 새벽길을 재촉한 순례단은 손강을 넘어 북인도 철도와 수운교통의 교차로인 손나가르에 도착했다. 부처님께서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로만 다니지 않으셨을 것이다. 순례단은 오늘도 부처님이 걸은 길을 따라 한걸음 한걸음씩 정진했다.

佛緣 씨앗 뿌려…현지 불자들 감동

순례단 발길은 단순한 걷기에 그치지 않았다. 순례단의 발길이 닿는 곳곳에 불연(佛緣)의 씨앗이 뿌려졌고, 현지 불자들의 신심은 더욱 공고해졌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은 2월 18일 수운교통 중심지인 손나가르부터 파르사까지 26km 거리를 행선했다. 인도불자들이 마중 나온 새드푸르 마을과 석가족들이 방문했던 바부아 외에는 인도불자들과의 접점이 없던 순례 일정에서 다시금 새로운 인연이 싹텄다.

순례단은 손나가르를 출발해 라뜨노르, 코라이푸르, 카심박하를 거쳐 파르사 마을 어귀에 당도했다. 부처님을 모신 법당에는 마을 주민들이 가득 나와 있었고, 불사 중인 2층마다는 불교기가 꽂혀 장엄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영어가 가능했던 산푸르살라 씨는 "여기 파르사 마을 인구 1000명 중 500명이 불교도다. 달리트(불가촉천민)이었던 우리들에게 암베르카르 박사는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다.

인도 헌법을 제정한 암베르카르 박사를 따라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는 산푸르살라 씨는 순례단의 방문이 달리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산푸르살라 씨는 "순례단에서 스님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하는 것을 보며 많은 이들이 희망을 느낀다"며 "불교가 인도에서 나와 한국과 중국, 일본, 스리랑카, 미얀마 등 많은 국가로 전파됐는데 인도서는 매우 적다. 순례단 방문을 계기로 인도에서도 불교가 다시 퍼지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순례단의 방문에 파르사 불자주민들은 "우리는 힘을 모아, 2층 법당도 지을 예정"이라며 환희심을 감추지 못했다. 불자인 파르사 마을주민들은 숙영지 옆 학교 건물을 청소하고 비워 순례단에게 내줬다. 이들에 따르면 순례단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길을 비롯해 학교 화장실 청소도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2조에서 행선하고 있는 진오 스님은 "많지는 않지만 작은 꽃 두송이는 난다의 빈자일등이 생각이 나 그동안 받은 어떠한 꽃보다 감동을 주었다"며 "없는 형편에서도 청소도 깨끗이 하고 풍선도 불어 부처님을 장엄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순례단의 저녁예불에는 옆마을까지 많은 현지 불자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법회 후 회주 자승 스님에게 부처님과 암베르카르 박사가 함께 그려진 액자를 전달했다.

이런 현지 주민들의 모습에 2월 19일 엄어와 마을과 2월 20일 카파시아 마을에서 순례단 회주 자승 스님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대기설법을 내리기도 했다. "이 인연이 훗날 진리의 불꽃을 피워 올릴 것"이라는 축원도 이어졌다.

순례단이 인도 입국부터 가장 놀란 부분은 바로 인도 내의 불심이다. 인도에서 소수로만 남아 있다고 생각한 통념이 직접 마을 마을을 다니며 만난 인도 불자들로 인해 깨지고 있다.

힌두교로 흡수된 줄 알았던 인도불교는 엄연히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적극적인 신행활동으로 표출되는 부분은 적었지만, '평등과 차별 금지' '평화' '생명 존중' 등 부처님이 전한 큰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한 이들이 많았음이 느껴졌다. 순례 곳곳에서 '나무 붓다' 라고 하며 합장하는 이들을 흔히 발견 할 수 있었다.

인도에서 불교도들의 낮은 사회적 위치로 힌두교도들이 불교성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버스로 다니는 성지 중심 순례에 비해 직접 걸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직 서려있는 마을과 마을을 찾아다니는 순례단의 행보는 기존의 시각과 다른, 피부로 와닿는 불교 중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순례단 대변인 종호 스님은 "순례 초반이지만 불교중흥의 기치를 한국을 넘어 그 원류인 인도에까지 드높인 것이 큰 성과"라며 "한국에서도 부처님이 걸은 길을 따르며, 이곳 주민들에게 불연을 맺고 있는 순례단의 행보를 보며, 불교중흥의 원력을 새롭게 하는데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붓다로드, 우린 그 길을 간다

순례 2주차, 순례단의 외형은 인도인들처럼 검게 타고, 바짝 말라갔다. 매일 새벽 2시부터 20여 km를 8시간 이상을 걷고 텐트 하나에 의지해 풍찬노숙하는 상황은 순례단의 육체적인 피로를 높이고 있다. 회주 자승 스님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는가 하면, 총도감 호산 스님도 감기몸살로 매우 안좋은 상황에서 순례를 이어갔다. 허리와 무릎이 안좋은 선지 스님, 관절이 아픈 현조 스님 등이 순례단 후미의 차량을 부분 이용하거나 앰뷸런스에서 처치를 받으며 순례를 이어갔다. 다들 초췌한 모습이지만 그 내면에서는 신심의 불길이 더욱 활활 타올랐다.

3조 조장 법원 스님은 "체력적으로 고갈이 되어 힘들어하는 대중들도 있고, 발의 물집도 걷는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하지만 불퇴전의 신심으로 극복해 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13일차, 순례단은 비로소 부처님 성도지인 부다가야 도착했다. "우리의 걸음은 신행 원력의 희망으로 삼아 가슴에 부처님을 모시겠나이다. 내 안에 항상하시는 부처님, 마음의 자유와 세상의 평화를 증명하시어 매순간 극락을 펼쳐주소서."

약 2주간의 역경을 뒤로 하고 걷는 행선에는 걸음마다 꽃비가 내려 순례단의 행보를 장엄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이날 순례단의 원만회향을 응원하는 100명의 응원단을 구성해 보드가야 입구부터 순례단을 맞이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한국에서도 불교가 살아있음을 함께 느끼고 있다. 아직 많은 여정이 남아 있는 만큼 건강하게 무사히 원만회향하시길 기도 드린다"고 말했다.

2주차 순례의 백미(白眉)는 2월 22일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 마하보디 대탑에서 열린 세계평화기원대법회였다.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순례공덕이 있다면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룬 자리에서 순례단이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 저절로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회주 자승 스님도, 순례단 개개인도, 멀리 한국에서 온 불자들도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원을 세웠다.



2월 22일 세계평화기원법회서 자승 스님은 사부대중이 불교 중흥에 대한 진실되고 간절함이 있다면 꼭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회 발원문 봉독 중 자승 스님이 흘린 한줄기 눈물은 불교중흥의 서원이었다.



순례단이 부다가야 분황사에 모셔진 부처님 앞에서 일일 순례 회향을 고하고 있다.



순례단이 부다가야 입구로 들어서자 한국에서 온 불자들과 인도주민들이 준비한 꽃을 뿌리며 원만회향을 기원하고 있다.

움푹 파인 인도 제방길, 트럭 질주하는 고속도로
부처님 걸었던 '붓다로드'이기에 묵묵히 걸을 뿐
불교 척박하다던 편견 부순 인도 불자 신심 목격
자승스님 "훗날 진리 불꽃 피워 올릴 것" 축원해
마하보디대탑서 세계평화기원법회, 2주차의 '백미'

“훗날 이 인연으로 진리 불꽃 피워오르리”

회주 자승 스님, 인도 주민에게 잇달아 대기설법

발길 닿는 곳마다 佛緣 맺기
“부처님 나라, 佛祖 후손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왔습니다”
韓스님 모습에 인도인 ‘환희심’

인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불교중흥을 위해 강조해 온 ‘불교 인연(佛緣) 맺기’가 부처님 나라 인도에서도 이어졌다. 연일 신기한 눈으로 저녁 예불을 바라보던 인도주민들은 현지통역가의 예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처님께 함께 예를 올렸고, 이를 지켜본 회주 자승 스님은 “이 인연이 훗날 진리의 불꽃을 피워 올릴 것”이라고 축원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은 2월 19일 엄어와 마을에서 저녁예불을 올렸다.

마을 주민들은 순례단이 묵는 숙영지 건물에 부처님 그림을 그리고, 보리수를 장엄했다. 숙영지 진입로에는 정성을 모아 흰천과 푸른천으로 두르고, 텐트가 쳐질 공간에는 카페트를 깔아 흙먼지가 순례단 숙영지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이런 엄어와 마을주민들은 저녁예불에도 대규모로 참석했다. 예불의식이 진행되는 숙영지 바깥에는 마을주민 500여 명이 운집해 장관을 이뤘다. 부다가야 분황사 주지 붓다팔라 스님도 소식을 듣고 예불에 참석했다.

이날 회주 자승 스님은 법회 후에 이례적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대규모로 함께 예불의식에 동참한 인도주민들의 마음에 불연을 남기기 위해서였다.

자승 스님은 “이곳은 부처님 나라, 진리의 땅이며 부처님 후손인 여러분을 만나러 저희들이 여기에 왔다”며 “이곳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의 피가 흐르는 후손들이 훗날 3000년 전 부처님이 계셨던 그 시절로 진리의 불꽃을 피워올릴 날이 꼭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 통역가의 입을 통해 힌두어로 주민들에게 전해졌다. 의식마다 함께 합장하고 동참했던 주민들은 자승 스님의 말에 박수를 쳤다.

스님은 “우리는 부처님의 후손들을 만나기 위해 43일간 계속 걸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와 함께 부처님께 예를 올린 이러한 소중한 인연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꿈이 부처님 가피로 꼭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린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이날 순례 공덕을 인도주민들에게 회향했다.

2월 20일에도 자승 스님은 카파시아 마을 주민들에게 대기설법했다. 스님은 이날 저녁예불 후 어린아이들과 교육받지 못한 이들을 배려해 2월 19일 법문과 달리 보다 쉬운 용어로 설법했다. 그만큼 쉽게 알아들은 인도주민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회주 자승 스님이 2월 20일 설법 이후 인도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쉬운 용어로 축원까지 한 터라 주민들이 스님을 대하는 모습이 한층 친근해 보인다.



2월 19일 저녁예불 후 아쇼카클럽 불자들이 자승 스님에게 부처님상과 아쇼카왕석주기념물을 전달했다.



한국에서 조성해 온 부처님께 인도 현지 불자들이 꽃 공양을 올렸다.

“우리가 합장한 이유는 순례하는 대중들과 여러분이 서로 교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작게는 이 자리에 교감을 갖는 것이지만 크게는 대한민국과 인도가 친구가 되고자 하는 교감을 함께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친구’입니다.”

자승 스님은 이번 순례가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우호의 교감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밝히며 먼저 ‘친구’라고 표현했다. 이어 ‘우리’라는 말을 통해 출재가자가 함께 구성된 순례단이 차별없는 수행결사체임도 밝혔다.

인도인들에게 성스러운 존재인 수행자 스님이 ‘친구’라고 하자 무심코 스님의 말을 듣던 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말만큼 말이 통하지 않는 이에게 쉬우면서도 부처님 가르침에 적합한 말이 있었을까. 이날 순례하는 스님의 발에 입을 맞출 정도로 수행자에게 공경을 표하는 이들에게 이 말은 큰 울림으로 다가왔음이 분명했다. 부다가야 주변 지역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서려 있지만 불연이 닿지 못했던 주민들은 자승 스님의 설명을 듣고, 자연스럽게 합장했다.

자승 스님의 설법은 부처님에 대한 찬탄과 인도주민들과 부처님의 인연, 그리고 그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축원으로 이어졌다.

“부처님은 위대한 성인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조상님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성인 중의 성인, 왕 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부처님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항상 이곳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1000여 명 가까이 모인 주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랬을 것이다. 아주 쉬운 말로,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치를 알린 스님의 설법에 인도 주민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서렸다. 순례단의 방문과 회주 스님의 설법으로 불연을 맺게 된 주민들은 부처님 광명이 내리는 가운데 다시 만날 날을 기원했다.

상월결사 순례 대중 ‘불교중흥’ 원력 한마음

2월 20일 사부대중 기자간담회
印불교 발아, 韓불교 변화 계기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공통된 원력이 확인됐다. 바로 ‘불교중흥’이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은 2월 20일 숙영지인 카파시아 마을 학교에서 순례단 사부대중을 대표한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순례단원으로 전 일정에 참여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비구니 스님조인 6조 조장 묘수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성계순 불자가 사부대중을 대표해 참석했다.

이들은 순례단 대중을 대표해 인도에서 확인한 불교 중흥의 희망이 한국에서도 다시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인도 순례는 ‘환희’의 여정

비구 스님들을 대표해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이번 인도 순례가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환희심으로 임하고 있다”고 순례단의 상황에 대해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2월 20일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을 대표해 이번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여정이 한국과 인도 양국의 불교중흥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했다.

특히 스님은 “순례를 하면서 연도에 인도분들이 한국 스님들이 정진하는 모습에 꽃공양을 올리고 동참하는 것을 보았다. 결사정신이 인도에도 퍼져 불교가 새롭게 꽃피우는 것을 기대한다”고 바람을 털어놨다.

비구니 스님들을 대표해 묘수 스님은 회주 자승 스님과 순례단에 감사를 표했다. 묘수 스님은 “이 여정에 비구니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순례를 하면서 누구나에게나 불성이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특히 바라나시에서 보드가야로 가면서 이 인도 주민들에게도 불심이 있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바새를 대표해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은 “사부대중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잘 이겨내고 있다. 가는 곳곳마다 예상치 못한 환대를 받으며 환희심이 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바이를 대표해 성계순 불자는 “인도순례를 준비하며 정한 목표가 인도에서는 바뀌었다. 작은 아이가 합장을 하는 것을 보며 불심을 느꼈다”며 “인도사람들에게 그동안 눌려있던 불성이 ‘순례’라는 계기로 다시 일어나는 것 같다. 모든 과정이 행복하고 환희심이 난다”고 했다.

“한국불교 변화 계기 되길”

범해 스님은 ‘줄탁동시’처럼 인도의 불교 중흥이 한국의 불교 중흥과 함께 협응할 것이라 기대를 표했다.

스님은 “힌두교가 굳건한 인도에서 마을과 마을을 지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렸다. K문화가 대세인 것처럼, 한국의 불교문화가 인도에 접목되고 활성화되면 상월결사의 불교중흥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한다”며 “순례에 앞서 종정 예하께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말씀하셨다. 불교가 대중 속으로 다가가지 못한 것을 참회하고, 대중 속에서 함께 이루어 갈 때 불교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노덕현 기자

3주차(2.23~3.1) 순례 일정은

영축산 지나 바이샬리로
‘순례’ 주제 국제세미나도

3주차에 접어든 순례단은 영축산을 지나 근본사리탑터가 있는 바이샬리로 나아가게 된다. 3주차에는 연계 행사가 예정돼 있다. 동국대는 2월 24일 인도 날란다대학과 함께 ‘순례’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제학술대회에는 6개국 전문학자들이 참여해 순례 의미 등을 되짚을 예정이며, 대회 이후에는 동국대와 날란다대학의 MOU도 체결된다.

2월 25일 영축산 여래향실에서는 영축산 기도법회 및 참배가 진행되며, 3월 1일에는 바이샬리 근본사리탑터에서 일일회향법회가 열린다.

바이샬리는 최초의 비구니 승가가 탄생한 장소로 부처님의 마지막 안거 장소이기 때문에 불교와 자이나교 모두에게 성지로 인정받는 곳이다.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아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 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ds7788@hanmaum.org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전화** 031)470-3276, 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0-10 대행선연구원

제6회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응모자격**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 **선정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장
- **공모기간** : 2023년 3월 1일(수)~31일(금)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한마음연구』발간

- **발간시기** : 연2회(2월 28일, 8월31일)
- **투고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 **투고시기** : 연중 접수
- **투고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 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 **투고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원고료 : 소정의 금액 (『한마음연구』 게재 완료 시)

제5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 **응모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 (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중인 대학원 재학 (수료)자
- **선발인원** : 0명
- **공모기간** : 2023년 3월 1일(수)~31일(금)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제14회 계절발표회 개최 ◎

- **일시** : 2023. 3. 18.(토) 13:30~18:00
- **장소** :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3층(현장참석 및 유튜브 생중계)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user/HanmaumTemple
- **좌장** : 김용표(동국대 명예교수)
  - □ 제1주제 : 『논궤』(論軌, Vādavidhi)는 외도의 궤변인가? - 디그나가의 바수반두의 저작 불인정을 중심으로 -
    발표 : 동광스님(동국대)
    논평 : 1. 권서용(부산대) 2. 강형철(동국대 wise캠퍼스)
  - □ 제2주제 : 바다를 메우는 한 방울의 눈물 - 대행선사 ‘게송, 선시’의 문학적 탐색 -
    발표 : 김종진(동국대)
    논평 : 1. 백원기(동방문화대학원대학 석좌교수) 2. 하정수(동국대)
  - □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 : 진주지원
    발표 : 혜근스님(진주지원장)
    제목 : 혜근이 받든 대행선사의 가르침

※ 자세한 내용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부산연등축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월 22일 ‘전통등강습회’ 개최
4월 9일 완성품 특별 전시회
4월 28일 부산연등축제 개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연합회는 2월 22일 ‘부산연등축제 전통등강습회’를 개최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보운)가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부산연등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부산불교연합회는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 서구 닥밭골한지체험관에서 ‘부산연등축제 전통등 강습회’를 개최하고 2023년 ‘부산연등축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강습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범수 스님을 비롯해 부총장 동암 스님, 대각 스님, 법안 스님, 영준국원, 여공 스님 등 부산불교연합회 소속 스님들이 참여했으며, 부산지역 사찰 및 단체에서 신청한 강습생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3일 동안 진행된 강습회에서 전통방식으로 한지와 아교풀, 대나무를 이용해 전통등을 제작했다. 참가자들은 먼저 골조를 만들고 배접을 한 이후 종이를 오려 붙여 등을 꾸몄다. 참가자들은 팔모등, 연꽃등, 자유등 3가지 종류로 등을 제작하고, 완성품은 3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미로전시관에서 특별전시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전통등 강습 지도는 박봉덕 닥밭골한지체험관 관장이 담당했다. 박봉덕 관장은 2020년 공예명장으로 선정된 전통한지 닥종이 장인이다. 24년 동안 닥종이 공예 발전과 한지의 우수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10여 년 동안 부산불교연합회가 주관하는 팔관회에서 시민들에게 사찰풍경과 승가의 일상을 담은 닥종이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범어사를 재현한 작품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사무총장 범수 스님은 “부산연등축제는 전통문화계승과 발전을 위한 행사”라며 “부처님의 나투심을 찬탄하는 축제의 대미가 바로 장엄등이며, 등은 빛으로 어두운 거리를 환하게 밝혀 부처님의 지혜를 널리 알리는 상징이 된다. 오늘 강습회는 단순히 전통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전통문화를 보전하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통등강습회는 2567부산연등축제가 시작됐음을 알렸으며,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미로전시관에서 전통등과 불교사진전 지화 작품을 전시하는 특별전이 열리며, 4월 28일에는 송상현광장에서 개막점등식,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부산연등문화제가 열린다. 부산연등문화제는 대형장엄등 전시와 다양한 문화행사로 진행되며, 부산연등회(연등행렬)은 5월 13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리며, 느티떡 나누기, 영산재, 호기놀이, 연등행렬 등 다채로운 행사로 이어질 예정이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이번 해 부산연등축제는 힘겹고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예년과 같은 흥겹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혜원정사, 해수관음보살 점안식 봉행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 증명
높이 9m 경북 영주석으로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가 2월 16일 경내에서 ‘해수관음보살 점안식 및 진신사리 봉안식’을 봉행했다.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 증명으로 점안식이 봉행됐으며 주지 원허 스님과 서보석 혜원정사 신도회장, 주석수 연제구청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진신사리 이운식을 시작으로 점안식, 삼귀의, 보현행원, 내빈헌화, 헌다, 축가, 감사패 전달, 축사, 주지스님 인사말 순으로 이어졌다.

해수관음보살은 높이 9m에 경북 영주석으로 조성됐으며 하단 복장에는 묘허 스님께 전달 받은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됐다.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고산 큰스님은 살아 생전 관음 기도를 많이 하셨다. 고산 스님의 기도원력이 혜원정사 주지 스님과 신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이어지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혜원정사가 부산 도심 포교의 중심처가 되고 기도도량으로 많은 불자들의 쉼터가 될것이라 믿고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 원허 스님은 “신도님들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바라는 일을 성취하고 기쁜 일이 많기를 바란다”며 “은사 스님인 고산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불사를 원만 회향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정인사, 제2기 불교대학 입학식 봉행



창원 정인사(주지 원행)가 2월 21일 경내 교육관 2층에서 ‘제2회 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했다.

입학식에는 정인사 주지 원행 스님,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원여 스님, 원인 스님, 원담 스님, 일진 스님, 일운 스님, 일휴 스님, 일거 스님, 일맥 스님, 노경숙 신도회장, 박영원 금강복지회관 관장, 김미란 입학생 대표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입학식은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입학선서, 환영사, 격려사, 교수진 소개 및 학사일정 안내, 사홍서원, 폐회,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원행 스님은 환영사에서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관점에 따라 모습이 변한다. 즉 삶의 설정을 바르게 설정하였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마음의 표준을 세워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아 마음 법을 배워가는 곳이 불교대학”이라며 “불교대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고 배우는 곳이며 수행실천하는 도량이다. 열심히 배우고 실천해서 행복하고 보현행자의 서원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인사 불교대학 강좌는 불교개설, 신명심, 증도가, 반야사상, 불교입문, 부처님 생애, 숫타니파타, 법구경, 법화경, 금강경 등이며 진휴 스님, 일진 스님, 일운 스님, 일휴 스님, 일규 스님이 강의한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두 시간 동안 진행되며 졸업식은 12월 26일이다. 지난해 1기는 150명이 입학해 101명이 졸업했으며, 2기는 총 95명이 입학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교수불자聯 신임회장에 권성열 교수



“함께 공부하고 정진하며 봉사에 앞장서는 불자 교수들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월 28일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권성열 교수<사진>는 “부산교수불자연합회는 수행 정진과 봉사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권성열 교수는 현재 국립 부경대에서 전기공학을 연구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부경대학교 불교교수회에 가입해 수행을 이어온 불자이며, 경북대학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프랑스 리모주(Limoges)대학교 물리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8년도에는 미국 스포 타임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선정됐으며, 전기·에너지 분야에서는 권위자로 불리고 있다.

권 교수는 “불교교수회에서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불자님들을 만나고 그 인연에게 배운 것들은 보배와도 같다”며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마음공부를 한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 같다. 매일 한편의 법문을 듣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권 교수는 대학생을 위한 포교활동을 이어 갈 것을 밝혔다. 권 교수는 “부산교수불자연합회는 대학생들에게 앞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접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전임 회장인 장상목 교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 불사와 행사들로 성과를 보여주셨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노력을 이어 불국토를 이루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거제불교사암聯, 자비의 쌀 전달

백미 10kg 800포 거제시에



거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선암)가 2월 21일 거제시청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거제불교사연합회는 이날 백미 10kg 800포(2160만 원 상당)를 거제시청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거제불교사암연합회장 선암 스님(계룡사), 대원사 종문 스님, 금강사 성원 스님, 신광사 선안 스님, 일운지역아동센터장 명은 스님, 총명사 호석 스님, 영은사 학산 스님, 해인정사 자원 스님, 박종우 거제시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달한 백미는 거제시 무료급식소 3곳과 지역아동센터 11곳을 비롯해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복지시설(28개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회장 선암 스님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거제불교사암연합회가 발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쌀 나눔을 하게 되었다”며 “거제불교사암연합회는 거제시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찰 86곳이 가입해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천만사, 에티오피아 청년에 감사장

이태원 참사 현장서 구조 활동



울산 천만사(주지 향덕)가 2월 17일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친 에티오피아 청년 왁제라 개메출 구타에게 감사장과 금일봉을 전달했다.

향덕 스님은 “서울 이태원 참사 당시 에티오피아 청년이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친 희생정신이 대단하다”며 “그 용기와 노력에 우리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향덕 스님은 이날 에티오피아 대사관에 의약품(1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공룡 나라 고성으로 오세요
윤달 3사 순례 | 옥천사 · 문수암 · 운흥사

옥천사
- 명부전 유서쓰기(입관체험)
- 법성게 · 보현행원품 사경
- 마음약방 체험
- ‘불효자’ 영화관람
- 마가 스님의 명상 법문
- 점심공양 가능
- 치유의 약수 ‘옥샘’



주소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1로 471-9 문의 055)672-0100 www.okcheonsa.or.kr

문수암

- 바위 속 문수보살 친견
- 탁 트인 한려해상 조망

주소 경남 고성군 상리면 무선2길 808 문의 055) 672-8078

약사전

- 높이13m 약사여래대불

전화 055)673-8205

운흥사

-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주둔지
- 소원등을 밝히고 타종 체험

주소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와룡2길 248-28
문의 055)835-8656 www.unheungsa.net

광주불교계 불기 2567 봉축행사 본격 시동

'2023 빛고을관등회 율동강습회'개최
4월 28일 5.18민주광장 봉축탑 점등
5월 20일 본행사 어울림마당 등 예정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는 2월 18일 광주불교회관에서 '2023 빛고을관등회 율동강습회'를 개최했다.

광주불교계의 불기 2567년 봉축행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지난 2월 18일 광주불교회관 2층 법당에서 '2023 빛고을관등회 율동강습회'를 개최하고, 2023년 봉축행사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교육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강습회는 신희흥(전주교육대 외래교수) 강사의 지도로 광주지역 사찰 연희단과 율동 담당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체율동, 3개 등단 율동강습을 2시간 동안 진행했다.

광주불교연합회 행사 담당자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율동강습회를 진행한다. 각 사찰별로 그동안 움츠렸던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 올해 봉축행사가 다시 신명나는 문화의 큰 잔치가 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라며 "오늘 율동강습회를 진행하고, 각 사찰별로 율동강습회를 진행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고 율동강습회 취지를 말했다.

올해 어울림마당은 △1등단(감로사~불교환경,포교사단)에 '연등회는 밝은 별', △2등단(반야선원~지장암) '함께 가요 부처님 나라', △3등단(천룡사~흥룡사, 정광학원) '연꽃등 밝히는 날', △전체율동 '오늘은 좋은날'로 진행하며, △어린이율동 '꼭두가시등', △청소년율동 '밝히세', △청년율동 '우린 꽃이다'가 참여한다. 해당 곡목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광주지역 봉축행사는 4월 28일 5.18민주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2일 송정역, 5월 4일 광주역, 5월 9일 운천저수지, 5월 11일 광주공원 등에서 봉축탑 점등이 예정되어 있다.

본행사는 5월 20일 오후 5시 5.18민주광장에서 1만여 명의 불자들이 참여해 어울림마당, 관등법회, 연등행진, 대동한마당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외에도 전통등전시회가 5월 11~28일까지 광주천에서 작은음악회와 함께 열린다.

시민들을 위한 불교문화 행사도 눈에 띈다. 제5회 광주불교문화사진전시회, 빛고을관등회 학술세미나, 10개 단체가 참여하는 '제10회 빛고을관등회 불교단체 공모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불교의 다양한 모습을 전한다. 이외에도 봉축행사 참여사찰 홍보영상도 제작된다.

자비명상 혜진 스님, 배식봉사로 취임식

2월 22일, 천안 서부역 급식소서
6대 회장 취임…노숙자에 선물도



수행공동체 자비명상 총동문회 제6대 회장 혜진 스님이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취임식을 대신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자비명상 총동문회(회장 혜진)는 2월 22일 천안 서부역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봉사를 펼치며 부처님의 가르침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되새겼다.

배식봉사는 제6대 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마련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컸다. 이날 신임 회장 혜진 스님을 비롯한 총동문회 회원스님들은 무료 급식소를 찾은 노숙인들에게 전할 따뜻한 도시락 200여 개를 직접 포장했다. 이뿐 아니라 단주와 수건, 요구르트, 과일, 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도 도시락과 함께 전달했다.

'힐링멘토' 마가 스님이 이끌고 있는 사단법인 자비명상은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에서 자비명상 지도자 교육을 받은 출가 수행자들로 구성된 수행공동체다. 중생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깨달음을 이루고자 모였으며 서울 영등포 쪽방촌 봉사와 3년 결사 수행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배식봉사 전 마련된 간소한 취임법회에서 회장 혜진 스님은 "자비명상 제자들은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빛이 돼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이라면서 "자비명상 제6대 집행부는 오직 부처님 법을 따르며 동체대비 마음으로 자비명상의 새 역사를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은 "가사를 벗고 체면과 형식, 권위를 내려놓고, 봉사 조끼를 입 고 남은 삶을 봉사와 나눔으로 회향하는 공동체를 희망한다"면서 "이 순간, 이타행이야말로 최고의 복짓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정법사부설 대자유치원 제96회 졸업식

일제때 민족의식 고취위해 개원
81명 졸업, 총 7317명 배출해



마산 정법사 부설 대자유치원(이사장 광우스님. 원장 박선영)은 2월 18일 정법사 2층 만불전에서 제96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81명의 어린이가 졸업했다.

대자유치원은 일제 강점기인 1927년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개원한 통도사 마산중앙포교당 정법사 부설 유치원이다.

졸업식에는 대자유치원 이사장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 송정 스님, 박선영 유치원장, 정선정 정법사 신도회장, 조경희 정법사 다도고문, 대자유치원어린이 및 가족과 불자 7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우 스님은 축사를 통해 "정법사 111주년을 맞아 96회 대자유치원 졸업식을 하게 됐다. 지난 시간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이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축하하는 날"이라며 "아이들을 보내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감사하며 졸업하는 주인공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박선영 유치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엄마와 헤어지는 것이 힘들어 눈물짓던 대자동이들이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초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어 무척 대견스럽다"며 "문자 위주의 교육, 주입식 교육보다 자연스럽고 생명력 있는 놀이를 통해 학습과 발달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셨던 학부모님들의 교육관을 다시금 상기하며 늘 그래왔듯이 어린이들을 믿고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이날 졸업하는 81명의 어린이들에게 일일이 졸업장을 수여하며 졸업을 축하했다. 유치원에 취원 중인 어린이들은 송사를 합송하며 언제나 친구처럼 놀아주던 언니, 오빠들과의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졸업하는 어린이들도 답사를 통해 정든 유치원과 선생님과 헤어지는 아쉬움이 가득 담긴 답사를 합송했다. 이어진 1인 1상 시상식에서는 졸업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튼튼건강상, 알찬생각상, 친구사랑상, 아름다운 표현상, 알쏭달쏭 탐구상을 수상했다. 또 3명의 자녀가 모두 대자유치원을 졸업하는 3가족에게 특별상으로 지구본이 전달했다.

현재까지 총 7317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대자유치원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민족교육 도량으로서 1927년 4월 마산사립배달 유치원으로 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정읍 보림사, 찾아가는 초하루 법회



급격히 늘어나는 불자들의 노령화와 산중사찰의 법회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스님과 불자들이 나섰다.

정읍 보림사(주지 종진)는 2월 20일 음력 초하루를 맞아 '찾아가는 초하루' 행사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사찰 아랫마을인 보림리 마을회관에서 열렸다. 종교가 다른 어르신들을 배려해 종교적인 행사는 배제했다. 어르신들에게 식사와 간식을 대접하고 내장사 합창단 조정순 불자의 지도로 어르신들과 신도들이 함께 레크레이션을 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또 작은 선물도 전달하며 절에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종진 스님은 "보림사는 깊은 산중에 자리 잡고 있어 연세가 많은 어르신 등 노약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사찰"이라며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다리가 아파 절에 오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는 초하루를 생각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다리가 아파 절에 못 오는 분들을 위해 내가 찾아 가겠다. 종교 행사 같은 건 안 하더라도 어르신들한테 건강하시라고 밥 한 끼 대접하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보림사는 음력 정월과 초파일이 들어있는 4월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초하루마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찾아 '찾아가는 초하루' 행사를 열 예정이다.

기존의 신도들을 위해서는 초하루 법회 대신 매월 첫째 토요일에 신도회 정기법회, 둘째 토요일에는 거사불자회,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재가불자들의 명상수행을 위해 열린선방을 열어 젊고 활기 넘치는 사찰로 변화할 예정이다.

유명숙 보림사 신도회장은 "보림사 길이 험해서 스님께서 대중을 찾아가자고 하셔서 신도회 회원들과 음식준비해서 오게 됐다"며 "마을 어르신들이 맛있게 공양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아 흡족하고, 스님이 좋은 생각을 내신 것 같아 꾸준하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재 보림리 이장은 "스님과 불자들이 직접 마을회관을 찾아주셔 감사하다"며 "마을의 보림사와 마을이 함께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산자비선원 법상 스님, 100인 대상 수상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100인 대상서



창원 수산자비선원 법상 스님이 2월 19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종교 · 언론 · 사회봉사 · 효행부문 대한민국 불교발전 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시상식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협의회 등이 주관하는 '2023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 · 사회 · 문화 · 예술 · 과학 ·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법상스님은 종교 · 언론 · 사회봉사 · 효행부문에서 수상했다.

순수 민간단체 행사로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서로 각기 다른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공로자에게 상을 수여해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상스님은 창원지역에서 무료급식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등 지난 30여년간 나눔과 복지의 길을 묵묵히 이어왔다. 전문적인 복지 활동을 위해 법인을 창단하고 의료생활협동조합 자비요양병원을 설립했으며, 어르신 요양시설인 자비마을과 양 · 한방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노인의료복지뿐 아니라 스님들의 노후복지까지 책임지는 등 자비사상을 실천해오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태고종 대구 · 경북교구 제9회 지방종회



한국불교태고종 대구 · 경북교구(종무원장 영범스님)가 2월 17일 오후 2시 대구 · 경북 교구 종무원 설법전에서 제9회 지방종회를 개최했다.

대구 · 경북교구종무원장 영범 스님과 종회의장 혜석 스님 등 종회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9회 지방종회에서 영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오랜만에 개최되는 지방종회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제15대 대구 · 경북교구 지방종회 보궐선거에 당선된 의원 지만, 해담, 정연, 만해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이어서 종회의장 혜석 스님의 종회개회에 이어 오는 4월 18일 치러지는 제28대 총무원장 선거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지방종회는 법운, 관정, 범진, 일묘, 성혜, 보성 스님을 선거인단으로 선출했다.

한국불교태고종 대구 · 경북교구는 종무원장 영범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4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한편 한국불교태고종 대구 · 경북교구 종무원에서는 열린불교대에 영남범음범패과정(강주 법안스님)과 전통범음범패과정(강주 성우 스님)을 개설하여 종도 교육을 통한 교구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배철완 대구지사장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전주교도소에 나눔

백설기 · 두유 1200명 분 전달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전주교도소교정위원회 명예회장, 마이산 탑사 주지)이 전주교도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사랑의 백설기와 두유 1200명 분을 전달했다.

2월 21일 전주교도소(소장 박경선) 본관 앞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진성 스님, 전주교도고불교반위원장 현진 스님(천지사 주지), 전주 소년원 어머니회 김도은 회장, 황동현 소년원협의회 명예 회장, 소년원협의회 어머니회 정해자 회장, 전주교도소 교정 봉사단 박성균 단장, 박교상, 김동우 교정위원, 전북문화관광 연구소 남상준 교수, 붓다복지관 이재현 봉사단장 등 교정위원과 박경선 전주교도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수용자들에게 전달된 백설기와 두유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참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전주교도소 수용자들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의미를 담아 마련됐다.

진성 스님은 "저는 여러 봉사자들과 불자들의 정성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 여러 후원자들과 봉사자들의 정성이 수용자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용자들의 교정교화활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주교도소 박경선 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활동이 표시도 나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활동이지만 분명히 우리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교도소내의 수용질서도 중요하지만 종교단체의 교정교화활동이 수용자들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 스님은 새로 부임한 박경선 소장에게 마이산과 탑사 기념품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지역 불교대학 일제히 졸업식 봉행

18일 전주 화엄불교대학 등



전북지역 불교대학들이 일제히 졸업식을 봉행했다. 2월 18일에는 전주 화엄불교대학과 고창 선운사불교대학, 19일에는 전북불교대학이 졸업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에서 운영하는 전주지역의 최고의 신도교육기관인 화엄불교대학(학장 일원. 금산사 주지)은 2월 18일 34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전북불교회관 4층 큰 법당에서 봉행된 이날 졸업식에서는 27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학장 일원 스님은 졸업생 대표 이동현 불자에게 졸업증서와 조계종 신도품계인 '부동' 품계증을 수여했다.

일원 스님은 졸업식사를 통해 "졸업생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이웃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여래의 전도사로 거듭나게 됐다"며 "황량한 가시밭길이라도 남을 이롭게 하는 길이라면 마다하지 말고 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선운사 불교대학(학장 경우, 선운사 주지)도 2월 18일 고창읍내 선운교육문화회관 3층 명상실 '보리수 아래'에서 제2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17명의 입학생 전원이 졸업하게 됐다. 1기 입학생 중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2명도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이번에 졸업하게 됐다. 학장 경우 스님은 졸업생 모두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경우 스님은 졸업식사에서 "졸업식을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계기로 삼는다면 지난 1년의 수고로움이 그 어떤 시간보다 가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신심과 원력을 펼쳐나가는 불자로 거듭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부처님세상 부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은 2월 19일 제35회 불교학과, 제30회 법사과 졸업식을 봉행했다. 완산불교회관 4층 큰 법당에서 열린 이날 졸업식에서는 불교학과 30명 법사과 19명, 전법사 4명이 졸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 선운사 생전예수재 입재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2월 19일 생전의 업장을 소멸하고 지계와 보시로써 스스로 내생의 복락을 추구하는 계묘년 생전예수재 입재식을 봉행했다.

효담 스님의 집전으로 선운사 만세루에서 열린 시련의식을 시작으로 대웅보전에서 상단불공에 이어 생전예수재 의식이 봉행됐다.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열린 입재식에는 경우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본 · 말사 스님들과 부안 내소사, 군산 관음사 신도들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49일간의 기도를 통해 생전에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을 참회로써 소멸하고 내생에 무량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입재한 선운사 생전예수재는 매주 토요일마다 예수재가 봉행되며 음력 윤2월 지장재일인 4월 8일에 49일간의 생전예수재를 회향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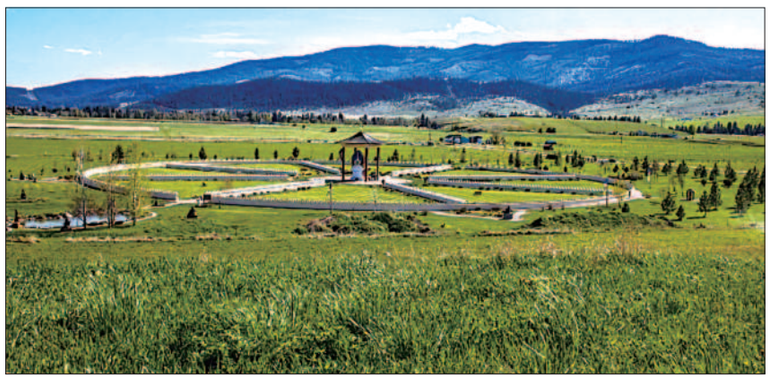
美 불교센터, 환경보호 위해 지역과 연대

토종 식물 천국 '천불 정원'
아스팔트 공장 개발 계획에
지역민과 비영리 단체 설립
반대 운동 · 법적 공방 나서

박영빈 객원기자

몬태나주 북서부 조코계곡에 소재한 불교센터 '에왐 상악링'은 센터가 소재한 계곡에 노천 자갈광산과 아스팔트 공장이 들어설 위기에 놓였다. 센터와 지역주민들은 현재 개발을 막고, 환경과 수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월 16일 국제 불교뉴스 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불교계와 지역주민의 연대에 대해 보도했다.

에왐 상악링 센터는 티베트 불교를 수행하는 불교센터로, 2000년 설립됐다. 특히 이곳은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1000구의 불상을 법륜의 형태로 배치한 정원인 '천불의 정원'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정원엔 해당 지역의 토종 야생식물들을 중심으로 조경이 이루어져 지역 환경의 지속적인 보전을 알리는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산개발로 수행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천불의 정원' 전경.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센터를 설립한 고첸 툴쿠 린포체는 "천불의 정원은 오래전 나의 꿈에서 본 모습을 옮긴 것이다. 법륜의 형태로 불상을 봉안하고, 둘레에 8개 국어의 반야심경을 새겨 세계의 평화와 불법의 증장을 기원하는 장소"라고 센터와 정원을 소개했다.

한편 최근 이 곳에 노천 자갈광산과 아스팔트 공장에 대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지난해 한 고속도로 건설회사가 몬태나주 환경부에 20년간 자갈채굴 사용허가와 공장설립을 신청했다. 해당 회사는 광산 및 공장 시설은 플랫헤드 인디언 보호구역 내의 60 헥타르에 달하는 부지에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 환경부는 광산의 환경평가에 대한 공개 의견을 2월 24일까지 받을 것이라고 공시하고,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공개 피드백을 요청하는 웹페이지를 개설한 상태다.

이에 조코계곡의 지역주민 및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들은 해당 개발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보호구역을 고향으로 하는 살리쉬족과 쿠테나이족 연합의 전 의장 샐리 파이안트는 "자연과 동물, 인간의 건강에 무모한 악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가 일시적인 불편이나 영향이 미미하단 이유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예"라며 개발계획을 비판했다. 파이안트는 "설립 예정부지에는 강으로 흘러드는 지하수층이 있다. 그리고 강은 우리 부족들이 오랜 시간 노력하여 복원한 멸종위기종 송어의 서식지로 연결된다"며 계획의 환경평가를 전면적으로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과 함께 연대에 나선 에왐 상악링 센터는 "해당 예정지는 천불의 정원과 수행센터에서 불과 1km도 채 안되는 거리에 있다. 환경적 영향, 건설 및 대형 트럭의 출입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빛 공해, 도로 교통량 증가는 수행환경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히 노천 자갈광산은 정원에 자라는 토종식물들의 성장과 보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주 환경부는 이곳의 환경과 문화적인 문제에 대해 적절한 고려없이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센터와 주민들은 '조코의 친구들'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 개발계획에 반대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코의 친구들 측은 대중들에게 해당 계획의 문제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계획을 막기 위해선 법적공방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쿄박물관, '쇼토쿠 태자 도해' 디지털로

훼손 쉬워 미공개작 다수 포함
터치로 미세 부분 확대도 가능



사진출처=트라이시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중요 문화재를 고해상도로 관람할 수 있다니 신기합니다. 화면을 터치해 작품 세세한 부분까지 볼 수 있어서 더 좋아요!"

도쿄국립박물관이 일본 불교 역사와 관련한 중요 예술 작품을 디지털로 전시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2월 19일 불교 매체 트라이시클(Tricycle) 보도에 따르면 도쿄국립박물관은 2월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2층 '호류지사(Horyuji Temple) 보물 갤러리'에서 불교 중요 문화재를 디지털 전시한다.

트라이시클은 "유리창이나 장벽 등 어떤 방해도 없이 관람객들이 불교 문화 유산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고화질로 복원된 불교 문화재의 디지털본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시 대상은 도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호류지사 관련 중요 문화재로, 깨지거나 훼손되기 쉬워 대중에 전시되지 못했던 작품들이 다수 포함됐다.

도쿄국립박물관은 관람객들이 직접 모니터를 터치해 작품의 미세한 부분까지 확대해 볼 수 있도록 디지털 장비를 배치했다.

이중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은 쇼토쿠 태자(574~622)의 도해이다. 쇼토쿠 태자는 백제의 혜총과 고구려의 혜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유교와 불교를 배워 일본에서 중흥시킨 인물이다.

해당 작품들은 쇼토쿠 태자 사망 약 450년 후인 1069년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쇼토쿠 태자가 말을 타는 모습, 쇼토쿠 태자와 대중들의 모습 등이 화폭에 담겼다.

특히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작품도 눈에 띈다. 한복을 입은 강사가 일본 학생들에게 기가쿠(Gigaku)를 가르치고, 드럼을 든 연주자들과 이를 정자 아래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쇼토쿠 태자의 모습 등이 담겼다.

기가쿠는 612년에 백제의 미마지(味摩之)가 오나라에서 배워 일본에 전한 것이 시초이며, 나라 시대부터 헤이안 시대에 걸쳐 유행했다.

이밖에 고구려 승려 담징이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반 그린 것으로 알려진 호류지사의 금당 벽화 2호와 6호 중 일부도 공개된다. 박정현 객원기자

윈강석굴, 3D프린팅으로 1:1 재현

제3굴 아미타삼존상
순차적으로 재현진행

세계문화유산이자 중국 3대 석굴사원 중 하나인 윈강석굴이 3D프린팅으로 재현돼 화제다. 지난 2월 15일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는 현대과학의 기술로 원본과 동일하게 재현된 윈강석굴 제굴에 대해 보도했다.

윈강석굴은 산시성 다퉁에 위치한 불교 석굴사원으로 5세기 북위시대에 조영된 것이다. 동서 1km로 뻗은 절벽에 45개의 동굴과 5만 9000점 이상의 불상이 있으며 2001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중 제3굴은 윈강석굴에서 가장 큰 동굴로 전실과 후실의 두 방으로 나뉘며 이중 후실의 벽에 수당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미타삼존상이 봉안돼 있다.

산둥성 칭다오에 소재한 '윈강석굴 미술관'은 3D 프린팅기술을 이용해 제3굴을 1:1비율로 재현해냈다. 본존인 아미타불의 높이는 9.93m. 불상 뿐만 아니라 탑 모양 조각이 새겨진 2개의 기둥, 벽을 장식하는 벽화들까지 높이 17.9m, 폭 13.6m의 전체 동굴을 완벽하게 재현해 냈다. '글로벌 타임즈'는 "현재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이런 대규모 문화재를 복제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전하며 일일 최대 1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3D프린팅 기술로 완벽하게 재현된 윈강석굴 제3굴의 모습. 사진출처=글로벌 타임즈

윈강석굴을 3D 프린팅으로 복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윈강석굴 연구소와 절강 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의 기술자와 연구원들은 더 작은 동굴인 윈강석굴 제12굴의 일부를 복제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번 제3굴 복제 프로젝트 기획자인 왕샨샨은 "고대유물을 새롭게 되살려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의도"라고 전했다. 왕샨샨은 "3D 프린팅 팀의 지원을 받아 대형 불상들을 재현하는 데 엄청난 준비작업이 필요했다. 디지털 모델을 만들기 위해 약 10,000장의 초고화질 동굴사진을 촬영했고, 아미타삼존상만을 위해 개별적으로 842개의 모델이 프린팅 돼 조립됐다. 동굴 전체를 조립하는 데만 전문팀이 총동원되어 3개월이 걸렸다"고 밝혔다.

디지털 고고학전문가인 펑샤오콴은 "이번 프로젝트는 3D 프린팅기술이 대규모 문화유산을 복제하고,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20년 동굴의 복제에 성공하면서, 중국의 석굴사원 복제사업의 초점이 '보호 및 보관'에서 '문화 창조 및 가상 컬렉션'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지난 20년 윈강석굴을 시작으로 22년에는 둔황 막고굴의 장경동을 디지털로 복제 및 복원에 성공한 바 있다.

전시회 팀장인 닝보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유물복원이 단순 복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옛 문명과 문화를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의 작업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완전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문화유산의 표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유럽 작가, '소림 불교 문화'를 말하다

베스트셀러 베른하르트 모에슬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법' 강연



베른하르트 모에슬 작가. 사진출처=힌두스탄 타임즈

오스트리아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최근 한 강연에서 불교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공유했다.

2월 18일 인도의 영자 일간지 '힌두스탄 타임즈'(hindustantimes)에 따르면 작가 베른하르트 모에슬은 이날 인도 러크나우(Lucknow)에서 열린 저서 '소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법'(Shaolin: How to win without fighting) 관련 강연에서 불교 교리와 수행에 대해 언급했다.

모에슬은 "요즘 사람들은 보다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불교에 관심을 갖는다"며 "삶의 진정한 주인은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기는 사람"이라고 운을 뗐다.

1970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모에슬은 13살 때 소림 쿵푸 수련을 시작하면서 소림 불교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모에슬은 비교적 어린 나이인 16살 때 세계 일주를 시작했다. 여행사진작가가 되기위한 출발이었다. 그러다 그는 1996년 중국 소림사에서 승려들과 함께 1년 동안 생활하면서 당시 느끼고 깨달은 바를 책으로 펴내기로 다짐했다. 그 책이 바로 이번 저서 '소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법'이다.

모에슬은 "불교 수행의 요점은 삶이 실제로 단순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이른바 '비전투 승리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6차 정기총회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회칙 제4장 18조에 의거하여
제16차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심의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니
전국의 비구니스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 시 : 불기2567(2023)년 3월 27일 월요일 오후 1시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만불전
안 건 : 1. 2022년 결산보고의 건
2.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의 건
3. 전국비구니회 활동 전반에 대한 질의의 건
4. 기타 안건

불기2567(2023)년 2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불교천문학 강좌

사찰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편법 사주명리, 육임 등등은 불교와 전혀 어울리지 않으므로, 따라서 불교 경전에 설파된 각종 천문관련 방편법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평생운세, 매년운세, 단시판단법, 택일법, 기도성취법 등을 국내,외 최초로 스님, 법사님에게만 한정 '제6기 불교천문학 강좌'를 안내합니다.

불교천문학 특징
- 불교의 기본 핵심, 원리을 명확하게 알수 있음.
- 불교의 우주관을 이해하게 됨.
- 만사, 인사의 관계성을 이해하게 됨.
- 방편법으로 모든 동양학을 별도로 배우지 않아도 됨.

모집요강
- 개 강 : 3월 12일(일) 15시
- 교육 과정 : 주 1회 2시간씩 약 1년 과정
- 교육 장소 : 수원시 소재 수도사
- 교육 비용 : 약간 보시금
- 접수 문의 : 010-4317-9500(심원)

하늘 맘 알기 불교천문학 강원

서예와 그림으로 보는 아름다운 한글

이호신 작품전 '한글사랑 한글 뜻그림'
백악미술관 전관 3월 2일부터 8일까지

한글서예 작업 '한글 뜻그림' 80점 전시
한글 조형 · 문장 아름다운 시각예술로
한글 창제 본질 사랑과 나눔 정신 실천
글자의 문자 · 회화성 'Textimage'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62x4cm, 한지에 수묵채색


89x4cm 수묵탁본

그림이면서 서예이고, 서예이면서 그림인 새로운 양식의 작품전이 열린다. 이호신 화백이 3월 2일부터 8일까지 서울 인사동 백악미술관에서 개최하는 '한글사랑 한글 뜻그림' 展이다.

이 화백은 한국화가로서 자연과 생태, 문화유산, 정겨운 마을 등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세계를 그려왔다. 다양한 기법과 다채로운 색채를 응용해 '생활산수화' 라는 독자적인 화풍으로 이 땅의 자연과 문화 현장을 그려왔다. 그런 그가 지난해 10월 작품집 〈화가의 한글사랑〉을 출간했다. 책은 한글서예 이미지화 작업인 '한글 뜻그림' 을 모은 책이다. 책 속의 '한글 뜻그림' 이란 화가의 시각에서 한글서예를 표현한 '그림이면서 서예이고, 서예이면서 그림' 인 새로운 예술양식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집 〈화가의 한글사랑〉에 실렸던 작품과 신작을 모아 총 80점을 전시한다.

새로운 양식의 '한글 뜻그림' 은 이 화백의 화가적 감성과 모국어에 대한 인문학적 사랑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른바 한글서예에 대한 새 인식과 창신의 변화를 모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이 지닌 조형성과 문장을 아름다운 시각예술로 표현하고, 한글에 담긴 내용을 이미지로 극대화해 시각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작업이다. 즉 문자와 회화의 새로운 영역을 꿈꾼 것이며, 한글의 우수성을 아름다운 조형언어로 드러내고자 함이다.

이 화백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30여 년간 한글을 '무명을 밝히는 세상의 빛' 이라고 규정하고 표음문자인 한글로 언어가 함축한 뜻을 표현하는 방법에 천착한 결과 마침내 한글의 우수성을 아름다운 조형 언어로 드러낸 것이다. 이 작업은 우리 선조들의 언어표현이던 문장(시), 글씨(서), 그림(화)과 민화 문자도(文子圖)의 재발견인 것이다. 기존의 한글서예나 문인화, 시화와는 또 다른 조형방법으로서 이 화백은 '한글 뜻그림' 으로 명명했다.

이 화백은 자연과 생활 속에서 얻은 통찰을 '한글 뜻그림' 에 담아 한글 창제의 본질인 사랑과 나눔 정신을 실천한다. 또한 글의 내용에 따라 글씨체에 변화를 주거나 구성을 달리하고, 주제에 맞는 상징성과 이미지를 회화적으로 다채롭게 표현했으며, 이미지 극대화를 위해 화면 도구는 틀을 깨는 파격을 추구하기도 한다. 여기에 먹과 붓은 물론 화려한 색감과 크레용, 탁본기법 등을 활용해 끝없이 일탈한다.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글자를 의미 그 자체로 해석하고 받아들여 공감하게 만든다. 보고 느끼고 나누는 글씨와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화백의 '한글 뜻그림' 은 일면 글자에서 그림으로 회귀하는 작업이다. 글자를 넘어 필획 자체가 그림이 돼 글자가 그림의 정체로 각인된다.

오늘날은 글자는 대부분 키보드 작업을 통해 생산된다고 할 수 있다. 기계시대의 문자는 획일화, 규격화가 미덕인 것이다. 글자를 빨리 쓸지 천천히 쓸지, 크게 쓸지 작게 쓸지, 꾹꾹 눌러 쓸지 설렁설렁 쓸지, 고민하는 수고로움은 필요없다. 오로지 많은 정보를 얼마나 빨리 기록 전달하고 저장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기에는 필의 압력이나 속도, 먹의 농담이나 윤갈, 획의 굵기나 장단이 쓴 사람의 마음, 정신, 몸의 상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만들어지는 서(書)의 메커니즘이 작동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시대에 이 화백의 '한글 뜻그림' 은 기계시대 문자문명을 역행하는 것이다. 이미 1443년 세종이 한글을 만들 때 완성된 미니멀 중의 미니멀로, 극도로 추상화된 문자인 한글을 다시 상형문자 이전보다 더 이전의 그림으로 거슬러가고 있는 것이다. 초고속으로 달리고, 초경량화 되어야 하는 디지털시대 문자지도(文子之道)의 전복이자 반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화백의 한글 그림은 모든 언어의 근본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역행이 아닌 원점회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것은 '한글 뜻그림' 에는 소리와 색깔까지 있다는 것이다. 작품 중 '불' 이라는 글자는 "불이야!" 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 마치 지리산 뱀사골의 뱀이 내달리고 선녀들이 흔비백산하며 맨몸으로 하늘을 오르는 모습이 연상된다.

또 소리와 함께 '한글 뜻그림' 을 완성하는 것은 색깔이다. 이 화백은 한글을 문자 이전에 글자 하나, 음소 하나가 가진 색깔과 무늬와 결을 느끼는 대로 색칠하고 필획해 낸다. 농담과 윤갈로 무한대의 색깔과 마티에르까지 일체로 머금고 있는 먹, 묵의 모습을 검돌의 필획에서 다시금 확인한다.

이 화백의 '한글 뜻그림' 은 글의 내용 · 주제에 따라 글자꼴은 물론 그 이전에 색깔과 필획이 소리와 말의 파동으로 일체가 되어 마음 가는 대로 형상화된다. 이를 통한 글자는 기존에 우리가 좀처럼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징을 창출한다. 시대사회의 변화를 문자의 내용과 조형, 텍스트와 이미지로 하나가 되게 담아내고 있다. 글자의 새로운 문자성과 회화성을 텍스티미지(Textimage)로 획득해 내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기계시대 '문자도(文子圖)' 내지는 '그림시' 로 새로운 길을 내고 있는 것이다.

전시문의 (02)734-4205.

〈직지심체요절〉 50년 만에 대중 공개


〈직지〉 하권 표지

4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프랑스 국립도서관 일반공개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인쇄본이면서 선(禪)의 요체를 담고 있는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이 50년 만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

〈직지(1377)〉를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누리집에 의하면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4월 12일(현지시간)부터 7월 16일까지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을 주제로 한 전시에서 〈직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인쇄술의 발전 역사와 성공의 열쇠를 추적할 것"이라며 금속활자로 인쇄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지〉를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직지〉는 50년 만에 수장고에서 나와 일반에 공개된다.

〈직지〉는 고려시대 1377년(우왕 3년) 청주 흥덕사에서 발간했다. 상 · 하 두 권으로 구성된 〈직지〉는 백운 화상이 과거칠불에서부터 인도와 중국의 조사들이 남긴 말씀 중 참선 수행자들이 선법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도록 선불교의 요체를 뽑아 엮은 것이다. 〈직지〉의 '直指' 는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보면 그 본성을 바르게 보아 부처가 될 수 있다' 는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의 뜻을 담고 있다.

〈직지〉는 1972년 '세계 도서의 해' 를 기념하기 위한 도서전시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직지〉는 1973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열린 '동양의 보물' 전시 이후 최근까지 실물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과 이번 전시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재단은 최근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완 기자

국립중앙博 '유리건판으로 보는 100년 전 기록' 익산 편 공개


익산 미륵사지 석탑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2월 15일 온라인 영상 콘텐츠 '유리건판으로 보는 100년 전 기록' 익산 편을 공개했다.

이번 익산 편에서는 익산의 대표 문화유산인 미륵사지석탑을 비롯하여 '왕궁리 오층석탑', '고도리 석불입상' 등 익산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영상을 볼 수 있다. 반짝이는 야경과 함께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사계절의 변화하는 풍경을 담아 다채로운 영상미를 볼 수 있다.

이번 익산 문화유산 편은 앞서 공개된 유리건판 프리뷰 영상과 5대 궁궐 시리즈에 이어서 국립중앙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후 공주와 부여 편을 제작 · 공개할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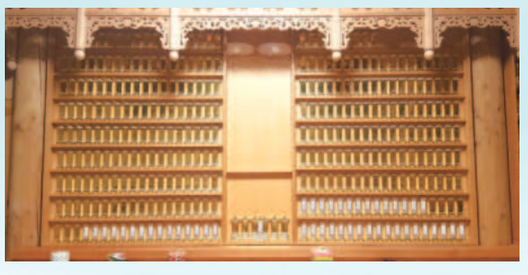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6~2/2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연기와공그리고무상과무아:현대철학의관점으로붓다의가르침을이해하다	홍창성	운주사	6	부적의비밀:기원과상징의문화	자현/김재일 그림	모과나무
2	무비스님의천수경(개정판)	무비 스님	조계종출판사	7	마조어록(현대인을위한선어록읽기1)이마음이부처다	김태완 역주및도움말	침묵의향기
3	중론:산스끄리뜨게송의문법해설을겸한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8	낡은옷을벗어라:법정스님미출간원고69편수록*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4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9	중의학이론과도가역경:인체는작은우주다	남회근	마하연
5	초기불교이해(각묵스님)	각묵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10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책세상



심원 김형효의 철학적 사유와 삶

심원김형효의 철학적 사유와 삶

심원사상연구회 편

보고사 펴냄/4만7천원



심원 김형효 선생님(사진 오른쪽)이 살아 생전에 카페에서 스님과 웃고 있는 모습.

심원 철학 정신의 계승 발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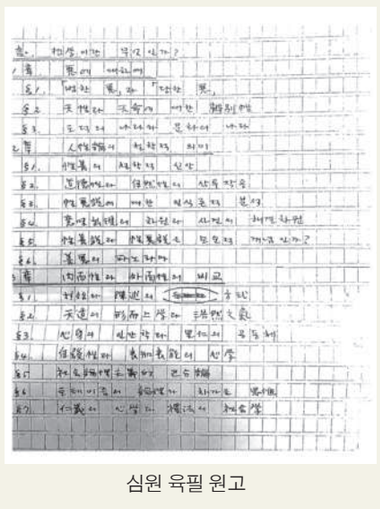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심원사상연구회는 심원 김형효(1940~2018)의 철학과 사상을 연구하고 토론하며, 심원 철학 정신의 계승 발전을 모색하는 열린 학술 모임이다.

심원 김형효는 현대 유럽철학의 실존주의와 현상학, 구조주의에서부터 동양의 유가와 도가, 불교철학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연구했다. 그래서 〈데리다와 노장의 독법〉 〈하이데거와 화엄의 사유〉 〈철학적 사유와 진리에 대하여〉 〈원효의 대승철학〉 〈마음혁명〉 등 무려 25권에 달하는 방대한 철학 저술을 남겼다. 학계에서는 특히 데리다의 해체철학과 노장 사상, 하이데거와 불교사상에 대한 비교철학적 탐구를 독창적인 성과로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이 책에는 그의 철학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한 전문가들의 연구 논문 10여편과 그의 제자 지인 동료들이 회상한 추모글 30여 편을 담고 있다. 1부는 그의 철학을 리뷰한 젊은 학자 11편의 발제를 묶었고, 2부는 제자와 도반 동료 교수들이 더듬은 기억들이며, 3부는 당신 스스로 술회한 철학적 사유의 여정을 적었다.

간행 편집위를 대표해 한형조 교수는 머리말을 통해 "돌아가신지 벌써 5년, 선생의 아호 그대로, 깊은 사유와 품격, 따스한 염려가 잊히지 않고 세상에 빛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심원 육필 원고

서양사상과 불교를 비교 철학적 탐구
논문 10여 편과 추모글 30여 편 담아
별세 5주기를 맞아 학술 세미나 열려
비교 철학 통해 한국 철학 지평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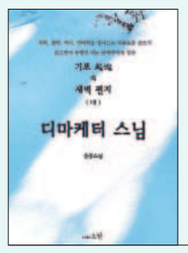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도 문집 간행에 부쳐 "2006년 간행된 원효의 대승철학은 금강선원의 기신론과 유식론 강의를 참청한 인연으로 이루어 졌다"며 "초동목수의 말까지 버리지 않은 것처럼 거사의 학문은 모든 것들을 스승으로 삼은데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치하했다.

이어 혜거 스님은 "거사의 문집을 보면서 거사의 마음 쓰인 곳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피모(皮毛)만 보는 것일 뿐, 골수를 고척하지 못한 것이다. 거사의 문집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니다. 따라서 정법안장으로 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쟁 이후 한국철학 2세대로 동서와 고금을 종횡하며, 25권의 방대한 저술을 남긴 철학자 심원 김형효 선생 별세 5주기를 맞아 추모문집 출판기념회와 기념 학술세미나가 2월 23일 한국학중앙연구원 강당 2층서 열렸다. 김형효(1940~2018) 교수는 동서비교 철학을 통해서 한국 철학의 지평을 새롭게 확장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김형효의 진리관과 유가 도가에 대한 이해" "Great Reset 시대의 철학과 사랑" "본성이 꽃피는 도의 정치" 등 심원의 진리관과 정치철학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불변의 지루함보다 무상의 변화가 아름답다"



디마케터 스님

동봉 스님 지음

도반 펴냄/2만원

기포(起泡)의 새벽편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쓴 편지 10년 동안 3천회 다다르다
3000일 노력은 마치 커다란 화두와 같다
무상 비롯해 글에는 과학 언어 철학 없어

깨달음, 즉 부처님 가르침은 무엇일까?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변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본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닐까? 모두가 천재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 동봉 스님은 불교 수행자인 스님으로서의 공부와 수행뿐만 아니라, 과학 언어학 철학 역사 미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도 두루 능통하다. 동봉 스님은 많은 불교 경전을 가사체 형식으로 번역해서 불교계 전체에 자연스러운 독송 방법을 제시하고, 여러 경전 번역과 60여 권의 경전 해설서와 불교 서적들을 출간한 후에, 언젠가부터 기포(起泡)의 새벽편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쓰고 있는데, 약 3000회에 다다르고 있다. 3000회면 10년이 다 되어가는 것이다. 수행처럼, 기도처럼, 일기처럼, 편지처럼, 법문처럼 그렇게 3000일 동안 글을 쓰며 동봉 스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

수행을 깊이 한 수행자의 글에는, 즉 도인(道人)의 글에는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 무상(無常)의 변화를 비롯해 글에는 과학도, 언어학도, 철학도, 예술도 없다. 심지어 불교의 가르침도 없다. 그러면서도 그날그날의 글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것이다. 지난 3000일의 노력은 마치 커다란 화두와 같다. 그 3000일의 글들을 하나로 꿰어서 짚어낼 수 있다면, 어쩌면 부처님 가르침에 많이 가까워질지도 모른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매일 매일 글을 쓰는 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오랜 세월 동안 매일 매일 쓴 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서 잘 살펴본다면 큰 스님들의 멋진 세계를 문자로 만나는 매우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읽으면서 수행이 되는 동봉 스님의 글들을 눈꼽 만큼이라도 마케팅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다. 불교계 큰스님들의 활동들도 마찬가지이다. 조금이라도 마케팅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처럼 불교가 유지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것이 마케팅화 돼버린 현대사회에서 명확한 디마케터 스님을 만나 보는 것은 더욱 중요해 보인다. 삶에, 인생에 해답이 필요하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는 마케팅을 따라다니지 말고, 마케팅의 하나인 디마케팅을 따라다니지 말고 진짜 디마케터 스님의 글을 따라가 볼 일이다. '기포의 새벽편지 1권' '디마케터 스님' 은 도서출판 도반에서 출간되었다. 김주일 기자

▲저자 동봉 스님은?

강원도 횡성서 태어나 1975년 불문에 귀의하였다. 해인사승가대학,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공부했다. 법명은 정휴(正休), 자호는 일원(一圓), 법호는 동봉(東峰)이고 아프리칸 이름은 기포(kipoo, 起泡)이다. 1993~1997년 BBS 불교방송에서 〈살며 생각하며〉 〈자비의 전화〉 등 26개월에 걸쳐 생방송을 진행하였다.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서 52개월간 머물며 펼친 말라리아 구제 활동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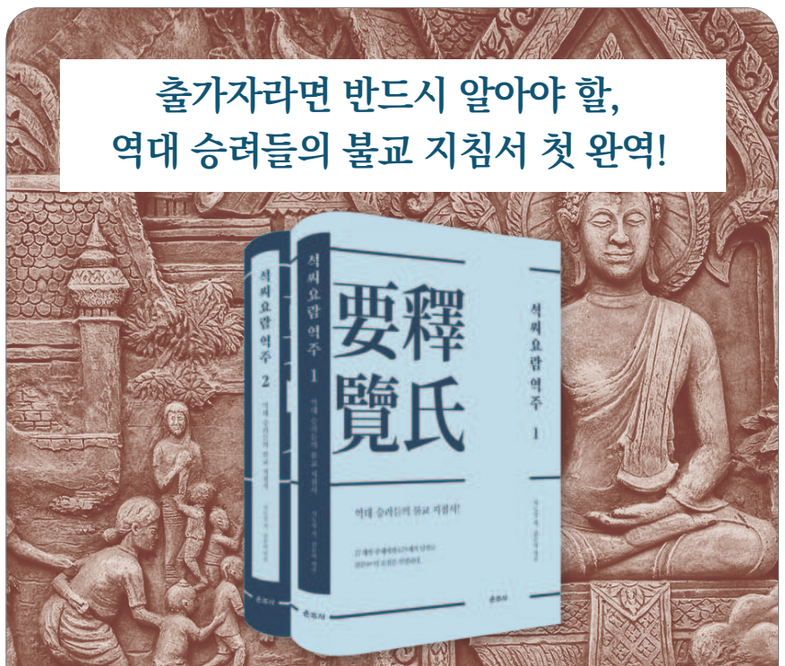
한국 불교인으로서는 최초로 아프리카에 '학교법인 보리가람스쿨'을 설립했고 탄자니아 수도 다레살람에 매입한 학교 부지 35에이커와 킬리만자로 산기슭에 개척한 부처님 도량, 사찰 부지 3에이커를 조계종 산하 '아름다운 동행'에 기증해 종단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교'를 세워 2016년 9월 개교, 운영중이다. 곤지암 '우리절' 창건주이자 회주로서 책, 법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으며, 특히 〈기포의 새벽 편지〉 연재는 3000회를 돌파했다. 출간한 주요 책으로는 〈사바세계로 온 부처님의 편지〉 〈마음을 비우게 자네가 부처야〉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불교 상식 백과〉 〈밀린다왕문경〉 〈평상심이 도라 이르지 말라〉 〈반야심경 여행〉 〈법성게〉 〈내비금강경〉 외 60여 권의 저서와 역서가 있다.



통도사승가대학의 불교철학 강의

불교의 전통적 가르침이 전승되는 한복판에서 서양철학적 사유와 비판적 시각으로 불교철학을 논하고 그 진리성을 증명하는, 진중하면서도 깊은 철학적 사유와 유쾌 발랄한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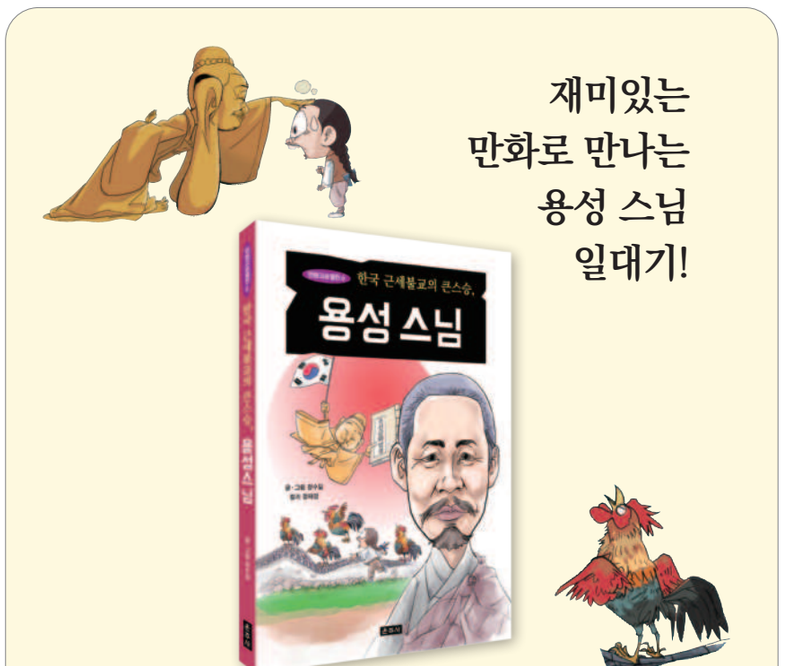
홍창성 지음/국판/248쪽/값 15,000원



석씨요람 역주 1·2

불교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불교 입문서이자 개론서! 출가자들이 불문에 들어와 생활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망라한 불교백과사전!

석도성 저, 김순미 역주/신국판/1권 448쪽/값 27,000원
2권 478쪽/값 27,000원



한국 근세불교의 큰스승, 용성 스님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선 한국 근세불교의 중흥조 용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그려냈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200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국내선 처음 완역된 빠알리어 '부처님 전생담'



자타카 전서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816쪽 / 24만원

빠알리 '자타카' 경문, 주석들 나눠
3년간 번역…원고지로 2만 8176매
신화이자 문학인 부처님 전생이야기
세익스피어 등 세계 문학에도 영향
"지금 여기 실천 전범 전하는 경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자타카〉(Jātaka)는 궁극적으로는 현세에서 부처님이 될 존재인 보살의 반복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 놓은 전집으로 한역에서는 본생경(本生經) 또는 본생담(本生談), 전생담(前生談) 또는 본연(本緣)이라고도 한다.

내용적으로 부처님께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이루기 전의 삶 가운데 전생에서 보살이었을 때에 구도생활을 서술한다. 이야기는 모두 547개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무한한 겁 이전에 붓다가 쑤메다(Sumedha)라는 바라문으로 태어나, 과거의 부처님인 연등불 앞에서 끝없는 윤회로부터 해탈해, 스스로 부처님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는, 보살이 되기로 하나의 서원을 세운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타카〉에 기초한 보살의 용맹정진은 마지막 삶에서 거룩한 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가르침을 남기고 수많은 뭇 삶을 제도할 수 있는 부처님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자타카〉에 담긴 547개의 이야기는 현세의 원인을 전생으로 거슬러 올라가 인과적 원인을 밝혀 성찰하게 하는 부처님의 큰 뜻이 담긴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접했던 〈자타카〉가 국내 최초로 완역된 전서로 출간돼 주목된다.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은 최근 빠알리 대장경 〈자타가〉 경문과 주석을 분리 복원 · 번역해 〈부처님 본생이야기- 자타카 전서〉를 펴냈다. 빠알리어 〈자타카〉가 국내에서 완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재성 회장이 3년에 걸쳐 번역한 〈자타카〉는 원고지 분량만 28,176매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며 총 2816쪽, 6,763개의 주석을 포함한다.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이 번역한 〈자타카 전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타카〉는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경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전재성 회장은 "〈자타카〉는 초기불교 빠알리대장경에 편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바라밀사상을 토대로 하는 보살사상을 천명하기 때문에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경전"이라며 "대소승을 막론하고 전통적으로도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불교의 예술적 창조성은 이 자타카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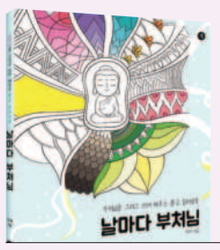
실제, 고대의 바르후트, 아잔타, 산치, 마투라, 간다라를 비롯한 스리랑카의 폴론나루와,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탑묘와 동굴과 사원의 벽화를 장식한 것은 〈자타카〉의 이야기들이다. 따라서 〈자타카〉는 고고학적 연구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자타카〉는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판차탄트라 등의 인도문학 뿐만 아니라, 세계문학에도 양향을 끼쳤다. 〈자타카〉 속 일부 이야기들은 슈타인훼윌(Heinlich Steinhöwel, 1410~1479)의 이솝이야기에도 등장하며 이 이야기들의 이본들이나 개작본들은 복카치오(1313~1375), 뽀죠 브라촐리니(1380~1459), 라 퐁텐(1621~1695), 쵸서(1340~1400), 세익스피어(1564~1616)의 작품 속에서 발견된다는 게 전재성 회장의 설명이다.

전서의 발간을 도운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자타카는 문학이며 전설이며 신화"라며 "어려운 가르침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에 이르고 새로운 결심으로 실천에 나설 수 있다"라고 밝혔다.

통도사 람림학당 원장 혜능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자타카〉는 율장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배경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면서 "현실의 난관에 직면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용기를 우리에게 부여하며 지금 바로 여기의 삶 속에서 현실감 있게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전범을 보여주는 특별한 경전"이라고 평가했다.

부처님과의 커피 한 잔 상상하며 여백 채워 볼까



'날마다 부처님'
무여 스님 지음
그봄출판사
1만 4800원

이 책에서는 장엄한 부처님이 없다
친숙함과 귀여움 갖춘 부처님 49점
하얀백지 위 부처님 채우는 것 독자 몫
단순한 컬러링책이 아닌 수행의 방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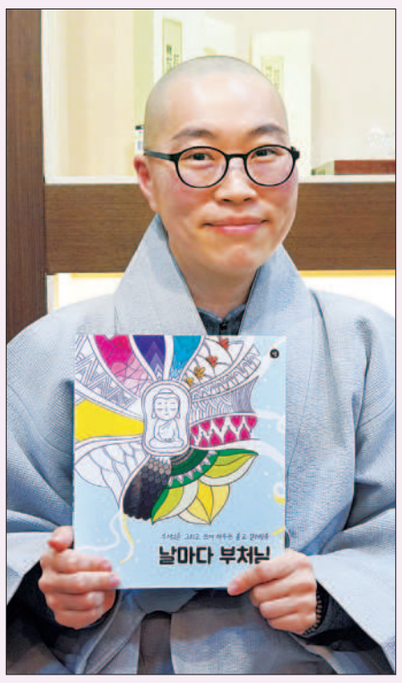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함박웃음과 함께 손가락 브이를 만든 부처님, 마법 융단을 타고 하늘을 날아 중생세계를 둘러보는 부처님, 카페에 앉아 커피를 즐기고 있는 부처님.

최근 무여 스님이 출간한 컬러링북 〈날마다 부처님〉에는 불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엄한 부처님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친숙함에 귀여움까지 겸비한 다양한 모습의 부처님 49점이 담겼다.

"제가 만난 부처님은 친절하고 자상하며, 자비로운 분입니다. 행복의 길을 먼저 가셨고 누구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 보여주셨지요. 256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가르침이 전해져 오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날마다 부처님〉은 누구나 쉽고 친숙하게 부처님을 접하면 좋겠다는 저자 무여 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됐다. 부처님 미소를 그릴 때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스님은 부처님을 그리며 편안하고 환희로웠던 순간들을 모아 한 권의 책을 완성할 수 있었다.

하얀 백지 위에 검은색 선으로만 표현된 부처님을 채워나가는 것은 오로지 독자의 몫이다. 독자들이 내 안의 불성을 믿고 날마다 부처님 그림을 보고 그리면서 내 안의 부처님과 만나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불자가 됐으면 하는 스님의 바람이 담겼다.



최근 컬러링북 〈날마다 부처님〉을 출간한 무여 스님이 자신의 책을 들고 웃고 있다.

"독자 마음 가는 대로 채워나가는 것이기에 샘플 같은 길라잡이 역시 없어요. 여백이 유난히 많은 것도 그때문이죠."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리고(사불), 쓰며 채우고(사경), 입으로 외운다면(염불) 신 · 구 · 의 삼업을 밝히는 빛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게 무여 스님의 설명이다.

스님은 〈날마다 부처님〉은 단순한 컬러링책이 아닌 수행의 방편이라고 강조한다.

컬러링북을 펼치기 전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3번 하며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면 액자에 넣어 전시도 할 수있도록 제작했다.

그림 뒷면은 자유로운 공간이다. 비워두어도 좋고 나만의 부처님을 그리고 쓰며 채울 수 있다.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백이 많은 것은 이 컬러링북의 가장 큰 특징이다.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무여 스님은 2010년 양산 내원사로 출가, 2012년부터 5년 동안 월간 해인지에 '보리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글과 그림을 연재했다. 2016년 불교박람회 붓다아트페어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제1회 통영국제트리엔날레 중 청년작가아트페어에 참여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개인전을 여는 등 작품활동도 꾸준히 이어갔다.

2014~2017년 도서출판 이층버스 북디자이너로 작업한 스님은 지난해 1인 출판사인 그봄 출판사를 창업, 대표와 디자이너라는 직책을 맡고 있기도 하다.

"책을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내가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타인과 나누며 사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을 꿈꾼다"는 무여 스님은 "이번에 출간한 책 〈날마다 부처님〉은 내 안의 부처님과 함께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무형문화재 제9호 혜룡큰스님의
맥 전수 및 이수자 소리
영축 영남범음범패 불교대학

• 경전교수 : 도산월성
• 범패교수 : 보암창학, 정산청봉, 동암무상

수업기간 : 기초, 중급, 고등반 속성 6개월(60강).
연구반 특강(실용범패, 예법, 북, 역학, 경전) 강의.
이후 전문,연구반으로 편입 계속 수업을 받을수 있음.

• 개강일 : 2023년 3월 10일 오후 2시
• 장 소 : 경남 양산시 주진로 205

통도소리 전수자 양산 불광사
영축 영남범음범패 불교대학
정산 석청봉(직,010-4848-0056번)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종 합 향 : 130.000원
• 선 향 : 80.000원
• 불 향 : 10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 가루향(도향) : 90.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7

▶한줄요약
이주석 기자와 송 서화가는 인도에서 만난 오오스마 기자와 심 작가와 함께 종정에게 편지를 보냈던 천추사원 조실스님을 만나 화재로 죽었다는 금어와 그의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금어의 죽음과 그 아들의 존재를 확인

뉴델리에서 며칠 ①

사원은 조금 높은 둔덕 위에 지어져 있었다. 입구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았다. 차에서 내려 사원을 올려다보았다. 그 위용이 대단했다. 정말 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언젠가 런던에 있는 휴 사원의 모습을 그림으로 본 적이 있었다. 그 사원을 도안한 사람이 짓지 않았을까 할 만큼 절묘하게 닮았다. 허공 높이 올려진 지붕.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과 단단한 벽들. 지붕은 하늘로 대담하게 솟아올랐는데 그 자제가 벽옥인지 대리석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작은 기둥들이 빙둘러서듯 지주를 감싼 모습이나 날개 달린 새들과 말하는 것 같은 원형 지붕은 마치 단단한 기둥 위에 올라앉은 피조물처럼 보였다. 어떤 장인이 값비싼 건축자재들로 저러한 모습을 일구었는지 나는 그저 아름답구나 하는 탄성만 연신 내질렀다.

-정말 크고 아름답군요?

송 서화가의 말에 오오스마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답지요?

-우리의 전통 사원과는 판이하게 다르네요?

-성당과 절 그 중간 사이…?

송 서화가의 말에 오오스마 기자는 그렇게 대답하고 고개를 갸웃했다.

-정말 신심이 절로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랬다. 나는 그렇게 말하며 사원의 창문을 바라보았다. 햇볕을 받은 창문은 찬란한 별빛처럼 눈에 부셨다. 여느 절과는 달랐다. 사천왕상들이 먼저 보일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았다. 다양한 형태의 그림들이 보였다. 커다란 두 개의 창문이 서로 마주 보고 있었는데 한쪽은 천국의 무사들이, 한쪽은 지옥의 지배자들이 서로를 견제하는 자세로 그려져 있었다. 그 창문으로 마침 햇볕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의 거대한 발광체였다. 엄청난 빛무리가 반대편 창문을 향해 쏟아지는데 일다원융이라고 해야 할까. 천국과 지옥이 함께 얼크러지는 것 같은 느낌에 나는 어질 현기증까지 느꼈다.

절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은 극락이다. 그런데 극락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내가 서구문명 그것도 기독교적 사고에 길들어 있기 때문일까?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서구적으로 그림이 그려진 것만은 분명하다. 분명히 저 그림을 맡았던 화가는 서구적 신식문물에 길든 사람이 분명해 보인다.

-완전히 한국의 절과는 다르네요. 이건 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성당도 아니고…. 조선식 문양으로 짜인 문이 아니라 그림으로 수놓아진 창문과 대리석벽? 저 그림들, 누가 그린 겁니까?

내가 오오스마 기자에게 물었다. 그의 입에서 의외의 대답이 흘러나왔다.

-바로 제 아들에게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지안 금어가 들어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금어가 그린 그림?

내가 알기에 금어라고 한다면 전통적 기법에 충실한 사람들이다. 언젠가 평생을 불화에 바친 금어를 취재한 일이 있었다. 그때 안 것이지만 본시 불화의 세계에는 불통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된 체형과 격식이 있었다. 단청장만 하더라도 문화(文畵)라 하는 초본(草本)이 있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물려주는 그림본이라는 게 그것이었다. 그러므로 금어는 그림을 그릴 때 초본을 밑에 놓고 모사한다. 그런 다음 색을 입힌다. 그러므로 사찰의 그림이 하나 같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저 그림들은 여느 절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었다. 체형과 격식에 따라 그린 그림이 아니었다. 오늘날까지 전승 발전되어 온 도제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한 그만의 독특한 양식과 기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법통을 정면으로 거부해 버린 그림이었다. 전통적인 기법에서 완벽히 탈피한 그림. 그래서 더 서구적, 나아가 기독교적으로 보이는 것인지 몰랐다. 분명히 전통적 불화를 그리던 금어가 그린 그림이 아니었다. 그림 중에서도 서양화를 제대로 전공한 화가의 그림임이 분명했다. 금어의 나이가 육십이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의 아들이 이제 이십 대 말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의 영향을 받았다? 종정이 보았다는 젊은 청년. 그 청년이 바로 그가 아닌가. 그런데 그 청년이 제 아버지를 죽였을지 모른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오오스마 기자를 쳐다보았다.

-저 그림들을 그린 금어 말입니다. 육십이 넘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전통적 기법에서 벗어난 것 같아서요.

금어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는지 오오스마 기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말은 들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긴 하였지만 그렇게 죽기에는 정말 아까운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 그림만이 아니라 이 사원설계에도 참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절을 설계할 때부터 참여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늙은 금어의 그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혹시 그분의 아들도 그림을 전공한 사람인가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제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수발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의 아버지는 나이가 들긴 하였지만, 건축학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러잖아도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원이라고….

그렇군요 하는 말이 나오려다가 쑥 들어갔다.

-천추라. 천국의 가을! 그러고 보니 천국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가 정말 들리는 것 같네.

송 서화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들어가 보십시다.

오오스마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걸음을 좀 더 빨리했다.

사원 안으로 들어서면서 나는 손으로 벽을 쓸어보았다. 분명 흰 돌이었다. 흰 돌들이 기름을 칠한 것처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데 틈이 없다. 하나하나의 돌들이 모여 이루어졌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하나의 연속체로 결합한 것처럼 보였다. 도저히 사람의 솜씨 같지 않았다.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돌덩어리 같았다. 그 단일한 실체들이 연속적으로 사원 안까지 이어졌는데 한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붉은색이다. 금니선(金泥線)이 둥근 원으로 물결쳐 흘러간다. 휘돌아 뻗어나가는 선들이 전통 문양의 초본에 의한 것이 아니다. 흐르고 있지만 강약이 분명하다. 그래서인지 매듭이 맺혔다 풀리면서 끝없이 이어진다. 한 가닥이던 선이 둘이 되고,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이윽고 셀 수 없어지더니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었다. 그 위로 일어나는 그 무엇. 서기라고 할까? 감이 범치 못할 기운. 서기가 둥근 원으로 흘러 들어간다. 둥근 원들이 서기로 꽉 차 있다. 거기서 일어나는 생생한 기운…. 탄생과 소멸…. 연생(緣生)과 연멸(緣滅)….

그렇게 이어지던 벽이 어느 한순간 뚝 끊어지면서 정원이 나타나자 나는 꼭 꿈속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서구적 형식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지금 뭘 본 것일까?

이내 본당이 나타났다. 내가 본 벽화는 본당에 들기 전에 거쳐야 하는 건물에 그려진 그림이었던 것 같았다. 나무가 어우러져 여기저기 피어난 꽃들이 눈부셨다.

-저 스님.

지나가는 스님에게 조실스님을 좀 만나러 왔노라고 오오스마 기자가 말했다.

스님이 고개를 갸웃하였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본당 앞을 지나가는 사미를 발견하고는 손짓으로 불렀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조실스님 돌아오셨느냐고 물었다.

다가온 사미는 찢어진 눈으로 일별하고는 탐탁찮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오오스마 기자를 아는 눈치였다. 자주 찾아오자 그런 것 같았다.

내가 조실스님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서 일부러 왔다고 하자 그제야 조실스님이 조금 전에 돌아왔다며 앞장을 섰다.

우리를 인도해 간 사미가 이름 모를 꽃이 피어 어우러진 그늘 밑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본당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별채였다. 꽃나무가 심어진 곁에 기독교에서나 볼 수 있는 조각상이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합장하고 선 모양이었는데 동양인이 아니고 서양 사람이었다. 신부복을 입은 조각상이었다.

-조실스님 뵙자고 합니다.

사미의 소리에 어느 한순간 쉰 듯한 음성이 방안에서 달려 나왔다.

-무슨 일이냐?

-손님들이 왔기에 모셔 왔습니다.

-손님?

잠시 후 사미에 의해 문이 열렸다. 방 안의 스님이 우리를 훑어보았다. 중늙은이였다. 키가 작았고 몸이 비대했다. 햇살 때문일까 안경알이 파르스름하게 빛났다. 콧등이 유난스레 솟아올랐다. 눈썹이 뭉툭 먹으로 찍어놓은 것처럼 시커멨다. 꽉 다문 입술이 고집깨나 있어 보였다.

우리는 그에게 우선 묵례를 보냈는데 생긴 모습이 고상하지를 못해서인지 이 사원을 총괄하고 있는 조실 같아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그에게 한국에서 나온 기자임을 밝혔다. 더 말하지 않아도 왜 기자들이 자신을 찾는지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짓다가 서 있는 사미에게 일렀다.

-가서 차 좀 내오너라.

-네.

-들어오세요.

내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송 서화가와 심 작가, 오오스마가 뒤따라 들어왔다.

실내는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꽤 넓고 아늑했다. 맞은편 벽에 달마도가 걸렸고 경전 한 권이 올라앉은 좌상 하나가 보였다. 그 위에 목탁이 놓여 있었다. 이쪽 벽으로 승복 한 벌이 걸려 있을 뿐 참으로 장식이라곤 없는 방이었다.

-앉으시오.

조실이 앉기를 권하였다.

-한국에서 나오셨다고?

넷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야 조실이 물었다.

-갑작스럽겠습니다만 한국의 종정 예하께서 이곳에서 보내신 전문을 보시고….

-아 아 그렇구먼요.

-그래 왔습니다.

조실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나는지라…. 내가 메일을 보낸 것이외다.

-제가 듣기에는 금어스님이 불에 타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렇소이다.

-아들이 함께 있었다고 하더군요?

-맞소이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뭐 숨길 것도 없다는 듯이 조실스님이 대답했다.

-그럼 그 아들은 지금?

조실스님이 머리를 내저었다.

-여기 없소이다.

-그럼?

-평소 스리나가르에 묻혀 있는 지혜의 검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았나 하고 있소. 제 아비와 이곳 불사를 하면서도 그곳에 자주 드나들었으니까.〈계속〉

전통불교전문 강원 학인 모집

본사에서는 출가 수행자들의 각행원만과 종지종풍을 확립하고
도제양성을 위해 강원학인(신입, 편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및 자격(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 치문반 : 00명, 태고종, 타종단 승적 보유자
▶ 사집반 : 00명, 본사 강원 치문 수료자
(본사 강원 휴학, 자퇴자 가능, 단 퇴방 조치자는 불가)
▶ 사교반 : 00명, 본사 강원 사집 수료자
(본사 강원 휴학, 자퇴자 가능, 단 퇴방 조치자 불가)
※ 사집, 사교반은 본종 승적 보유자에 한함.
※ 학과 내용 : 강원 정규교과 外 서예, 특강, 불공습의, 제반의례의식
※ 특전 : ① 장학금 매년 100만원 지급
② 대교반 졸업 후 선원 입방 자격 부여
※ 제출 서류
① 입학원서 1부(본사비치, 입방시 작성가능)
② 승적원부 사본 1부
(타종단 동일, 본종 47기 수계자는 수계증 사본)
③ 가족관계 증명서 1부
④ 건강 진단서 1부
⑤ 사진 4매
⑥ 입방비 50만원 (강원 교재비 포함)
※ 입방 일자 :
2022년 12월 31일~2023년 3월 1일 까지
(입방일로 부터 습의과정 3개월 필요함)
☎ 연락처
본사 종무소 : 061) 754-5247 / 5953
강 원 : 061) 754-5954
010-3789-5247

전통불교강원 부설 특별강원(통학가능)

종단 구애(拘礙)없이 모든 스님(비구,비구니,사미,사미니) 수강생 모집 안내

종단에 구애(拘礙)없이 모든 스님(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들에게 선교양종대본산(禪敎兩宗大本山)인 조계산 선암사에서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시간이 없어 교육을 못 받는 스님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시대에 맞는 교육을 통한 불교계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고, 승려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찰에서 통학을 하면서 주 2일 수강 하는 선암사 전통불교강원 부설 특별강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강 일시 : 2023년 3월
▣ 강의 일정 : 매주 수, 목요일.(1박 2일, 1일 2시간)
▶ 첫째날 - 14:00 ~ 16:00 (2시간)
▶ 둘째날 - 03:30 ~ 04:40 (아침예불)
05:20 ~ 06:00 (발우공양)
09:00 ~ 11:00 (2시간)
※ 개인사정에 따라 매일 통학 가능
(코로나19확산 시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과목
▶ 1학년(치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 2학년(사집반) : 서장, 선요, 도서, 절요
▶ 3학년(사교반) : 능엄경, 원각경, 기신론, 금강경
▶ 4학년(대교반) : 화엄경
▶ 공통 : 의식, 외전(교양, 문화 등)
▣ 강사 : 선암사 전통강원 강주 목우스님, 강사 각안스님, 외래 초빙강사: 불교문학박사 법우스님, 철학박사 혜월(안유숙) 전법사
▣ 수강료 : 한 학기(6개월) 600,000원.
농협 351-0422-9291-33 예금주:선암사
▣ 특전
▶ 통학하며 수강.
▶ 4년 수강시 선암사 강원장(주지) 명의 졸업증서 수여
한 학년 수강 시 해당 학년의 수료증서 수여
▶ 타 교육기관에서 해당 학년 과목 이수자는 상위학년 편입학 가능
▶ 수강일 새벽예불, 발우공양 실시(희망자에 한 함)
▶ 타종단 승려도 수강 가능
▶ 성적 우수자에게는 각종 장학금 지급
▶ 졸업 후 선암사 선원 안거 자격 부여
▶ 졸업 시 선지도자 자격증 수여
▣ 등록서류 : 입학원서 외 (입학원서에 명시되어 있음)
▣ 등록마감 : 2023년 2월 28일
※ 입학원서는 선암사 홈페이지(www.seonamsa.net)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문의전화 061-754-5247, 5953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주지·강원장 시 각 | 57909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 061-754-5247, 5953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❹ 공간 상징 上



▶한줄요약
방위를 정하는 것은 그에 맞는 자리를 임하기 위함이다.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약속

방위의 설정

우리는 실제의 자연 방위와 무관하게 공간을 인식한다. 동서, 남북, 좌우 등으로 공간을 설정하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이며 일종의 약속이다. 공간을 체계적인 세계로 구조화하는 것이기에, 출발점을 잊어버리면 질서가 흐트러지고 만다. 상징적인 의례를 행하면서 공간의 약속을 반영하지 않거나, 합당하지 않게 설명하여 혼란을 가중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공간에 대한 인식을 2회로 나누어 풀어나가고자 한다.

동양문화권의 방위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쪽을 설정하는 일이다. 실제 방위와 무관하게, 그 공간의 주인공이 자리한 곳을 북쪽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모신 불단이 북쪽에 해당한다. 유교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이다. 신위(神位)를 모신 곳이 북쪽이니, 같은 공간에서도 제사상을 놓는 위치에 따라 방위가 바뀌게 된다.

법당에서 불단을 정하고 나면 이에 따라 출입문의 위치와 내부를 구성한다. 자연히 북쪽을 기준으로 서쪽에 영단을 구성하고, 동쪽에 신중단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불단과 맞은편의 직선거리에 있는 모든 공간을 '어간(御間)'이라 부른다. 이 공간은 신성한 영역에 해당하여, 일반인은 어간문으로 드나들 수 없고 양 측면 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법당은 삼단체계로 구성된다. 법당에 부처님, 신중, 영가를 모시는 구조는 한국 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는 유교이념이 지배하던 조선시대에 불교가 처한 현실과 깊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사찰의 존속은 제사 개념과 결합함으로써 가능한 시대였고, 이에 따라 하단이 중요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양한 전각을 확장하기 힘들어, 주 법당에 여러 기능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작용했으리라 짐작한다.

따라서 신심 깊은 신도들은 법당에 들어오면, 상단 · 중단에 이어 영단에도 절을 올리며 영가와 고혼의 천도를 빌어주고 있다. 법당은 불교에서 신앙하는 모든 초월적 존재를 모신 가운데,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통합적 의례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법당의 서쪽에 두는 영단의 위치는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다. 해가 지는 서쪽은 죽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서방정토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곳은 번뇌도 고통도 없는 이상세계로, 불자들은 누구나 그곳으로 가기를 꿈꾸는 것이다. 이는 유교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곳을 북방으로 보아, 무덤을 북쪽에 두는 것과 차이를 지닌다.

법당 외벽에 반야용선(般若龍船)을 그리는 것도, 법당 전체가 서방정토를 향하는 반야용선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먼바다를 건너 피안의 정토가 있어, 인로왕보살이 이끌고 여러 불보살이 지켜주는 가운데 불법을 수호하는 용이 힘차게 헤엄쳐 나아가는 것이다. 법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곳이니, 그 가르침을 새기며 살아간다면 누구든 정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방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반야용선. 신륵사 극락전 외벽화 ©성보문화재연구원

반야용선이 나아가는 방향 또한 언제나 '서방'이 된다. 법당 안과 똑같이 마주한 곳을 북쪽으로 삼아 배는 서쪽을 향해 고해(苦海)를 달리는 것이다. 따라서 법당의 영단을 서쪽이 아닌 곳에 둔다면, 이러한 총체적인 상징체계 또한 힘을 잃고 만다.

동서의 원리

이러한 구도는 그림 속에서도, 사찰구조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먼저 불화를 살펴보면, 감로도(甘露圖)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감로도의 중앙에는 천도재를 지내는 장면이 있고, 위쪽에는 이들을 구원하는 여러 불보살이 배치되어 있다. 나머지 장면은 윤회하는 육도 존재의 다양한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감로도에는 서방정토로 안내하는 역할의 '인로왕보살'이 반드시 등장하는데, 그가 위치한 곳은 늘 화면의 서쪽이 된다. 따라서 그림을 바라보는 이들은, 서방정토에서 옷자락을 휘날리며 영가를 인도하기 위해 내려오는 인로왕보살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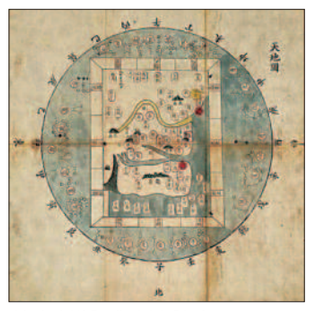
동과 서를 함께 표현한 그림을 살펴보자. 약사불은 중생의 병고를 치유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재난에서 구제하는 역할을 지닌 부처님이다. 약사불의 양쪽에는 해를 상징하는 일광보살, 달을 상징하는 월광보살이 협시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속의 일광보살은 해가 뜨는 동쪽에, 월광보살은 해가 지는 서쪽에 그리게 마련이다.

두 보살은 각기 붉은 해와 흰 달을 상징으로 삼고 있다. '용주사 대웅전 후불탱화'에는 두 보살이 쓴 보관(寶冠)에 해와 달을 그렸고, '범어사 대웅전 벽화'에는 각자 들고 있는 연꽃 위로 해와 달이 떠오른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동학사 삼성각 칠성도'의 두 보살은 해와 달을 양손으로 안고 있는 독특한 모습을 지녔다.

법당 서쪽 영단은 중요한 상징
번뇌 · 고통 없는 이상세계 뜻해
옛 사람들의 공간 부여 상징은
음양과 방위 · 좌우로 이해 가능

이러한 법칙은 전체 사찰구조에서부터 적용된다. 사찰의 배치 또한 실제 방위와 무관하게, 상징적으로는 본전(本殿)을 북쪽에 남향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전에 진입하는 세로축을 중심으로 동서가 구분되고, 본전의 맞은편은 자연히 남방이 된다. 이처럼 사찰구조, 법당구조, 그림 속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세부구조가 전체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되풀이되는 프랙털(fractal) 원리를 지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영주 부석사의 건물 배치는 독특하다. 부석사는 천왕문에서부터 본전인 무량수전에 이르기까지, 3단계에 걸쳐 9단의 석축을 쌓았다. 그 정점에 무량수전을 두고 서방 극락정토를 다스리는 아미타불을 모셨다. 이는 하생 · 중생 · 상생의 3생에 각각 하품 · 중품 · 상품을 둔 '구품왕생'을 뜻한다. 아홉 단계를 거쳐 궁극에 이르는 극락정토 사상을 건축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무량수전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안양루의 '안양(安陽)' 또한 불교에서 극락을 일컫는 이름이다.



성인의 방향에서 본 천지도. ©국립중앙박물관



법당(북)을 중심으로 동서를 결정함. 칠장사 대웅전 ©성보문화재연구원

무량수전도 다른 사찰과 마찬가지로 북쪽에 자리해 남향한 법당이지만, 내부에 모신 아미타불은 특이하게도 법당 밖에서 봤을 때 서쪽에 좌정해 있다. 일반적으로 법당의 방향과 불단의 방향이 같지만, 무량수전은 다른 것이다. 이는 사찰의 전체구조에서 아미타불이 서방에 머문다는 의미를 부각한 것이라 하겠다.

좌우의 주체

공간 인식에서 중요한 것은 동서남북의 설정뿐만 아니라 좌우의 개념이다. 불상이나 불화에서 협시를 설명할 때는, 주존을 중심으로 '좌우'를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주존의 방향에서 봤을 때 좌측은 동쪽이고 우측은 서쪽에 해당한다. 좌측은 근본이 되고 우측은 작용을 나타낸다고 하여, 이를 '좌체우용(左體右用)'이라 부른다. 이러한 관념은 유교문화권에서 성인남면(聖人南面), 즉 성인이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는 배북향남(背北向南)의 방위를 중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공간에서 좌우 개념을 주체와 무관하게 읽으면 혼동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사례로써 살펴보면, 조선시대에는 전라도 · 경상도 · 충청도 등의 각 도를 남북으로 나누지 않고 좌우로 나누어, 전라좌도 · 전라우도라 표현하였다.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전라좌도'라 하면 당연히 서쪽의 평야지대를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실제는 반대로 전라좌도가 동쪽의 산악지대를, 전라우도는 서쪽의 평야지대를 일컫는 것이었다. 이는 왕이 있는 궁궐에서 바라봤을 때 동쪽이 좌이고 서쪽이 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인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좌청룡 우백호'라는 용어가 있다. '남주작 북현무'와 함께 사방을 지키는 사신도(四神圖)에서 나온 말로, 좌우에서 든든하게 보호하는 존재를 나타낸다. 오행에 따르면 '동쪽=청색, 서쪽=백색'이니 청룡(靑龍)은 동쪽, 백호(白虎)는 서쪽이다. 성인의 자리에서 남향했을 때 좌측에 동쪽을 상징하는 청룡이 오고, 우측에 서쪽을 나타내는 백호가 오게 되는 것이다. 복잡한 듯하지만, 방위는 변하지 않으니 주체만 염두에 두면 된다.

이에 대해 미술사학자 허균 선생은 전통건축을 사례로 핵심을 짚은 바 있다. 왕릉과 서원의 삼문(三門)을 출입할 때는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나오는 '동입서출(東入西出)'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안내판에는 이를 "오른쪽(동)으로 들어가고 왼쪽(서)으로 나온다"고 풀이해놓아,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입출 개념 또한 공간의 주체를 중심으로 정의된다.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입은 '들어간다'가 아니라 '들어온다', 출은 '나온다'가 아니라 '나간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쪽을 오른쪽, 서쪽을 왼쪽으로 설명한 것 또한 객체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라 맞지 않다고 보았다. 대다수 시민의 편의를 위한 설명이지만 공간의 질서에는 어긋나는 셈이다.

아울러 이러한 설정은 인사(人事)를 천계의 운행질서와 나란히 하기 위함이라 보았다. 옛사람들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 서쪽으로 지는 것을 '좌선(左旋)'이라 표현하였다. 운행 시작점은 동쪽, 즉 왼쪽이고 종착점은 서쪽, 즉 오른쪽이 된다. 들어온다는 것은 문 안의 생활이 시작됨을 뜻하고, 나간다는 것은 안에서의 일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동문(왼쪽)을 입문으로, 서문(오른쪽)을 출문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공간의 동서와 좌우는 음양(陰陽)의 원리를 기반으로 함은 물론이다. 음양 사상은 상반된 두 기운이 상호작용하여 만물의 근원을 이루게 된다는 이론이다. 대표적인 양의 기운은 하늘 · 해 · 정신 · 생명 · 동쪽 · 남자 · 홀수 등이 해당하며, 이에 대응하는 음의 기운은 땅 · 달 · 육체 · 죽음 · 서쪽 · 여자 · 짝수 등이다.

그렇지만 음양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청색은 백색과 함께하면 양이지만, 적색과 함께하면 음이 된다. 낮이 지나 밤이 되고 밤이 지나 아침이 오듯이,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음양은 어느 하나만으로 존재할 수 없이 합일된 세계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방위를 정하는 것은 그에 맞는 자리에 임하기 위함이다. 옛사람들의 공간에 부여한 상징은, 음양의 원리와 함께 방위 · 좌우의 설정을 이해하면 쉽게 읽을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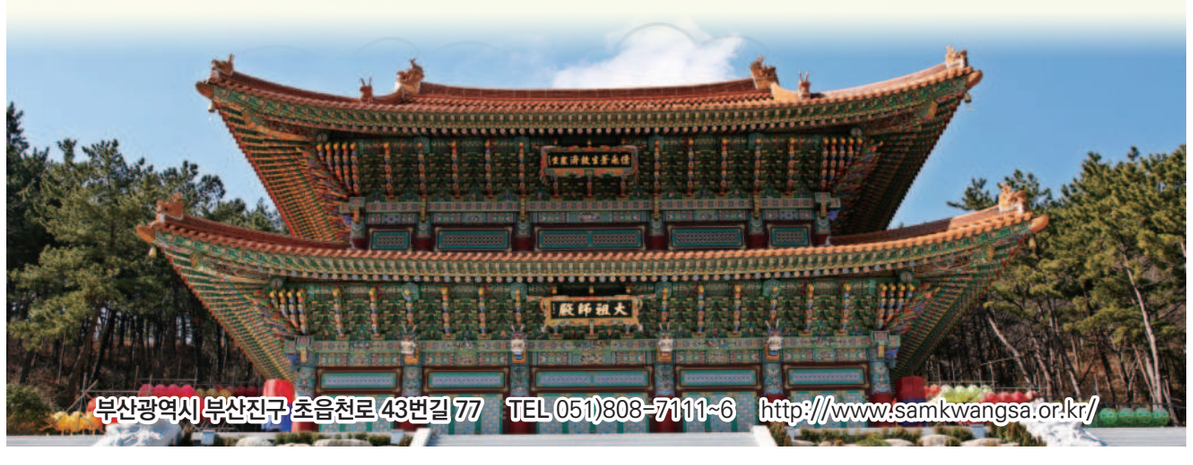
봉행 대조사전 상월원각대조사 존상 봉안 및 낙성대법회

◈ 상월원각대조사 존상 점안식
▶ 일시 : 2023년 3월 10일 오전 10시
▶ 장소 : 삼광사 대조사전

◈ 대조사전 낙성대법회
▶ 일시 : 2023년 3월 10일 오전 11시
▶ 장소 : 삼광사 대조사전

주 지 영제 스님
교 무 덕중 스님
재 무 무성 스님
신도회장 이 경 훈
사부대중 일동 합장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43번길 77 TEL 051)808-7111~6 http://www.samkwangsa.or.kr/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현대불교신문

NAVER 현대불교신문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2004-8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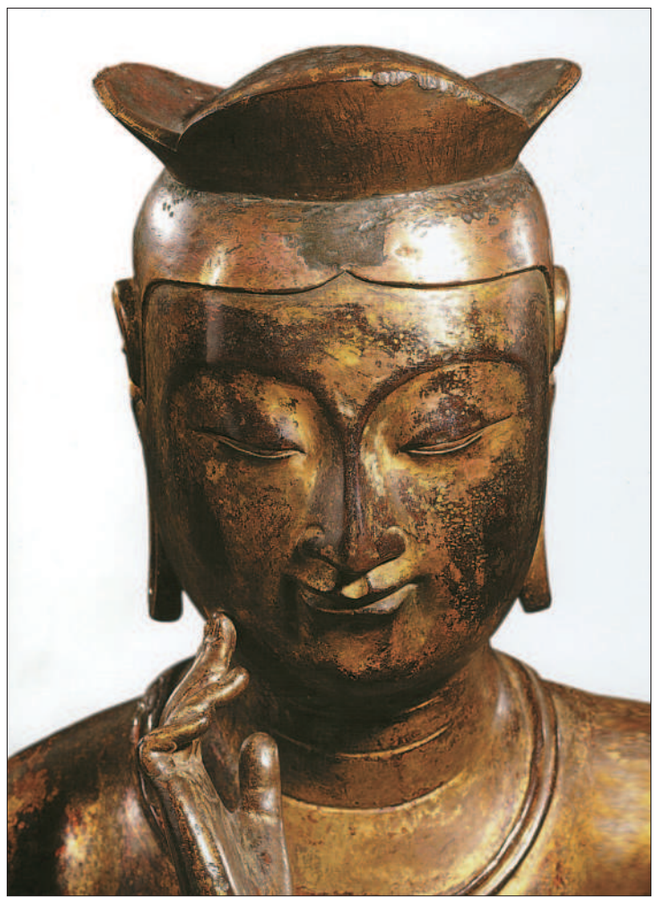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❹ 연화화생의 원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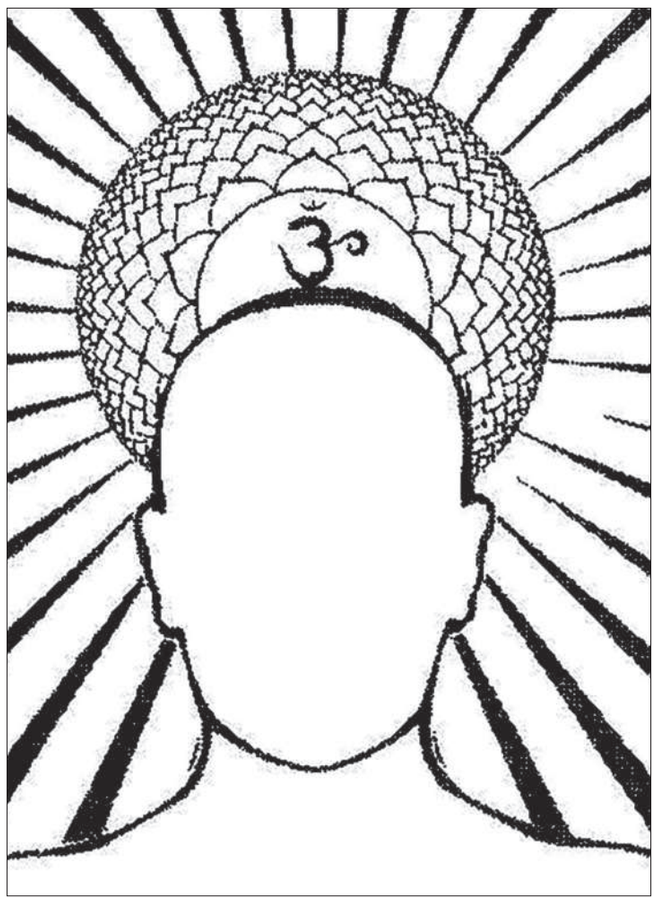
▶한줄요약
불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도상 중에 하나가 광배이다. 광배는 머리 뒤에 동그랗게 표현하는 두광(頭光)과 몸 전체에 표현하는 신광(身光)으로 나뉘는데, 특히 두광의 광배는 연꽃 모티프가 기본이 된다.

천 잎 연화대엔 1천 부처님이 계신다

극락왕생 또는 연화화생이란 '업장을 맑히고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무명(또는 업장)을 얼마만큼 맑혔나에 따라, 〈관무량수경〉에는 9품(9등급)으로 나뉘어 왕생한다. 이에 극락왕생을 9품 왕생이라도 한다. 업장을 맑힌 자리에는 깨달음이 드러난다. 청정해진 바탕에서는 청정한 에너지가 피어난다. 이것을 연꽃이 피어나는 것에 비유하기에 '연화화생'이라고도 한다. 시커먼 무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투명한 연꽃에서 태어났다는 말이다. 중생은 업장의 습(習, 되풀이하여 행하다)대로 세세생생 자궁에 들어가 태생(胎生)의 과정을 통해 태어나는 것을 무한반복하고 있다. '무명을 바탕으로 태생' 하는 '무명태생.' 그 반대말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화생' 하는 '연화화생'이다.



그림① 붓다의 머리에는 연꽃이 피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국보 '반가사유상' 부분.



그림② "연꽃이 만개하면 머리에 빛의 왕관을 형성한다" 깨달음의 연꽃이 열린 모습 도안.

마음의 정화 방법 '위빠사나'

석가모니 붓다는 기나긴 고행 수행 끝에 육체를 극심히 괴롭히는 것은 도에 이르는 길이 아님을 깨달았다. 해탈을 이루려면, 육체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간파한 석가모니 붓다. 여기서 마음은 오염된 마음(업장 · 불선업 · 부정업 · 무명 · 무의식 · 말라식 등의 지칭도 가능하다)을 말한다. '사자후의 긴 경' (MA.i.12)에는 붓다께서 언급하신 인간이 청정해지는 유일한 방법이 공개되어 있다. "어떤 이는 윤회에 의해 청정해진다고 하고, 어떤 이는 재생(再生)에 의해 청정해진다고 하고, 어떤 이는 머무는 곳(住處)에 의해 청정해진다고 하고, 어떤 이는 제사에 의해 청정해진다고 하고(후략)." 하지만, 청정해지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성스러운 통찰지'의 증득이다.

당시 알려진 모든 수행 방법을 철저히 이행해 보았으나, 결국 존재를 초월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했던 붓다. 붓다는 마침내 붓다만의 방법을 발견하신다. "나는 참으로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도닦음과 그러한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증득하지 못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리고 붓다만이 유일하게 터득한 정답이 나온다. "그것은 성스러운 통찰지를 증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통찰지를 증득하면 성스러운 해탈로 인도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자는 바르게 괴로움의 멸진으로 인도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스러운 통찰지란 '위빠사나 통찰지(vipassanā-paññā)'를 말한다.

"위빠사나의 통찰지를 증득했기에 도의 통찰지를 증득했다. 이와 같이 내가 91겁 동안에는 위빠사나의 통찰지를 증득하지 못했기에, 출세간인 도의 통찰지를 증득하지 못했다.(MA.ii.51)" 위빠사나 통찰지, 붓다께서 91겁의 윤회 끝에 증득하신 비밀이다. 여기서 요즘 수행인들 사이에서는 '사마타(선정) 수행이냐' 또는 '위빠사나(통찰지) 수행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듯 오해가 있는데, 붓다께서 말씀하신 통찰지는 선정의 바탕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온건한 수행이 될 수 없다. 붓다가 제시한 수행과정이 '계(戒) · 정(定) · 혜(慧)'로 요약되는 만큼, 사마타(정)와 위빠사나(혜)는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는 보완관계라 할 수 있다.

천 잎 연꽃과 솔방울(송과체)

업장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해탈의 길이기에, 궁극의 불성을 '청정 법신'이라고 하고 또 거기에 이르는 길을 '청정도(淸淨道)'라 하고, 그 방법을 써놓은 경전을 〈청정도론〉이라고 한다. 업장을 청정하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모습을 불교미술을 통해 살펴보자.

업장이 맑혀진 자리, 깨달음과 하나 된 자리에는 연꽃이 핀다. 이는 닫혀있던 의식이 열리는 모습이다. 마치 꽃봉오리가 열리는 모습과도 같다. 여기서 연꽃이란 실제 지구상 식물로서의 연꽃이 아니라 '깨달음의 꽃'을 말한다. 연꽃이 열리는 것과 깨달음이 열리는 것은, 물론 크기와 밀도 그리고 장엄의 수준에 있어서, 반딧불과 번갯불의 차이만큼 크겠다. 하지만, 중생의 세계 속에서 비견할 만한 것이 연꽃이다. 그 모양새에 있어 가장 유사하기에 연꽃은 불교의 꽃으로 채택되기에 이른다. 가톨릭교에서는 깨달음이 열리는 모양새를 솔방울(송과)에서 찾았다. 그래서 가톨릭의 센터인 "바티칸 중심부에는 예수나 마리아의 거대한 조각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거대한 솔방울 모양의 상이 있다.(〈Inner Worlds, Outer Worlds〉)" 여러 겹의 꽃받침 또는 씨앗 받침이 중층으로 닫혀 있다가, 한꺼번에 벌어지는 모습이다. 다시 말해, 신성성이 열리는 모습을 동양문화에서는 연꽃에서, 서양문화에서는 솔방울에서 모티프를 빌려와 종교미술의 핵심 상징으로 삼았다.

> **불상 필수 도상 중 하나가 광배**
> **두광 광배, '연꽃 모티프'가 기본**
> **반가사유상 불두에도 연꽃이 활짝**
> **깨달음 봉우리 열리니 우주와 합일**

서양학자들은 일찌감치 인간의 뇌 중앙에 있는 송과체(松果體: Pineal Gland, 솔방울샘 · 송과샘 · 송과선으로도 불림)에 주목했다. 머릿속의 작은 봉오리 모양의 이것이 마치 솔방울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7세기의 유럽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데카르트(Descartes)는 그의 첫 저서 〈인간에 관한 논문(Treatise of Man, 1637)〉와 마지막 저서 〈정념론(The Passions of the Soul, 1649)〉에서 송과체에 대해 언급하며, 이 부위를 "영혼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principal seat of the soul)"라고 명명했다. 송과체는 신성한 에너지의 매체로서, 그 신비한 작용으로 인해, 형이상학적이며 초자연적인 이론들과 함께 '불가사의한 분비샘'으로 간주되었다. 해부학 · 심리학 · 철학 · 종교학 등의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연꽃이 만개하는 모습 '다메크 스투파'

최초의 연꽃 미술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붓다 초전법륜지로 유명한 인도 사르나트에는 거대한 조형물 '다메크 스투파'가 있다. 초기불교미술을 대표하는 불탑으로 무려 34m의 높이를 자랑한다. 붓다가 최초로 설법한 장소에서 우리는 초대형 연꽃을 만날 수 있다. '다메크 스투파'의 거대한 원형 기단에는 연꽃잎 8개가 둘러 있는데, 연꽃이 만개한 형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로 원형의 기둥이 솟아있다. 멀리서 보면 초대형 연꽃이 열리고 거기에서 빛이 분출하는 모습이다. "그 순간에 범천의 세상에 이르기까지 그 소리는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 만 개의 세계는 강하게 흔들렸고 요동쳤다. 측량할 수 없는 광휘로운 빛이 나타났으니 그것은 신들의 광채를 능가했다.(〈초전법륜경〉)" 깨달음의 순간을 기술한 대목을 보면, 어머어마한 진동과 빛의 분출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총 7개의 차크라(존재를 만들고 유지하는 에너지가 모이는 중심점) 중 궁극의 제7차크라(백회 차크라)가 열릴 때는 나머지 6개의 차크라가 모두 용해되면서, 최고의 진동수의 파장이 일어난다"고 한다. 즉, 깨달음의 꽃이 열릴 때는 무량한 파장과 무량한 빛이 나타난다. 이것을 조형화한 것이 '다메크 스투파'인데, 닫혀있던 봉오리가 열려 연꽃이 피고 그 가운데에서 '측량할 수 없는 광휘로운 빛'이 솟구치는 모습이다. 빛의 원통 기둥은 지금은 많이 허물어졌지만, 7세기에 이곳을 방문했던 현장 법사의 기록에 따르면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다"고 한다.

반가사유상 머리에 핀 연꽃

우리가 익히 아는 '반가사유상' (삼국시대, 국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①). 사유하는 젊은 붓다의 머리위에는 연꽃이 활짝 피었다. 깨달음의 봉우리가 열린 것이다. 세세생생 닫혀있던 봉오리가 열려 우주의식과 합일하는 순간이다. 연꽃잎은 한 겹, 여러 겹, 천 겹 등 근기에 따라 겹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그 규모도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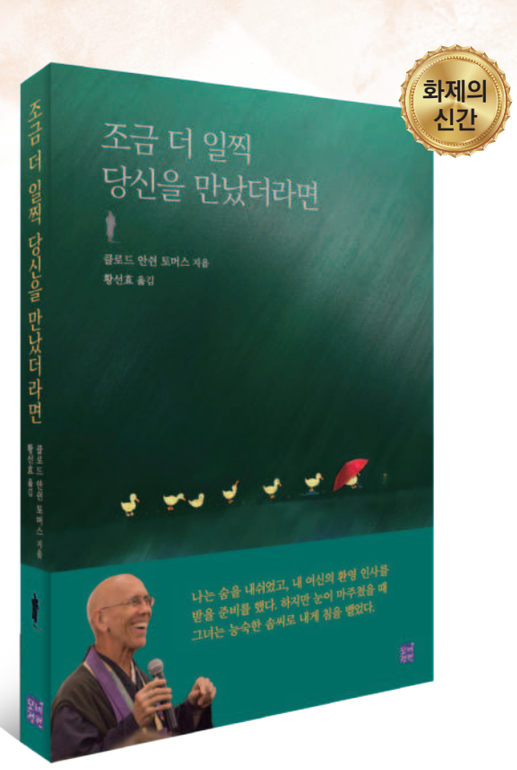
〈화엄경〉과 〈범망경〉에서 누차 언급되는 "천 잎의 연화대"라고 들어보았을 것이다. "연화장 세계는 커다란 연꽃이 피어 있듯/ 천 잎의 연화대는 천 잎이 각각 한 세계가 되고/ 그곳에 화현한 일천 석가모니불이 계시다.(〈범망경〉)" 불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도상 중에 하나가 광배이다. 광배는 머리 뒤에 동그랗게 표현하는 두광(頭光)과 몸 전체에 표현하는 신광(身光)으로 나뉘는데, 특히 두광의 광배는 연꽃 모티프가 기본이 된다.

"태초의 신성한 원리와의 합일성을 경험한다./ 우리의 개인적인 에너지 장은 우주와 하나가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인식 대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왕관 차크라가 완전하게 일깨워지면/ 우주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업은 끝나게 되고/ 그것은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한다./ 하나의 연꽃이 만개하여, 말하자면, 머리 위에서 순수한 빛의 왕관을 형성한다.(샤릴라 샤라먼, 보도J. 베진스키)"

빛의 왕관은 연꽃의 보관으로, 연꽃의 광배로 구현된다. 이렇게 연꽃 왕관이 열리면,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존재로 전환된다. 즉, 항상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왕의 자리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화제의 신간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이안의 Media In Buddha ⑩ 영화 〈다음 소희〉



▶한줄요약
전북특성화고 여학생 '소희'(이시은)가 콜센터에 현장실습 나가 딱 다섯 달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실제 사건을 다룬 〈다음 소희〉는 이제 시대의 목탁처럼 대중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영화가 되고 있다.

AI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고객님

1963년 6월 11일 오전 10시 남베트남 사이공 도로 한가운데에서 불길이 솟았다. 사람 몸에 지펴진 불길이었다. 평생에 걸쳐 30여 개의 사찰을 복원해 온 틱광득 스님이 스스로의 몸에 기름을 붓고 몸을 사른 그 '소신공양'의 뜻을 밝혀온 틱광득 스님이 마침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핀 현장은 사진작가 말콤 브라운의 카메라를 통해 전세계에 알려졌다.그러고서야 사람들은 돌아보았다. 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 최대이자 최악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베트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를. 베트남 정치에 개입한 서양의 영향이 종교를 통해 불교의 억압이라는 폭력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알리기 위한 소신공양 앞에서도 극우 정치인들은 '중의 바비큐라니 재미있네'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제 틱광득 스님의 소신공양은 베트남 불교, 베트남 민중의 자유를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널리 존경받고 있다.

자살을 테러의 수단으로 쓰며 순교로 보는 종교도 있지만, 불교도 이렇게 '대승적으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자살을 옳지 않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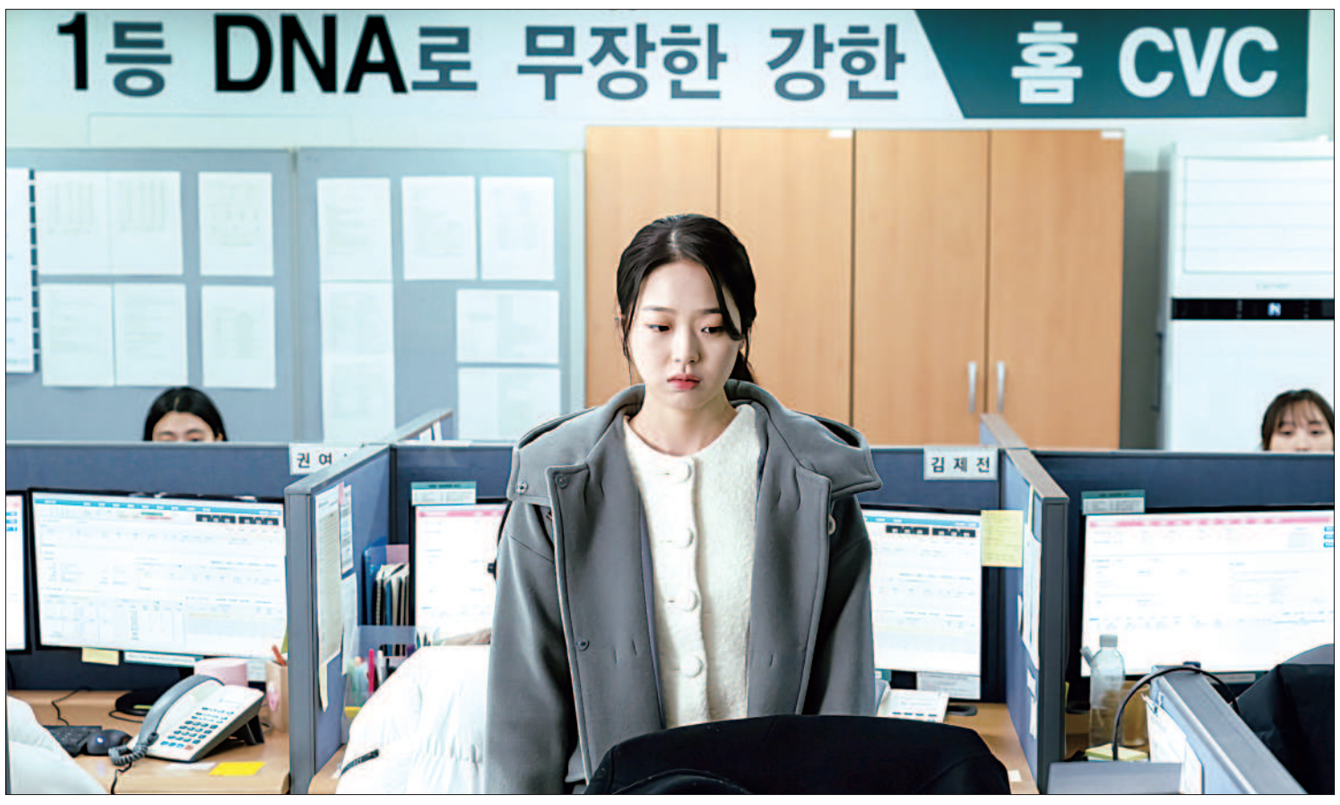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인 자살은 불교에서 여러 계행 중 가장 먼저 강조하는 불살생(不殺生)의 계이다. 어떤 생명도 해치는 행위는 허락되지 않는 계에서 말하는 생명에는 자신의 목숨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살 또한 살인과 다르지 않은 죽음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자살은 고통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죽은 이가 생전에 지은 업의 과보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살생의 업까지 더해져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살 자체는 스스로에게 지은 행위이지만 그 죽음을 누군가 보고 듣고, 수습하고, 애통해하는 동안 다른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추가적인 업력을 보태게 된다고 한다.

자살은 바른 생각과 판단에서 결론 내려진 행위인 정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계의 상실, 바른 견해의 상실로 인한 행위이기에 죽음 이후에는 업으로 과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이며 청소년과 청년(10대~30대) 사망원인 1위도 자살이다. 10만 명 당 24.6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11명보다 2배 이상이 자살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업보가 아니라 이미 사회의 업보일 것이다. 내몰리고 내몰린 삶의 벼랑 끝에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의 폭력을 감당하지 않으려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에게 비명이 들리게 하려면,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가혹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죽음은 이미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틱광득 스님처럼 대승적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에 대해 우리는 죽은 이를 탓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의 공업이 저지른 죄를 탓할 것인가? 죽음의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하는가?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두드린다.



정주리 감독의 영화 〈다음 소희〉 한 장면.

개봉 첫 주 이후에는 관객이 줄어드는 것이 보통인 극장가에서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닌 사회드라마가 제작비 맞먹는 홍보마케팅 비용을 들이는 것도 아닌데 〈다음 소희〉를 보려는 관객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은 예외적 현상이다. 10개 넘은 상영관 갖춘 멀티플렉스들이 오락영화, 블록버스터 영화에 좋은 시간 스크린 몰아주고 예술영화나 독립영화에는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띄엄띄엄 상영한다고 생색이나 내는 극장 상황에서 극장을 단체로 빌려 관람하려는 모임, 영화를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는 모임, 혼자 보고 또 보는 사람들이 내는 입소문은 예사롭지 않다.

전북특성화고 여학생 '소희'(이시은)가 콜센터에 현장실습 나가 딱 다섯 달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실제 사건을 다룬 〈다음 소희〉는 이제 시대의 목탁처럼 대중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영화가 되고 있다.

2017년 1월, 전주에서 대기업 통신회사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갔던 고등학생이 3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모름지기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교육의 연장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도 제주 생수공장, 여수 요트 업체, 고양시 화훼 농장 등 업종이나 지역 가릴 것 없이 여러 곳에서 학생들이 죽어나갔다. 왜? 현장실습 학생들을 교육실습생이 아닌 노동력, 그것도 폭력과 착취로 쥐어짜면 되는 값싸고 부리기 편한데다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안 되는 일꾼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콜센터 실습 여고생 5달 만에 자살
학교, 기업 등 악업 카르텔이 원인
'소희' 죽음, 자살 아닌 사회적 타살
〈다음 소희〉 사회의 공업을 비판해

이런 반교육적, 반인권적, 반생명적 파견노동의 책임은 실습생을 받은 현장 고용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현장, 정부기관, 그들에게 악업이 닿는 모든 관계들이 함께 져야 한다. 그 켜켜이 쌓이는 악업, 구조적 문제, 사회적 책임의 결을 하나하나 들추며 우리 모두에게 부끄러움을 일깨우는 영화가 바로 〈다음 소희〉다.

형사 '유진'(배두나)은 열여덟 살 고등학생 '소희'가 현장실습에서 겪은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이었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소희'가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것들은 학생이 겪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다.

현장실습생에게 물어서는 안 되는 실적에 대한 압박 앞에서, 전화기 너머에서 언어로 던져지는 희롱과 폭력 앞에서, 부당한 현장 문제에 대해 "내 얼굴 봐서 참아"라는 학교 선생님 앞에서 소희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모든 통화, 모든 일의 시작이 되는 곳에서 점차 자신의 말을 잃고, 아무에게도 자신의 속내를 알리지 않은 채 스스로 생을 접은 소희의 죽음은 얼핏 흔한 자살 사건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다.

그런데 한 순간의 짧은 우연한 연으로 '소희'와 스친 적 있었던 형사 '유진'은 이 자살사건을 흔한 청소년 자살로 쉽게 마무리 지으려 하지 않는다. 유진은 소희가 다녀갔던 곳을 거꾸로 되짚어 가며 소희가 느꼈을 고통, 소희가 받았을 압박, 소희가 맞닥뜨린 외면, 소희가 넘지 못한 권력, 소희가 도저히 돌파할 수 없었을 촘촘한 관계망들을 한 겹, 한 겹 들춰낸다.

소희가 보낸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대한 답은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고 뒤집어씌우는 기업의 몰염치, "적당히 하십시다. 그래서요? 이제 교육부 가실랍니까? 그 다음은요"라며 발뺌하고 거리 두는 교육청의 무책임, "개인의 성격 탓"으로 수사를 종결하려는 경찰의 무관심 뒤에 콜센터와 한 번이라도 통화를 해보았던 적이 있는 우리 모두를 세운다.

현장이 학생을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해본 적도 없는 학교 선생님은 하청 업체인 콜센터도 명색은 대기업이라며 소희가 그 학교 출신으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여야 한다고 윽박지른다. 학생의 앞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사로서의 자신의 실적과 학교의 실적을 위해서. 실습나간 현장에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실패자라며 '빨간색 조끼'라는 낙인을 씌우는데 어떤 학생이 현장을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지키기 위해 상품에 대한 어떤 불만, 서비스에 대한 어떤 지적, 그러다 터지는 어떤 언어폭력 앞에서도 개인을 내비치지 말라는 족쇄가 된다. 우리가 흔히 '친절'이라고 하는 콜센터 직원의 응대는 기업이 가진 결함을 들키지도 인정하지도 말라는 주문이다. 그런 친절이 막아내지 못하는 불만은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고, 실적 평가는 사회적 평가로 이어질 것이다.

친절을 지켰다는 자부심이나 고객을 행복하게 했다는 만족감이나 기업의 이익을 지켰다는 성취감 따위는 느낄 여지도 없이 욕설 앞에서 자존감을 버리면 주어지는 몇 푼어치 인센티브 앞에서 감정을 죽이고 또 죽여야 한다. 어떤 근로계약에도 '을'에게 감정에 대해 조건을 걸지 않건만 이 사회에서 '감정노동'이라는 표현이 일상화된 것은 기괴하다. 근로계약에서 용역이라고 일컬어지는 노동에는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감정'이 근로계약의 조항이 될 수 있는 것이었으면 별도로 그에 합당한 가치평가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감정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식당에 가서는 '욕쟁이 할머니'의 욕설이 구수하고 맛나다며 단골 삼는 사람들이 AI도 아닌 사람을 욕받이로 삼기 일쑤다. 이 사회가 이미 근로계약을 통한 노동자든,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습을 나온 학생이든 '현장'이라는 일터에 서게 되면 협의된 노동 이외에 모든 인격과 감정까지 기업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오늘날, 200만 명이 일하는 약 4조 원대 규모의 서비스 산업이 된 콜센터는 화장실에 가려면 손을 들고 허락을 받아야 하고, 모든 통화내역은 감청 심사를 받아야 하고, 노동 시간 내내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감시대상이 되어야 하고, 어떤 무리한 질문이나 요구에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원 000입니다.'로 시작과 끝을 맺어야 하는 콜센터는 오늘날 가장 가혹한 노동 현장 가운데 하나다.

"학생이 일하다 죽었는데 누구 하나 내 탓하는 사람이 없다"고 유진이 되뇌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제목이 '소희'가 아니라 〈다음 소희〉가 된 것이다. 영화에서 사건을 짚을수록 유진은 무력감을 느끼지만, 이 무력함 앞으로 대중을 불러 모은 정주리 감독은 소희의 죽음을 개인이 스스로에게 저지른 살생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목탁으로 울리도록 한다.

감독 자신이 영화 안에서 가장 아끼는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을 한다고 더 무시해"라는 대사에서 이미 소희는 자신의 희생 '다음에 올 소희'들을 위한 존중을 당부하고 있다. 소희의 죽음이 헛된 희생이 아니게 만들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소희, 다음 소희, 그 다음 소희들 모두가 우리의 공업이기 때문이다.

〈영화평론가〉





“모래로는 밥 짓지 못해”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⑧ 수행의 근본

〈원문〉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고하셨다. “일체중생이 시작을 알 수 없는 옛적부터 가지가지로 뒤바뀐 업의 종자가 악차취(惡叉聚)와 같으니라. 수행하는 사람들도 위 없는 보리를 이루지 못하고, 성문이나 연각이 되거나 외도나 하늘의 마왕(魔王)이나 마의 권속이 되는 것은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고 착각하여 바로 닦아 익히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서 미진수 같은 겁을 지나도 될 수가 없느니라.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아난아, 하나는 시작이 없는 생사의 근본이니 지금 너와 중생들이 반연(攀緣)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심성을 삼는 것이요, 둘은 시작이 없는 보리와 열반의 원래 청정한 본체니 지금 너의 식정(識精)의 원래 밝은 것이 능히 모든 반연을 내었는데 그 반연으로 원래 밝은 것을 유실해 버렸느니라. 모든 중생이 이 본래 밝은 것을 잃어버린 탓으로 종일토록 수행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 윤회하는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느니라.”

〈강해〉

대승 경전에서는 한결같이 수행의 최후 완성된 경지가 이승(二乘) 곧 성문(聲聞)이나 연각(緣覺)의 경지가 아니라 한다. 〈능엄경〉에도 성문이나 연각은 보리도를 이루지 못한 미완성의 경지라 하여 성문이나 연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중생들의 업종자가 악차취와 같아서 수행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주지시키고 두 가지 근본을 모르고 수행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아 미진수 겁을 지나도 수행을 이룰 수 없다고 하였다. 악차취는 인도에 있는 식물 이름인데 떨기를 이루어 자라는 식물로 열매가 세 개씩 한꺼번에 떨어져 한 곳에서 같이 싹이 난다고 한다. 중생이 미혹으로 인하여 업을 짓고 그 결과 괴로움을 받는 혹(惑)·업(業)·고(苦)가 악순환하는 것을 악차취에 비유해 말한 것이다. ‘시작이 없는 생사의 근본’이란 무명주지(無明住地)를 말하는 것으로 식심(識心)이 일어나는 미혹한 마음을 두고 말한 것이다. 〈능엄경〉에서는 미(迷)를 자주 말하는데 중생이 미혹한 마음을 본래 마음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에서이다.

다시 말해 반연하는 마음을 참 마음으로 안다는 것이다. 반연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근(六根)이 육진(六塵)을 상대할 때 일어나는 육식심(六識心)이다. 이는 모두 망상심이고 번뇌가 유발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의 정체를 바로 아는 것이 미(迷)를 오(悟)로 전환하는 것이다. ‘식정(識精)의 원래 밝은 것(識精元明)’이란 식(識)의 순수한 알맹이를 나타내는 말로 이른바 불성(佛性)을 말하는 것이다. 식에 망상의 습기가 붙지 않은 순수한 알짜가 식정(識精)이다. 망상은 식(識)에 붙은 껍데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식정이 반연의 대상이 되는 산하대지 등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정보(正報)인 중생 쪽에서는 불성(佛性)이라 하고 의보(依報)인 우주 만유 쪽에서는 법성(法性)이라 한다. 이는 마음의 진여(眞如)를 성품으로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중생의 본래 마음이 진여이다. 진(眞)은 거짓이 아니라는 뜻이고 여(如)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생사가 거듭되는 중생의 갈래를 취(趣)라 하는데 육도(六道)를 달리 육취(六趣)라고도 한다. 업을 지어 그 과보로 태어나는 곳이다. 불교는 수행의 목적을 생사해탈(生死解脫)이라 하여 윤회를 멈추고 끝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성불하여 보리와 열반을 증득하면 윤회를 벗어나는데 이때 식정의 청정한 본체가 회복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불이라는 것이 본래의 청정한 자리를 회복하여 돌아가는 것일 뿐 본래 없던 것을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중생이 미혹되어 있기는 해도 본래는 누구나 청정한 불성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로 그 불성(佛性)을 놓고 말할 때는 부처와 똑같아 평등하다는 것이다. 다만 본래의 불성을 모르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한 것이다. 이 장(章)의 대의는 수행에 있어서 먼저 두 가지 근본을 바로 알고 수행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육근원통법 가르쳐주는 보현보살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⑧ 자비관

원행지를 하면서 암마라식이 돈독해지면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본제의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상태에서 밝은성품을 운용하니 본성과 각성 밝은성품이 서로를 여의지 않는다.

본제와 본연을 함께 주시하면서도 다가오는 경계를 져버리지 않는다. 돈독한 쌍차쌍조로서 삼신구족행이 임의롭게 이루어지니 이 과정을 부동지라 한다.

부동지에 들면 암마라식이 완성을 이룬다. 그렇게 되면 9식으로 이루어진 눈·귀·코·입·몸·생각이 갖춰진다. 처음 초지보살이 되었을 때 갖추고 있던 해탈지견은 각성이 주체가 되었던 진여식이다.

암마라식은 각성이 주체가 된 의식이 아니다. 암마라식은 불공여래장이 만들어낸 진여식이다. 열아홉 번째 자비관이 행해진 것이다.

보살이 생멸문을 제도해서 불공여래장을 이루게 되면 불공여래장은 진여식을 이루는 6근이 된다.

불공여래장으로 이루어진 6근을 갖추게 된 8지 보살은 그 때부터 육근원통을 배우게 된다. 육근원통은 육근을 10식으로 전환시켜가는 방법이다. 9식의 암마라식을 10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불세계를 인식하기 위해서다. 육근원통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보현보살이다.

보현보살은 8지 보살을 대상으로 육근원통법을 설하시는 보살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현보살행법경〉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진다. 육근원통을 통해서 원통식이 갖춰지면 이때가 바로 선혜지를 증득한 때이다. 스무 번째 자비관이 행해진 것이다.

육근원통을 이룬 9지 보살은 천안통과 천이통, 숙명통과 타심통으로써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때 중생제도를 더 크고 넓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밝은성품으로 생멸문 전체를 덮어버린다.

보살의 밝은성품이 생멸문 전체를 덮게 되면 생멸문의 모든 중생들이 밝음을 얻게 된다. 각성이 깨어나서 스스로를 보게 되고 번뇌가 쉬어져서 지복감을 느끼게 된다. 다툼이 사라지고 경쟁심도 없어진다. 보살이 이런 성취를 이루게 되면 법운지에 들었다 한다. 법운지를 성취한 보살을 10지 보살이라 한다. 스물한 번째 자비관이 행해진 것이다.

법운지에 머물러서 제도된 생멸문은 불공여래장이 된다. 이때가 바로 대자비문이 성취된 때이다.

본제관을 통해 성취한 대적정심과 대자비문이 한자리를 이루면 이때가 바로 무량의삼매가 증득된 때이다.

대적정이 바탕이 된 공여래장과 대자비가 바탕이 된 불공여래장을 하나로 합쳐서 불이문을 이루면 이때가 바로 등각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공여래장과 불공여래장이 불이문을 이룰 때에도 자비관이 행해진다.

대적정의 적멸상과 불공여래장의 원통식이 합쳐질 때 무심처를 바탕으로 그리움을 일으키는 것이 이때의 자비관이다. 무심처가 중심이 돼서 적멸상과 원통식을 함께 껴안으면 이 상태가 불이문이다. 무심처를 바탕으로 적멸상과 원통식이 서로를 여의지 않은 상태가 등각도의 상태이다. 스물한 번째 자비관이 행해진 것이다.

등각보살이 묘각도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자비관이 쓰여진다. 이때의 자비관을 憶佛法(억불법)이라 한다. 억불이란 부처님을 그리워한다는 말이다. 묘각을 이루는 두 번째 과정이 억불이다.

억불이 스물두 번째 자비관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스님의 〈능가경〉 강설

⑧ 무상하기 때문에 사물

사물은 머무르지 못해

사물이 눈에 비치게 되면 사물은 크게는 유(有)의 존재성, 무(無)의 존재성 그리고 유무가 아닌 비존재성의 존재성, 이렇게 세 가지의 모양으로 중첩되어 나타난다. 이 중에서 유무가 아닌 비존재성의 존재성만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감각기관은 사물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눈으로 보는 유의 유, 의식으로 보는 무의 유만을 사물의 모습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엄청난 착각인 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공하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논리에 어리둥절하기만 할 뿐이다.

우리의 의식은 개체의 의지에 의해 정보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무수한 데이터에 의해 정보가 저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사실을 사람들에게 장맛비처럼 퍼부어도 소용이 없는 일이 되어 버린다. 그렇다고 소통을 그만두어야 하는 일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통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금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일에 대한 판단을 멈추는 데 있다. 이것이 멈추어져야 의식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고, 유무가 아닌 비존재성의 존재성에 대한 믿음을 낼 수 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물의 본 모습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저울질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번민하는 일들을 계속 쌓아 가게 된다.

모든 사물은 좋고 나쁜 것으로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다. 모든 사물을 좋고 나쁜 것으로 판단하려는 그 마음을 바르게 보는 일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 잡아 두고 집착하는 마음으로 인해 번민이 생기는 것이지, 번민을 일으키는 대상과 사물은 실재에는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 그대로의 상태를 공(空)이라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오온의 일으킴에 반응(번민)함이 없는 것이 무생이며, 그리고 다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찾음이 없어진 것이 자성을 떠나는 것이 된다.

“소위 공공(空空)이라고 말하는 것은 망상자성(妄想自性)의 법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공이라 말하는 것 역시 공이라는 의미네. 망상자성(妄想自性)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 공(空), 무생(無生), 무이(無二), 이자성상(離自性相) 등의 법상을 말하는 것이네.”

이러한 모든 개념들이 설명되더라도 여기에 진공(眞空)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논리를 마무리하고야 만다. 이것이 서로가 알아야 하는 진리이고 사실이 되어야 한다. 행여나 여기에서 진공(眞空)에 대해 서로의 주고받음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토끼뿔을 보았다고 서로 인정하는 우스운 꼴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부처님과 대혜대사의 문답은 그것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만들고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는 본질을 드러나게 하여 서로 주고받는 언어에 매몰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양에는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프레임에 갇혀있다. 그리고 모양의 진실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효율적인 생각에 바탕을 두고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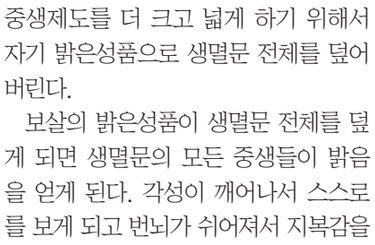
우리의 의식에 남아있는 전식은 올바른 정보가 저장되어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올바른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일체법에서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것이 생겨나지 않는다. 사물에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거나 근심이 일어나고 있다면 사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직 없는 것과 같다. 사물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하였다면, 우리는 사물에 대한 두 가지의 견해를 가질 수도 없고, 사물에 대한 어떤 것도 버릴 수 없다는 앎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물에 무상의 이름이 붙는 것이 아니라, 무상하기 때문에 사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법당서 본사 견본으로 ...

소리비교 순간! 너무나 달라진 스님 염불소리에 혼란스러운 보살들이 법당으로 몰려오며 스님 염불소리다! 아니다! 테프 소리다! 확인하는 소동! .... 이때 비교만 하고 신속히 사라지는 이유 ...
권한다고 다 사준다면 재벌이 따로 없기 때문! .... 비교시 장난감차이 확인!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했지만 고장없음, 만일 고장이 난다면 입소문 때문에 장사를 고만 두어야 함, 시설비 190만원 ~ 수 천만원까지 장기할부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귀 법당소리와 비교시 장난감 수준 차이! 소리비교비용은 커피한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원톱 시스템 다목적 방생용
한번에 최고의 성능을 구입하시면 절약 속에 후회가 없다는 뜻!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시중에 없음
염불시 마이크와 2m 멀리서도 소리 월등
스탠드 분리형

시중에 없음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가격 65만원
▣ 한국사찰 각종 “재” 전문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공희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25호 | 17 | 전면광고

다른 사람이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알아보려고 애쓰지 말고
항상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지 그른지를 알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2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밑 주차가능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 - 부지 : 450평
- 건평 : 약 100평
- 산 밑 주차가능 - 매가 : 30억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 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 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344~43번지
- 대 지 : 500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20평
- 가 액 : 5억

010-3640-3128

암자 (급) 안내

- 위 치 : 경북 경주시 감포읍 (문무대왕릉 5분 거리)
- 공기 좋고, 바다뷰 일품
- 대 지 : 407평, 건평 1.2층 70평
- 주 택 : 1층 방 3개, 화장실 2개, 2층 큰방, 욕실, 법당
- 100m 지하수 완비
- 가 액 : 6억원(동해 용왕기도터)

010-3000-5359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5천만원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지 : 약 600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스님 노환으로 급매
- 집기류는 그냥 주고 갑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10-2366-2821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 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3천 2백만원(2개월 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3582-8975
010-5511-7000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쌍정길 99-8 불국정사
- 대지 : 206평, 건물 : 전통사찰형태 2층 콘크리트 건물,
  1층 : 방4, 주방, 욕실(40평)
  2층 : 법당(30평), 산신각(5평)
  정원 : 5층석탑, 스님 건강상 급매
- 가액 : 3억원

010-2611-65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가액 : 3억 3천만원 (부동산 전화 사절)

010-5530-5866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 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 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허가 득
- 가액 12억

010-5421-1536

사 찰 안 내

경기도 가평군 중미산 자락에 위치한 절입니다. 남향으로 전망 좋고, 법당도 넓고 깨끗하여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 1층 82.53㎡ (방 3개, 부엌, 거실), 2층 82.53㎡ (법당, 방, 베란다)
- 보증금 3천 월세 80만원, 권리금 없이 모든 시설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직접 보실 수 있음)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160

010-2551-3752

사찰 (급)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
- 대지 200평, 임대부지 약 300평, 법당 10평, 산신각 2평 용왕각 6평, 요사채 20평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일억 오천(조정 가능) 와서 보시고 결정하세요.

010-375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사찰(급)안내

김해시 안동 6거리
창건 30년, 도량 270평,
매일 재개발로 들썩들썩
가액 11억
보상은 후임자의 몫으로

010-6898-9114

생활안내 · 불자정보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산뜻해 졌습니다.
글자 크기가 커졌습니다.

POINT 01 광고 가독성과 정보전달을 위하여 크기를 1.5배 키웠습니다.

POINT 02 불자정보 기본 5cm ➡ 6cm로 커졌습니다.

POINT 03 생활안내 기본 4cm ➡ 6cm로 커졌습니다.

문의 | 010-4648-8200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대지 143평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당일 법회 가능, 현재 운영중입니다. 노스님 몸이 약하신 관계로 양도 법사님, 보살님도 인연 맺습니다.

010-4180-17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상대동 3층 중 2층
- 법당 34평, 삼존불, 신중탱화, 산신당, 방1개, 화장실
- 보증금 5백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됨

010-7476-9002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진주
- 대 지 : 약 50평
- 건물 3동
- 뒤에 배 밭이 있음
- 가 액 : 6천 5백만원

010-7506-860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 8백평
- 건물: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10억

010-4547-0023

포교원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시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4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733, 3층
- 평수 : 총 25평
- 보증금 300, 월 25만원

010-6449-1342

암 자 안 내

- 위 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4길 23
- 대지 102평, 2층 법당 15평, 1층 생활관 34평
- 가액 : 9천5백만원

010-4156-3779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남 금산 추부
- 대 지 : 280평, 임야 : 50평, 총 330평
- 삼성각 : 7평, 전통 기와 목조건물
- 법 당 : 22평, 경량골 철골
- 요사채 : 슬레이트 지붕, 블록, 방 5개, 거실, 주방, 화장실
- 대전 옥천 15분 이내(교통 편리)
-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경치 좋은 곳
- 가 액 : 2억 5천만원, 대출 5천만원

010-3875-6305

암자토굴(급)안내

- 위 치 : 경북 영주시
- 시내에 인접해 있으며, 소공원 완공 후 포교당으로 적절한 장소임
  언덕에 위치해 있어 전망이 좋음
- 건물 2동, 대지 82평, 법당, 요사채, 마당
- 가 액 : 9천 8백만원(가격 내렸음)

010-5538-5570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 218쪽 |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 292쪽 |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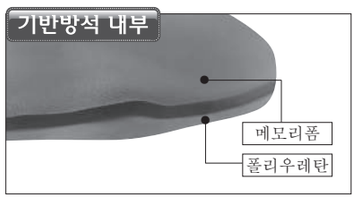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25호 | 18 | 전면광고

세간의 악들이 치성한 후에 악한 행이
없어지고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며
여러 악한 행이 다하여 진실되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계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영산범음집 3판 증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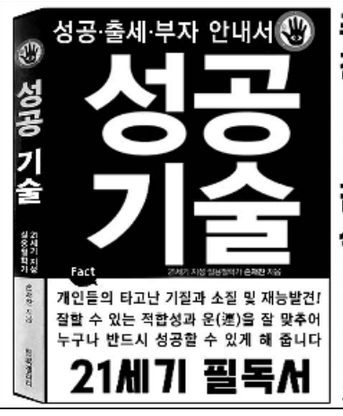
A4 320페이지 특수용지 2중 배접

1. 의식편-천도의식, 종사영반, 상용영반 관음시식, 구병시식
1. 해설편-의식문 자체가 한자로 되어있는바 전문(全門) 한글로 해석
2. 악보편-옹호게, 거불성, 산화락 등 바라춤, 각종진언 사물장단 수록

※※영산범음집 한 권으로 상용 재의식을 집전할 수 있으며 시종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게 되어있음 책의 마지막엔 지금까지 보시하신 스님과 사찰명단 수록

정가 50,000원 유튜브 '영산범음집'검색 전 과정 동영상 제공

010-3842-1040 범패연구소



추천-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고찰터 중창주, 지장보궁 정진도량 산내암자

노승이 비구나 비구니를 2~3명 중 주지자리를 물려주고 평생 보장함, **큰 암자 도량이니 2~3명의 조계종 스님을 찾고 있습니다.**

소백산 지장보궁 경북예천
054-653-1180, 010-6353-1180

경남 사천시 기도스님 공양주 처사(불목) 모십니다.

010-8961-5489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부전스님 공양주 모십니다.

010-2078-9595

강원도와 충북 제천 사이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에 위치한 사찰(절)에서
염불기도로 업장은 소멸하고 몸과 마음은 힐링하며 후회 없는
회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부처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나이, 학력, 성별 상관없이 출가를 하실분 모십니다.

연락처 010-8945-1424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결혼상담소

나랏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인연만나 행복을

010-5624-1365
02-306-7988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33-336-2309 / 010-4804-2309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양도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효민의
서도로 새기는 경구

④ 염불(念佛)



부처님 미소와 함께하는 공덕

오늘은 '염불(念佛)'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念(생각할 염), 佛(부처 불), 부처님의 모습과 공덕을 생각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일, 사전적 풀이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약사여래불 등등. 중요한 사실은 염불을 한다는 그 자체가 공덕 속에 포함되어 있고 또 염불을 하면 호흡이 평상시보다 10배 정도 더 길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불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심호흡이 되고 맥박이 평상시보다 느려지게 되므로 마음이 안정되고 장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염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방법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 자체에 의존하지 말고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부처님의 법신과 공덕과 덕성을 생각하며 부처님 명호를 입으로 외우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열반의 도리를 얻게 되지 않을까요?

염불하는 사람에 따라 깊은 마음으로 염불하는 사람, 산란한 마음으로 염불하는 사람, 시간과 장소에 가리지 않고 염불하는 사람 등이 있겠지만 그 중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명을 진리로써 충만하게 해 주시고 대자비 큰 은혜로 키워주시는 것을 믿고 마음의 눈으로 보듯이 오직 일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우리일상의 생활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언제 어디서나 일심으로 하는 우리가 되뇌는 단어를 통해 성불하시고 실천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불국정토 이루시고 제자로서의 복 다 받으시면서 부처님의 미소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 만들어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석가모니불.

〈서예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㉗ 이승애의 '雨요일'

'어떻게 살 것인가'는 선택의 몫

雨요일/ 이승애

길가 목마른 나무들
서두르지 않아도 골고루 공양을 받는다
하늘이 차려준 빗방울 밥상이 푸짐하다

불이 꺼진 디지털플라자 간판
불이 켜진 서부병원 간판도
먼지 낀 얼굴을 씻고
모처럼 비를 떠먹는다

무량으로 내리는 비

불빛에 반사된 풀잎들은
방울방울 빗방울 연등을 켜고
굽은 등을 펴고 있다

굵어진 빗발들이
짙은 어둠을 건너가는 소리

탁발하듯 자동차 불빛이 따라간다

골목에 젖고 있는 폐지들
빗방울 경전을 읽는 중이다

(이승애 시집, 〈둥근 방〉, 도서출판 지혜, 2022)

그것참, "폐지들"이 "경전을 읽"고 있다니, "골목에"서 (빗방울에) "젖고 있는 폐지들"이 "빗방울 경전을 읽"고 있는 중이라니, 놀랍다. 아니, 절묘하다. 이쯤 되면 이 "폐지들"은 이제, 폐지들이 아니다. 할머니들이다. 할아버지들이다. 우리들이다. '시인의 눈'이 아니면 도저히 발견해낼 수 없는, 이 땅의 (가난하고, 병들고, 낡고, 찢어진) 중생들이다. 하지만, 그 어떤 간난에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해탈'[解脫, 성불(成佛)]을 위해 수행하는 이 땅의 불제자(佛弟子)들이기도 하다.

수행에는 특별한 시공(時空)이 필요치 않다. 모든 곳이 수행처다. 모든 곳이 '불교 하는' 곳이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정진하는 것, 그것이 참 수행이자, 참 수행자의 모습이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이승애 시인은 "골목에(서) 젖고 있는 폐지들"을 보았을 것이다. 자비와 연민의 불심(佛心)이 가득한 이승애 시인의 시안(詩眼)은 그것을 그것으로, 그냥, 넘겨버릴 수가 없었을 터, 이 시인은 그 순간 "폐지들"에서 굽은 등으로 리어카 가득 폐지를 수미산처럼 싣고 휘청휘청 좁은 골목길을 밀고 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 순간 이 시인의 시적 마음이 저절로 작동해, 젖은 "폐지들"이 "빗방울 경전을 읽는 중"이라고 탄성을 쏟아낸 것이다. '빗방울 경전'이라는 은유도 신묘하다. 객관적 상관물을 통한 시적 깊이도 깊이지만, 이 한 구절만으로도 이 시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자비와 연민의 불심과 시에 대한 열정(열망)을 느낄 수 있다.

이승애 시인의 그런 삶은 1연에서부터 스스럼없이 드러난다. '비 오는 날'[雨요일, '비 오는 날'을 '雨요일'로 표현한 것도 퍽 재치 있다], '하늘'(부처님)이 푸짐하게 차려준 '빗방울 밥상'을 골고루 '공양' 받는 "길가(의) 목마른 나무들", 그 나무들이 바로 고집멸도의 우리 중생들이고, 그 '빗방울 밥상'은 우리 중생들에게 곧바로, 감로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감로수는 이승애 시인의 마음에 항상 흐르고 있는 생명수(연민과 자비)다. 그것도 '무량'으로. 여기서 잠깐 생각나는 〈법화경〉 '제5품 약초유품' 한 토막. "빽빽한 구름이 가득히 퍼져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고 일시에 단비가 고루고루 흡족하게 내리면, 모든 초목과 숲과 약초들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잎새와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새와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새와 크고 작은 나무들이 상중하를 따라서 제각기 비를 받는데,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는 그 초목의 종류와 성질에 맞춰서 자라고, 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느니라."라는 대목이다. 이 시인은 분명히 〈법화경〉 '제5품 약초유품'에 평소에도 가랑비에 옷 젖듯 젖고 살았을 것이다.

"불빛에 반사된 (비에 젖은) 풀잎들"을 "빗방울 연등"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승애 시인의 시적 내공과 연혁을 보여준다. 이만큼의 내공을 쌓기 위해선 (습작 등) 이 만큼의 연혁을 갖고 있으리라, 의태어인 "방울방울" 역시 '불이 켜져 있는' 연등을 연상시켜 읽는 이들의 의식을 즐겁게 한다. " '탁발' 하듯 자동차 불빛이 따라간다"는 중의적 표현 역시 마찬가지. 깊은 사색과 분석과 인식 없인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시적 해석이다. 그렇다. 승려는 한마디로 '걸사'(乞士)다. '빌어먹고 사는 사람'(거지)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교를 창시한 뒤 '탁발을 강조하고 강조한' [걸식(乞食)] 것은 '무소유'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출가=승려=걸사=무소유'였던 것이다. 이승애 시인은 그것을 이 시에서 절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생각. 이승애 시인은 왜, 한 행에 불과한 "탁발하듯 자동차 불빛이 따라간다"를 한 연으로 비중 있게 처리했을까? 어떤 속셈으로 이렇게 배치했을까. 이승애 시인이 던져준 그 의문과 의도를 생각하며 이 시를 읽는 것도 이 시를 읽는 큰 즐거움이자 행복이다.(모든 시가 다 그렇다. 시인이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고 인식했는가를 생각하며 시를 읽으면, 아무리 난해한 시라도 시 읽기가 훨씬 쉽고 즐겁고 행복하다. 시를 보는 안목도 매우 높아진다.) 그 의도는 바로 앞 연인 5연에 내재하고 있다. '거대한 자연'("굵어진 빗발들이/ 짙은 어둠을 건너가는 소리") 앞에 '현대문명'("자동차 불빛")은 초라하기 짝이 없고, 오히려 그보다 더 초라한 '폐지'가 '빗방울 경전'을 읽고 있는 중이라고 반전함으로써 이 시는 논리 너머의 논리를 획득하며 멋들어진 시로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는 은밀한 사회적 풍자성도 갖고 있다. "골목에 젖고 있는 폐지들"마저 자신들을 젖게 하는 "빗방울"들을 "경전" 삼아 공부(수행)하고 있는데, 현대문명("자동차 불빛")만 숭상하는 당신들은 뭣하고 있냐고 점잖게 호통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폐지'가 됐어도 '폐지'로 살지 말고 수행하듯 정진하듯 삶의 '경전'을 읽으며, 충만하게 살자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 삶의 내용과 무게는 풍요와 권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맛과 질'로 결정된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선택의 몫이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바이러스 급성뇌염이 앗아간
쥬안이의 웃음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퐁·스엉씨 부부의 1살 딸 쥬안
급성뇌염 이어 간질까지…치료비 걱정에 시름만 깊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박태수의 **알아차림의 파워** ❷ 내가 진실할 때 의식이 확장된다



▶한줄요약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을 탓하는 것은 세 번째 차크라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이들의 주요 특징이다. 세 번째 에너지 센터가 건강하고 잘 작동될 때 우리는 무엇인가 해볼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자신이 두려워한 파멸 원인은 바로 '자신'



언제부터인가 나는 '나를 내려놓아야 나도 세상도 편안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왔다. 이 글을 쓰다 보니 이제 내가 가야할 삶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지난 번 칼럼에서 한라산에 올라갈 때는 백록담에 도달하겠다는 목표가 있지만 내려갈 때는 출발지가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제주국제명상센터에서 일을 할 때는 상담과 명상으로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이지만 일을 멈출 때는 '참 나'를 만나는 일이라고 했다.

이제 '참 나'를 만나러 가야 한다. 지금까지 명상센터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이제 남은 일은 쉬면서 '참 나'를 만나는 일이다. 현재 내가 마음을 기울여야 할 일은 후임 이사장에 누구를 추대할 것인지를 찾는 일이다. 그리고 이사장직을 그만 둔 뒤 '참 나'를 만나기 위해 정진하는 일이다. 올라가는 길은 멀고 험해도 이미 도달했고, 내려가는 길은 눈앞에 있는데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매우 가까이 있는데도 마치 낭떠러지 절벽을 바라보는 듯하다. 아슬아슬하다. 훌쩍 건너 뛸 수가 없다. 바라보면 한순간인 듯 가까운데 쉽게 건너기 어렵다. 그러나 백척간두의 경계를 건너야 새로운 내 인생이 나타날 것 같다.

우리의 삶은 개인의 의식이 얼마나 깨어있느냐에 따라 그 질이 달라진다. 개인의 현재 의식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선천적 의식과 살면서 학습해온 후천적 의식이 통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의식은 밝은 의식과 탁한 의식, 밝기도 하고 탁하기도 한 의식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누구나 밝은 의식으로 살아가고 싶으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데보라 킹Deborah King(2009)은 "진실이 내 삶을 구한다"라면서 삶에서 진실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진실이 치유한다'라는 저서에서 "마음속에 간직한 아픈 비밀이나 거짓말은 우리 몸의 에너지 장을 왜곡하고, 면역체계를 취약하게 하고, 내장 기관을 지치게 하며, 심장을 수축시키고, 뇌를 흔들며, 신경계를 교란한다."고 했다. 결국 거짓된 삶은 우리의 몸을 지독한 쓰레기 더미로 전락시키고 망가뜨려 정신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차크라, 세상 에너지 순환을 통해 밖으로 보낸다

우리 몸의 영성적인 체계를 보면 척추 맨 아래 부분에 위치한 첫 번째 에너지 센터인 뿌리 차크라(muladara chakra)에서 머리 위 꼭대기에 위치한 일곱 번째 에너지 센터인 정수리 차크라(sahasrara chakra)에 이르기까지 세상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건강한 순환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는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 체계에서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한 기억, 두려움, 슬픔, 분노에 맞서기 위해 망각이라는 신경 메카니즘이 작용한다. 몸은 이 체계에서 모든 기억을 저장하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러나 명상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나 필요에 따라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알아차림으로써 현실화하도록 한다. 또한 명상은 수행을 통하여 긍정적인 생각과 의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행위들, 삶을 향상시키는 경험들을 습득하는 것, 초의식의 영향력이 마음과 몸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따라서 신체의 각 부분을 알아차리고 그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 정서적인 혼란, 수술, 사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트라우마는 에너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손상을 입힌다. 시간이 지나서도 충격적인 경험이 처리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몸의 특정부분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질병이나 문제가 발생한다.

각 차크라에 따라 특징이 다르지만 첫 번째 차크라가 잘 정합된 경우에는 이 차크라의 주요 특징인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존재감(presence)이란 내 모든 부분이 실재로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 내 몸에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뿌리 차크라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그들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설거지를 할 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 식료품을 살 때에도 마음은 자주 다른 곳에 가 있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하나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다. 그러므로 매 순간 내가 여기에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한다. 한 방법으로 걷기 명상을 떠올려보자. 발을 들고 내릴 때 드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리는 것을 알아차린다. 오른 발을 들 때 고정 시킨 왼쪽 발이

삶은 의식이 깨였느냐에 따라 질 달라져
명상, 습관적 필요에 따라 결과 알아차림
진실 찾기 위해선 매일 자아와 만나 확인
마음 속 비밀과 거짓말 뇌와 신경계 교란

몸의 균형을 잡고 있는지 놓치는지를 알아차린다. 그리고 오른 발을 내려놓고 고정시킨 후 왼발을 들면서 몸이 균형을 잡고 있는지 놓치는지를 알아차린다. 물론 이 때 의식은 왼발과 오른 발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자신 언행에 책임 지지 않는다면 대체로 남 탓

우리는 상처받은 이들로부터 상처 받는다. 강박적인 과잉성취자는 대부분 균형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다. 자기 내면의 진정성에 위배될지라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세 번째 차크라(manipura chakra)가 정합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이 두려워한 파멸의 원인은 바로 자신이다.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을 탓하는 것은 세 번째 차크라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이들의 주요 특징이다. 세 번째 에너지 센터가 건강하고 잘 작동될 때 우리는 무엇인가 해볼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의 의도는 분명해진다. 세 번째 에너지가 활기차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보유하고 그 힘 속에 서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힘을 요구하거나 무자비하게 힘을 빼앗을 필요가 없다. 이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뤄내고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크게 개의치 않고 진실 되게 산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진다. 자기의 삶에서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비난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스스로 '나는 진실 되게 살고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면 된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대체로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비난하며 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나이 들고 성숙할수록 에너지는 위로 상승한다. 사랑의 차크라라고 하는 가슴 차크라(anahata chakra)는 하부 세 개의 차크라와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 육체적인 것과 육체적이지 않은 것과의 유대감을 형성한다. 또한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도 형성한다. 심장은 몸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삶의 중앙기관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차크라의 주요 특성은 주고받기, 무조건적인 사랑, 감사, 연약한 부분까지도 마음을 여는 따뜻한 마음가짐이다. 가슴 센터가 균형을 맞추면 만족감을 느끼고 평화로워진다. 남을 돌보고, 연민을 갖게 되고 용서하게 된다. 자신의 삶에 사랑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마음이 진정으로 사랑에 대해 열려있는지 혹은 오래된 상처를 안고 그 상처를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는 것은 마음이 열려있는지 혹은 닫혀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다. 우리가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진실은 어디로 가게 될까? 데보라 킹은 "생존을 위해 거짓을 말하겠지만 몸은 버틸 수 없다. 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잘못된 일에 침묵하면 잘한 일에도 침묵하게 된다."라고 주장한다. 네 번째 차크라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중심역할을 한다. 영성이 깃드는 곳이기도 하다. 대체로 40대에서 60대까지의 삶이 여기에 해당한다.

잘못된 일에 침묵하면 잘한 일에도 침묵

개인의 삶에서 자신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은 대체로 외모이거나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에너지 센터(vishudda chakra)는 목에 자리하고 있고, 창의적인 표현과 주로 관련된다. 주요 특성은 말을 사용하거나 말이 아닌 다른 소통방법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느끼고, 신념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며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다섯 번 째 에너지 센터의 메신저는 목소리와 선택이다. 어떻게 살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우리의 꿈이 무엇인지까지도 목소리를 냄으로써 발현될 수 있다. 이 부위에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너무 말을 많이 한다던가,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말하게 된다. 남들에 대해 뒷말을 하기도 하고, 침묵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다면 풍요롭게 살 수가 없다. 좋은 관계에는 진실을 표현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자아와 만나 확인하고, 나 자신과 대화하고, 자연스럽고 확실하게 나의 진실을 말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는 자신이 더 높은 의지와 나란히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될 때 명상의 단계에 이른다. 요가명상 7단계(dhyana)에서는 순수한 실존적 존재인 참 나를 각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일 누군가 나에게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라고 한다면, 나는 "오, 그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버려둬. 나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라고 반응한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나는 평화와 조화, 고결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진실이고 명상적 상태이다. 명상자의 인격 속으로 들어오는 부정적인 입력물이 박탈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진실은 그냥 두어도 변하지 않는다. 찬바람이 몰아쳐도 죽지 않고 겨울을 나는 식물처럼 봄이 되면 새순을 내보낸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진실이 되어 변하되 변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어야 세상은 밝고 평화롭다.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BTN 불교TV
출가열반재일
특집프로그램
불기 2567년 부처님의 출가열반재일을 맞아
BTN불교TV에서 준비한
특집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2월 27일(월) ~ 3월 3일(금)
9시 30분 / 21시 30분
<출가·열반재일 특별법문>
출가, 대자유의 길


3월 6일(월) ~ 3월 10일(금)
9시 30분 / 21시 30분
<출가·열반재일 특별법문>
열반, 궁극의 깨달음



3월 1일(수) 20:30 | 3월 3일(금) 13:00
3월 5일(일) 22:50
<출가재일 특집>
불법유턴


3월 1일(수) 07:30 ,19:30 | 3월 5일(일) 14:00
<출가재일 특집>
자현·광우스님의 끝판!!맛수다


3월 2일(목) 17:00
<출가재일 특집>
고향으로 돌아가니 천지가 꽃밭이라
지리산 무쇠소 고산 대선사



3월 5일(일) 19:00
<출가재일 특집>
한암스님, 마음의 달을 비추다


3월 6일(월) 19:30
<열반재일 특집>
호남의 선맥-다선일미(茶禪一味)의
법향수산 대종사

스마트하게 BTN불교TV를 시청하는 방법
01. TV를 통해서 시청 : olleh 233번 | Btv 295번 | tv 275번 | skylife 181번
02.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 : www.btn.co.kr
03. 앱을 통해서 시청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BTN」 검색 후 무료 다운로드
04. 유튜브채널을 통해서 시청 : 유튜브에서 BTN 검색 후 BTN 구독과 알람설정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25 호 현대불교
2023년 3월 1일(음 2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착을 두지 마시고 모든 걸 자기 주인공에 일임해서 놓으세요

맡겨 놓는다는 것은

질문 유튜브에서 대행 스님의 법문을 듣다 보니 주인공에 맡겨 놓으라고 하시는데 다 놔 버려도 삶을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제대로 맡겨 놓을 수 있도록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여러분이 "다 놓게 되면은, 생활하는 사람이 다 놓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말씀들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뛰지 않으면서도 뛰는 방법이 있고 뛰면서도 뛰지 않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소에 가서 똥을 눴는데 똥 눈 사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원할 뿐이죠? 일체 생활을 하면서도 벌써 앞발은 떼어 놓지 않았으니깐 없는 것이고 뒷발은 떼어 놓는 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공해서 자기가 했단 말 하나도 할 수 없이 생겼습니다.

매사에 '자기 거다' 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금을 수만 관을 갖다가 쌓아놨다 할지라도 자기는 관리인입니다. 자기 주인의 관리인. 관리인이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주를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게 갈 때에 돈 갖다 주려고 간 게 아니듯이 누구에게 준 게 아닙니다. 물건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간 것이고 그 돈 값어치대로 물건을 사오지요. 그건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 갖다 줬다는 말을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절에 와서 단돈 만 원을 갖다 냈다 할 때도 여러분이 어떠한 스님네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돈 값어치 가져가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갖다 놓은 것만 보였지 가져가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갖다 준 사람도 없는 것이요, 받은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십시오. 이 도리를 모르신다면 기복으로만 나가서 나중에는 생사에…. 아니, 부처님께서는 선의 인과도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악의 인과도 그렇지마는 만약에 선의 인을 짓는다면 그 선과를 받게 마련이니 선의 인과도 짓지 말라 했습니다. 일등 동물로서 태어나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달마 대사와 양 무제가 말씀하신 그 점을 상세히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이 내 내공과 더불어 같이, 삼세심을 같이 들어서 내가 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응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량으로 그냥 떨어져서 헛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자기 영원한 생명의 선을 주인공이라고 했으니 주인공에 모든 것을 일임해서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 선, 이름해서 주인공인 참자기는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유생 무생과 더불어 생활하고 돌아가는 진리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놓고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돌려서 놓는 것입니다. 끊는 게 아닙니다. 망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망상이 없으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상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놓으라는 것입니다. 놓아서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기 때문에 '무(無)' 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놔라, 공했느니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꼭 거기에다가, 단연코 자기 영원한 생명의 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걸 진짜로 믿고 바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해서 놓으셔야 합니다.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흉겨운 거든 기쁜 거든, 모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주간 법계에서 다 통과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고 거기다가 놓으십시오.

사람이 아파서 놓는다 하면 반드시 거기서 의사가 돼 줄 것입니다. 자기의 참자기는 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화할 수 있는 광대무변한 뜻입니다. 빛으로는 빛으로 응하고 음파로는 음파로 통하고 모든 것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렇게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다 모든 걸 일임해서 놓고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둔다면 바로 자기까지도 내공에 다 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건이든지 다 놓으시고 남한테 나쁜 말 하지 마시고,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가정에서도 애들이 공부 안 한다고 공부해라 해라 해서 더 공부를 못 하게 하지 마시고, 착을 두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일임해서 자기의 주인공에 놓으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에너지와 같은 그러한 능력은, 바로 그 애한테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이 되고 집안에 향내가 아주 그윽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조화가 돼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한 가정이 조화가 돼서 화목하게 됨으로써 돈이든 뭐든 모든 게 아마도 구족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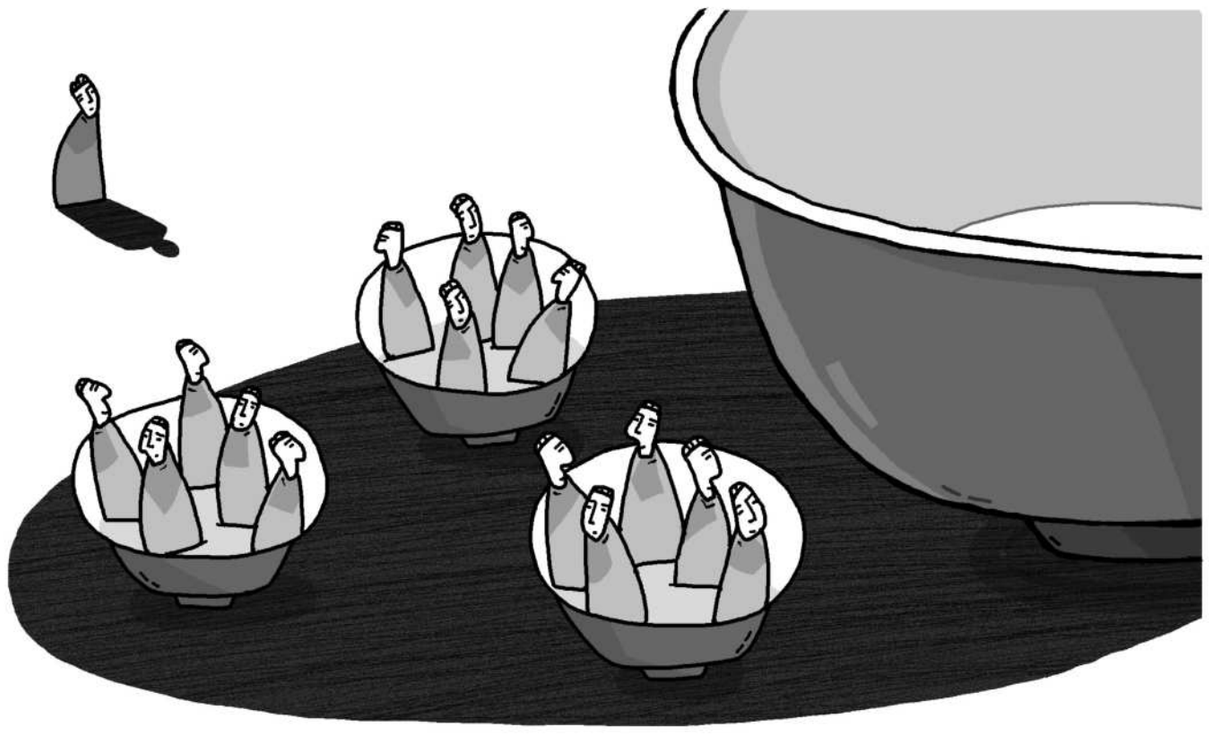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인과에서 벗어나려면

질문 나에게 닥치는 일이 모두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한 인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그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 스님이 이렇게 물었죠. "모르는 어린애들은 업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요. 그러면서 "어린애가 세 살 네 살인데 어떻게 업보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모르고 짓는 거는 모르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짓는 거는 알고 받게 마련이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니냐고, 끼리끼리 모이니까. 지금 현 세상을 잘 보시면 아시듯이, 무쇠전에 무쇠가 모이고, 아니 쌀전에 가 보면 죄 알겠군요. 팥은 팥대로 콩은 콩대로 쌀은 쌀대로 놨죠. 그렇듯이 인간의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잘 쓰면 잘 쓰는 대로 잘 쓰는 사람끼리 모이고,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그런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 쓰고 못 쓰는 건 무슨 영향을 받느냐. 마음을 잘못 쓰면 행도 잘못 나가고 말도 잘못 나가게 됩니다. 신경질을 부리고 말입니다. 안 되고 걸리니까 신경질을 부릴 수밖에. 조건이 걸리지 않는데 왜 신경질이 납니까? 만사가 신경질을 낼 일이 하나도 없는데,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질서대로 그냥 순응해서 무난히 흐르고 있는데. 그 법칙을 따라서 닥쳐오는 대로 놓고, 닥치는 대로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걸릴 게 뭐 있겠습니까?

부자로 만들어 놓고 죽은들 가난한 집안을 두고 죽은들, 그런 걸 염두에 두지 말라 이겁니다. 엽전 한 푼 가지고 있어도, 내 몸뚱이를 이렇게 지니고 있어도, 내 몸뚱이 끌고 갈 수도 없고 엽전 한 푼 끌고 갈 수도 없고, 또 자식들이 근중하다 하지만 자식들이나 부부지간에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알아야 자식도 가족도 조상도 다 서로 가고 옴이 없이 에너지를 서로 나누어서 공생할 수가 있고 공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거는 무심하고 그게 아니라고 우기고 안 된다고 우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이 따로 없다는 그 뜻은, 모든 것에 구애받지 말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디서 하는가. 한자리에서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한자리에 모든 것을 놓고 마음을 잘 쓴다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쇠도 녹을 것입

☞ 22면으로 계속



자꾸자꾸 다가오는 것 근본 자리에 놓게 되면 고가 다 없어집니다

☞ 21면에서 계속

니다, 아마. 스스로 봄이 와서 스스로 물은 녹아서 청청하고, 아니 날은 밝아서 휘영청하니 꽃은 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열매 열리고.

모든 생명들은 자기가 지은 대로 소임을 맡아서 살고들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다니는 이 땅도, 흙도 살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고마운 줄을 몰라서는 안 되죠. 그러니 모든 걸 깔봐서도 안 되고 자만심을 가져도 안 되고 건방져도 안 되고, 마음은 꿋꿋하게 주인공을 세우면서도 거죽으로나 행으로나 말로나 어디로든 겸손하고 건방지지 말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만물만생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대인이 될 수 있으며 하나도 버리지 말아야 하나도 버리지 않는 까닭에 하나도 없으므로 모든 걸 통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 떼 놓으면 무얼 통솔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급해서 한마음을 낼 때는 만 명도 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뜻을 알고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만 명, 한 명의 한 생각에 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십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오십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오천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 다 내 마음이 될 수 있고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급한 일에도 걱정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쳐 준 뜻이지 개별적인 어떠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왔으면 배고플 땐 그냥 집어 먹어야지, 절차를 따져서 누구 누구 누구 이럭하다 보면 다 없어지니, 닥치는 대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은 쓰지 않고 그저 '이거 이럭하면 된다더라' 하고 남의 말 듣듯 하지 말고, 들어서 약이 될 것도 놓고 들어서 약이 안 될 것도 다 놓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체질이 돼서 나쁜 거는 흘러나가고 좋은 거는 거기서 생산이 돼서 나옵니다. 금을 캐면 금만 일렁일렁해서 나오고 흙은 다 밑으로 빠져서 물로 들어가 다 소화를 시키듯이, 우리가 밥 먹으면 대변으로 소화가 되듯이, 그리고 영양분은 다 몸으로 오장육부에서 인체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어떤 때는 "나는 꿈을 이렇게 꿨는데…." 하고 와요. 그런데 그것도 공부거든요. 생시도 꿈이요, 꿈도 꿈이에요. 꿈도 생시고 생시도 꿈이에요. 이걸 까뒤집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말입니다. 미래에 가서 보면 미래에 가 본 대로 한 찰나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게 해 놓고선 그거를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보고 '아, 이렇게 돼야겠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처님 법에는. 그러나 중생들은 미래에 가 보면 그 세계에서 그렇게 보고 있죠. 한 찰나예요. 꿈과 같은 거죠.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 듣는 건 초보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걷고 있나를 잘 알면서도 말 못 하는 거죠. 또 그것을 여러분 앞에 가르쳐 주려니까, 생각을 잘하라 이겁니다. 과거의 모든 업을 녹여 버리는 것도 현재의 생각이고, 미래를 가져오는 것도 현재의 생각이다. 네가 지금 사는 거 보면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미래에 어떻게 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얘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만히 볼 때 과거로부터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때에 미래는 틀림없이 알게 됩니다. 하고 있는 걸 볼 때, 잘하든 못하든 올 겁니다. 그러니 살아서는 살아서대로의 과거 미래가 있고, 죽으면 죽는 대로의 과거 미래가 있습니다, 현실이 있고.

> 병도 가난도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 괴로움도 지옥도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만든 것 자기한테서 녹이고
> 자기한테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주인공을 꼭 믿어라!" 이러는 겁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당신, 나 이런 것 좀 해 주시오.' 이러지 않아도 내가 잘못되고 잘된 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인공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부탁할 것도 없고 '당신밖엔 못 하겠군.' 하고, 혼잣말입니다. 뜻으로 말하는 거죠.

병도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가난도 마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괴로움도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지옥도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죠.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거듭 거쳐 오면서 수만 가지의 날짐승이나 들짐승이나, 또는 물에서 사는 짐승들이나 저 땅속에서 사는 애벌레들이나 딱정벌레, 무당벌레 이런 것들이 다 주고 먹고 주고 먹고 이렇게 합니다. 자연계의 질서란 너무도 괭괭하게 질서 정연합니다. 여러분도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게 질서 정연하게 자기가 한 대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다 전장(傳掌)할 길이 없어요, 서로가. 그러니깐 자기한테서 만들었으니 자기한테서 그것을 녹이고 자기한테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콩씨가 콩 싹으로 됐는데, 그 콩씨를 찾아 가지고 보이는 물질적인 콩씨가 아닌 콩씨가 된다면, 그 콩씨 하나에서 보이지 않는 콩씨의 마음이 우주 전체를 구르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광대무변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 마음을 대견스럽고 지혜롭게 잘 쓰십시오.

집안 분위기가 지옥이에요

질문 요즘은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부부지간에 말다툼을 하는 일이 자주 생기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가장으로서 마음의 짐도 무거운데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지옥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고사라도 지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정해서 여러분한테 고난을 갖다 줬나, 업보를 갖다 줬나, 칼산지옥을 갖다 줬나, 아수라지옥을 갖다 줬나. 네? 여러분한테 오간지옥을 누가 갖다 줬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서 그렇게 여러분이 각본대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는 팔자 운명이라는 거, 삼재라는 것이 없다.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이러는 것도 간단하게 내 마음으로 둥글려서 한 떡이라면, 떡을 하나 집어 먹었다면, 떡이란다고 또 떡으로 알지 마시고요. 보이는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떡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 떡을 보이는 떡 하나로다 비유를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 떡 하나를 놓고서 내가 왜 제사를 지내라느냐 하면 뜻이 깊습니다. '주인공' 할 때는 전체를 둥글립니다. 여러분은 각자 각기 주인공 하면은 그저 나 하나의 개별적인 걸로 알지 마시고요. '주인공!' 하면 벌써 전체로 돌아갑니다. 이 위력이 얼마나 당당하고 신비한지 아주 참, 무슨 말로도 할 수 없는 도도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오시는 거 보면 속이 타서 불이 일어납니다. 하하하. 야, 한 집에 자식이나 하나 아프면 좋은데, 자식은 아프지 어른은 일 안 되지, 딸들은 나가서 안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지, 야, 술이나 마시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온통 밤새도록 노름하다가 늦게 들어오지, 데모나 일으키지, 말썽 부리지, 또 자식을 길러서 시집이라고 보내려고 하면 잘못 가 가지곤 싸움을 하고 한 대 얻어걸리고 이러곤 들어오지, 이러니 이게 하루나 편할 일이 있어야지, 도대체 이거는. 지금 애들이 예전 애들과 같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지금 걔네들 세대와 레벨이 맞아야 됩니다. 이건 꼭 맞아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는 대로 우리들 방편도 바뀌어야 되는 이치처럼. 그리고 말로 해서 아니 됩니다. 말로 하면 이건 점점 더 빗나가고, 욕을 해서도 아니 됩니다. 때려서도 아니 돼. 단 있다면 미운 아기 떡 한 번 더 주랬다고 말을 곱상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거를 안에다가 맡겨 놓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다가 에너지가 통합니다. 내 전화통을 돌리면 그쪽의 벨이 울리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착해집니다. 그건 뭐, 장담합니다. 그런데 부부지간이든 자식지간이든 온통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화목이 올 수가 있어야지. 거죽으로도 화목이 오지 못하면서 속으로도 그냥 자꾸 업보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누가 갖다 준 겁니까? 여러분의 전자로부터 좇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업보가 전자로부터 좇아 나오는 건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슴에서 치올라오는 거는…, 여러분, 지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고 지금 다닙니다. 카세트 하나에 감긴 거를 지금 짊어지고 다닙니다. 지금도 솔솔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막 펄펄 뛸 때는 보살의 행으로, 보살은 지옥에 들어가도 그 펄펄 끓는 기름 도가니를 녹여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칼산지옥이나 불탄지옥이나 그냥 다 없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오간지옥이 무너지고 말입니다.

왜 그런 소리를 했나. 여러분이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는다면 그냥 딱 가라앉습니다. 전자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받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그 자리에다가 되놔 버리는 겁니다. 그럭하면 지옥도 무너지죠, 자기는 보살이 되죠. 그런데 지옥이 한두 가집니까? 아수라지옥도 있죠.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주정을 부리는데 그런 것도 술을 마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음에서 그렇게 분기가 일어나고 조금만 보면 그냥 속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그냥 발산이 되는 거죠.

그 발산이 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길이는 팔십 리요, 넓이는 오십 리니라. 그렇게 큰 솥에 펄펄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서 지옥고를 받으니…." 이럭하거든요. 이렇게 얘기가 돼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팔십 리라는 것은 유, 무를 말합니다. 저승, 즉 말하자면 내가 나기 이전으로부터 좇아 나온 사무, 좇아 나온 사유. 이렇게 해서 사, 사, 팔, 팔십 리. 그래 십이 들어가면 이게 동일하게 묶어집니다.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 같이 돌아가서 우리한테 그렇게 고가 자꾸자꾸 다가오는 거를 거기다가 놓게 되면 고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가 있다고 팔자 운명을 타령하지 말고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다, 집안에 어떠한 자식들이 그렇다, 부부가 서로 맞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것은 거기다 맡겨 놓고 생각을 깊이깊이 다잡고 '이거는 전자에서부터 좇아 나온 지옥이다. 이거를 무너뜨려야지. 이거는 내 주인공밖에는 할 수 없다!' 하곤 거기다가 놨을 때에 지옥고가 다 무너집니다. 해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정말인가. 일체를 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 자기에게 급한 게 있으면 '주인공, 당신밖에는 못 해!' 이걸 둘로 둬서는 아니 됩니다. '당신밖에는 내 몸을 고칠 수가 없어. 내 몸이 아니라 당신 몸을 당신이 고칠 수밖에는 없어, 당신이 형성시켰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자를 끌고 다니는 것도 주인이 끌고 다녀야잖아.' 또 안 되는 게 있으면 '당신밖에는 할 수가 없어!' 그러곤 믿으세요. 감사하게 된 거는 감사하다고 믿고요.

이렇게 한다면 가정은 얼마나 풍부해지며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생동력 있으며 또 자식한테는 얼마나 뿌리가 튼튼하게 싱싱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위로는 묵은 빚을 갚으며, 묵은 빚을 갚음으로써 다시금 그 부모가 햇빛으로 나올 때에 정말이지 통장을 가지고, 싱싱한 뿌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나옴으로써 자기는 자기대로 또 그것이 거름이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나한테서 나왔다 나한테로 들고, 나한테서 나왔다 나한테서 들고, 그 자리의 조작이지 딴 데서는 조작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딴 데서 들어오는 조작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나고 드는 조작이 거기라는 거를 알게 되면 속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속아서 이리 팡 치고 저리 팡 치고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석존께서는 속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항복을 했고 자기가 항복을 받은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챗GPT 열풍, '성찰'을 생각하다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인공지능, 로봇 등 일상에 파고들어
지적영역 대체…로봇 저널리즘 확산
오픈AI 출시한 '챗지피티' 최근 열풍
이세돌 꺾은 알파고보다 파급력 높아

몇몇 오류 발견되지만 AI 발전 가속
기술에 압도되어 지배당하게 될 수도
AI시대, 인간의 자기성찰 더 요구돼

2000년대 중반에 요코하마에 거주하는 한 일본 노교수 부부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한국에는 없었던 두 가지에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다. 먼저 그들이 거주하는 5성 호텔급 실버타운의 규모와 초호화 시설에 압도당했다. 나를 더 놀라게 했던 다른 한 가지는 노부부의 거실에서 만난 로봇 애견이었다. 자식이 없는 70대 노부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는 로봇 강아지가 주인의 지시에 따라 꼬리를 흔들거나 걸어 다니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행동을 시연해보였다.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청결해서 좋다며 행복해하던 노부부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먼 미래의 세상을 체험하고 돌아온 것 같은 신기한 영상으로 기억 속에 남아있다.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로봇은 우리의 일상 속 깊숙이 파고들어 와 있다. 로봇은 작업장에서 힘든 일을 척척 수행하며 노동 인력을 대체하고 있고, 레스토랑에서 주문 메뉴를 테이블로 가져 온다. 로봇은 인간의 지적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는데, 언론계에서는 로봇이 기사를 생산하는 소위 로봇 저널리즘이 쟁점이 된지 오래이며, 세계 유력 언론사들은 증권시황, 스포츠결과, 기업실적, 날씨 보도 등을 자동화 알고리즘으로 대체하는 추세다.

이런 속에서 일론 머스크가 공동소유주로 있는 미국 스타트업 '오픈AI'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챗지피티(ChatGPT)가 인공지능 기술혁신의 결과물로서 압도적인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챗지피티는 2016년 혜성처럼 등장하여 이세돌 9단을 꺾으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인공지능 알파고를 능가하는 파급력을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언어 처리 기술로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지피티는 학술논문 및 전문영역의 보고서, 연설문, 대학생의 리포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면서 출시 1개월 만에 1억 명 이상의 사용실적을 기록했다.

특정 분야에서 챗지피티가 인간이 범접하기 힘든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오류도 속출하고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가 내린 질병 진단에 오류가 발생했고, 진단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챗지피티는 인용한 논문을 제시했으나, 그 논문이 가짜논문인 것으로 판명됐다. 챗지피티는 오로지 입력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결과를 생성해내는 기술로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가리거나 가치판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챗지티피의 등장은 인류사에 획을 긋는 인공지능 기술 혁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7일 챗지피티를 장착한 검색엔진 빙(Bing)을 출시하였고, 구글은 8일 파리에서 생성형 AI를 결합한 검색서비스 바드(Bard)를 공개하는 등 빅테크기업들의 시장선점과 수익 극대화를 위한 개발 경쟁이 뜨겁다. 기업의 매출 지향적 기술 개발 경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구글 수석 전도사인 빈트 서프는 기업들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그들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고, 일론 머스크는 최근 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세계정부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규제가 AI의 발전을 조금 늦출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좋은 일이다"라고 밝혀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진일보하는 기술혁신으로 인해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이언스픽션 영화 속 세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 의해 이뤄졌지만 인간이 기술에 압도당하고 지배당하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우려는 결코 비현실적인 주장만은 아니다. 혁신기술과 인간윤리가 균형있게 공존하는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성찰만큼은 인공지능에 넘겨서는 안 된다. 인간의 주체성을 지켜내고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자기성찰이 더 요구되고 있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몫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는 날 정적을 깨고 뉴스가 들려왔다. 오등동사지 발굴 보고 기자회견 소식이었다. 함께 하는 벗들 탐라유사팀과 현장으로 가보았다. 돌담을 따라 대나무가 많다고 해서 붙여진 죽성길을 헤집고 갔다. 골프연습장과 개발 중인 공사물들이 가로놓인 길을 비집고 들어선 현장에도 하얗게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곳 오등동사지는 예로부터 절왓, 또는 불탄터라고 구전되던 곳이다. 절에서 사용하던 샘물이 흐른다고 해서 붙여진 절새미에서는 여전히 다량의 용천수가 흐르고 있었다. 20여 년 전 지표발굴 당시 과수원 일대에서 고려 후기에서 조선 중기 사이의 기와편과 청자 대접, 매병 기종과 백자 접시 저부편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절새미에는 고요한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 샘물 앞에는 '이곳은 4.3 당시 11연대 1대대 군인들이 천막을 설치하여 주둔했던 군 주둔소 옛터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 주둔소가 있었던 곳이다. 죽성에 살던 한 주민은 이미 잡혀간 사위를 빼내려고 황소를 이끌고 갖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군인의 밀고로 무참히 매 맞고 사위와 함께 1948년 11월 14일 총살되기도 했다. 4·3과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 표석을 세운다'는 기록물마저 눈에 파묻혀 있었다.

그렇게 역사의 사연들은 묻히고 또 묻혔다. 가슴에 묻어놓은 기억은 눈물 되어 절새미물로 언 눈밭에서 흐르고 있었다. 2020년 오등동 250번지 일대에서 고려~조선시대 유구와 주거지 등이 발견돼 주변은 문화재 유존지역 일명 '오등동절터'로 등록돼 개발하려면 발굴조사를 반드시 밟아야 했다.

해당 부지는 토지주가 창고 시설을 새로 짓기 위해 지난해 여름 표본조사를 했다. 이에 정밀조사가 진행되어 총 5호 건물지가 드러났다. 그 가운데 3호 건물지에서 '금동다층소탑'이 발견됐다. 크기는 성인 손바닥으로 가려지는 정도로, 탑의 중간 몸체 부분인 탑신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이번 유물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이영철 대한문화재연구원장은 보고회에서 "한국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고려시대 청동소탑은 30여 점에 불과한데, 출처가 정확하지 않고 신고되는 경우가 다수다.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 출처가 밝혀진 사례는 5개 안팎에 불과하다. 제주에서 고려시대 청동소탑이 정식 발굴조사로 확인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고, 국내 전체로 봐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려시대 건축 문화를 유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영철 원장은 "고려시대는 외침이 많아서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이런 탑 모형을 보면 고려시대 목조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건축사적 의미를 복원하는 높은 가치를 지녔기에, 국내 건축사 연구의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한 유물"이라고 강조했다.

역사는 기억하고 기록하는 자의 몫이다. 천년의 역사는 또 다른 역사에 파묻혀 있다가 기억하는 자에게로 그 사연을 전한다. 눈밭에 절새미물은 무언설로 설법하고 있다.

〈제주 선래왓 주지〉

社 說

진각 100년 새 비전을 기대한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2월 20일 서울 월곡동 진각문화전승원 4층 회의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으로 울릉도 금강원 성지 조성사업인 회당명상체험관 건립과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진각종은 종조 회당대종사 탄생지인 울릉도에 제 3차 성역화 조성사업인 금강원 성역화 불사를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완성할 예정이다.

핵심 사업으로는 △회당기념관 △회당생가 복원 △명상수련원 조성 등으로 울릉도 사동 일원 1만3600여 평(45,237㎡) 부지에 조성된다. 이를 위해 진각종은 지난 1월 통리원장 직속 기구인 '성지조성위원회'와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사업회를 발족하며 3월부터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양대 기조인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사업은 '다시 종조정신'으로 돌아가 종단의 활력과 교화 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는 종단의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능동적 대응을 통한 교화 및 포교의 혁신적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참회' '화합' '혁신' 등을 잡았다.

이중 특히 참회는 종조님의 창종 정신이 깃든 사상이며, 혁신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불교운동을 펼친 종조님의 개혁정신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밀교종단인 진각종이 올해 울릉도 금강원 성지 조성사업인 회당명상체험관 건립과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을 통해 회당대종사의 창종 정신을 되새기고 진각 100년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

상월 순례 공덕, 불교중흥 이어지길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룬 자리, 인도 부다가야 마하보디대탑 앞에 한국 순례자 5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불제자로서 참회와 성찰, 새로운 불교 중흥을 다짐하는 108배를 부처님 전에 경건히 올렸다.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2월 22일 마하보디대탑 앞에서 개최한 세계평화기원대법회 현장.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아래에서 순례단은 불제자의 각오를 담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날 자승 스님은 한국불교 미래를 언급하며 대중 모두 새롭게 발심하길 당부했다. 포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자승 스님의 일성에 동참자들은 숭고한 결사 정신을 되새겼다.

무더위를 피해 새벽 3시에 하루를 시작, 하루 평균 30km를 걸어야 하며 공터에서 숙영을 해야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43일간 1167km를 걷는 대장정인 인도 순례를 이어가는 이유는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찾아 체득하겠다는 서원 때문일 것이다. 불제자로서 부처님을 따라 그 길을 걷고 불교 중흥을 위해 다시 한번 나서겠다는 다짐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온몸이 지치고 고통스르워도 원력을 이루는 날까지 끊임없이 중생 속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는 오늘날 한국 순례자들이 걷고 있는 이길을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걸었다.

함께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인연들은 마음으로 함께했다. 상월결사의 그 길에 보다 많은 이들이 마음을 모아주길 기대한다.

순례단의 공덕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가 일길, 세계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자비가 가득하길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최초 최고 명품 불자 교육기관]

빛나는승려의길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교육원 개원

조계종 대덕스님 강의로 범종단 승려의 위의 · 자질 · 능력 함양을 위해

| 개원식 | 2023년 3월 8일(수) 오후 3시

| 강의일정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5시 까지 6개월



증 명
서해 흥교 대종사
(前 범어사 전계대화상)



교육원장
심 산 스 님
(흥법사 주지)



운영위원장
자 인 스 님
(길상사 주지)



교 수 사
도 일 스 님
(前 송광사 율원장)



교 수 사
무 애 스 님
(前 해인사 강주)



교 수 사
하 림 스 님
(미타선원장)



후원회장
최 금 식
(선보공업 대표)

| 교과목 | 계율과 위의 · 습의와 의례 · 초발심자경문 · 치문경훈 · 기본선과 명상 · 불교문화 · 시대적 포교와 사찰운영

신입생 모집

| 합동입학식 | 2023년 3월 7일(화) 오후 7시

기초교리학과 (수, 6개월)

■ 학장 평천 범혜스님 (한국불교 대강백 월운스님 전강제자)
불교 기초 핵심교리를 알기쉽고 체계적으로 설명

불 교 학 과 (화, 1년)

■ 불교개론 위주로 분야별 명사 초청강의

불교엘리트학과 (목, 1년)

■ 선행스님 (백양사 · 선운사 강주 역임)
원각경으로 보는 깨달음의 지혜 – 상반기

■ 정인스님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재가불자들을 위한 경전 유마경 – 하반기

문 화 힐 링 과 정

■ 수어반(월) ■ 합창단(월)
■ 다도반(월) ■ 사물놀이단(금)

부동산융합풍수학과 (화, 6개월)

■ 여해스님 (한국풍수최고봉 이산 장태상 선생 수제자)

불교문화학과 (6개월)

■ 김춘식 교수 (본교 전임강사)
사찰문화재 중심 시청각 강의 및 현장답사
▶불교문화 포교사(월) (민간자격 등록 2018-000374)
▶불교문화 전문지도사(금) (민간자격 등록 2019-000629)

※ 각 학과별 매주 1회 오후7시~9시 강의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빌딩 5층
(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051-711-0700

